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절은 '친절' 입니다"
12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83호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2월 12일) · 주간



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정의를 외면말고 원망하지 말라.

"법인법, 규제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조계종이 공포한 법인법이 오는 6월까지 법인 등록 마감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인의 재산 및 인사권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요소가 적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학원 '반대'… 대각회 '관망'

법인법은 지난해 3월 20일 제정돼 4월 1일 공포됐으며, 시행령은 동년 6월 25일 제정 · 공포됐다. 공포 후 선학원은 조계종 법인법이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고, 2002년 합의 사항도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 반대 기조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대각회도 분원장 스님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됐지만 현재는 조계종의 정책 방향을 관망하자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00년 합의 사항 준수 내용을 부칙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총무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인 규제 조항들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선학원의 경우 법인법 조항 중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법인 이사의 1/3을 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 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조계종 측의 권한 강화로 선학원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선 법인, 규제 조항 부담

선학원과 대각회 등 대표적인 법인들 이외에도 밖으로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적지 않은 법인들이 규제 조항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법인법 내에는 규제 조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제 12조 정관 개정과 시행령 제 9조 재산 처분 부분이다. 법인법에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명칭 · 목적 · 임원 · 재산과 관련된 정관 변경도 총무원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총무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정관 변경은 법인의 중요한 고유 권한으로 이를 '승인' 하는 것은 침해 행위라는 것이 법인법 시행을 우려하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외에도 임원 해임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를 바로 법인 이사회가 해임 처리를 강제하는 조항(제 20조)을 비롯해 종령에 따라 주지 품신(제 16조 2항), 법인 산하 사찰 등록 금지(제 18조)도 규제 조항으로 지적된다.

"법 시행 후 분쟁 소지 가능"

이에 대해 불교 법인 관계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 조항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계의 한 법인 변호사는 "법인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며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미 법인 이사회 내 2/3이상을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법인법은 그 목적을 완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산 출연과 정관 개정을 '승인' 하는 것은 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보고만으로도 종단 관련 법인들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위한 재산 출연에
종단 승인 등 규제 많아
법인 사찰 건립 · 등록 금지

"법인법 취지와 목적
초점 맞춘 개정 필요"

이어 "총무원장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가가 인정한 법인에게 다른 법인장이 명령을 하는 상황이어서 법 시행 이후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 원장인 김종규 변호사 역시 법인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 조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모순된 조항들이 있다"면서 "특히 제 2조(정의)의 경우에는 법인 산하 사찰을 인정하지만, 제 18조를 살펴보면 법인 사찰을 보유, 관리,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항 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각회 이사 보광 스님도 "정관 개정은 당해 이사회가 관장할 사안이지 종단 승인 사안이 아니다"면서 "법인법은 필요하고, 대각회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산하 사찰의 민원들이 수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종단 승인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관련 협의 시작하나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관련 의견 청취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인법에 대한 관심사가 큰 만큼 일부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시기인것 같다"면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추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실제로 교계의 안팎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에 설치된 (재)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 이하 대책위)의 재가동을 법인법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대책위는 3월 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장 성직 스님은 "종단 법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는 의견이 회의에서 모아졌다. 아직은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선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들의 우려도 고려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 신중일 기자

교학사, 역사 왜곡 이어 종교 편향까지?

종자연 4일 성명서 발표… "창조과학회 주장 수록" 비판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교과서가 기독교 교리를 반영한 내용을 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3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학사의 2014년 검 · 인정교과서 중 '생활과 윤리' 교사용 지도서에 기독교계 창조과학회측 주장을 부적절하게 실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론을 교과서에 싣기 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기독교 근본주의 단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교과서 중 교사용 지도서 130, 131쪽에 실린 '탐구하기 :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나의 입장 밝히기' 의 2, 3번 질문.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서 성적 지향이 유전되거나 선천적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합리적 내용을 담아야 할 교과서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단체의 주장이 여과없이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과도 대치된다.



문제가 된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

종자연은 "창조과학회가 생물학 교과서에 창조론을 싣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단체 주장을 검토없이 교사용 지도서에 싣는 것은 종교와 정교분리를 내세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인증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학사와 집필진, 교과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종용하고 즉각 창조과학회 주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현진 기자



불교의 모든 것 '불교박람회' 개막

9일까지 진행… 250개 업체 · 350개 부스 운영

한국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14 불교박람회' 가 3월 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막을 올렸다.

조계종이 주최한 '2014 불교박람회' 의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몽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대회장인 자승 스님은 "불교박람회는 한국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산업과 문화의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9일까지 열린 2014 불교박람회에는 250개 업체가 350개 부스를 운영했다.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망라한 붓다아트페스티벌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축제 '삶에 향기를 붓다' 도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본지 982호 4면, 979호 20면 보도〉

조계종 개혁 20주년 사업 일정 확정

법회 · 세미나 4월 10일… 백서 · 구술 자료집 발간

1994년 조계종 개혁 20주년을 기념사업이 확정됐다.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 이하 추진위)는 3월 6일 2차 회의를 열고 종단개혁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기념 법회와 1차 세미나를 4월 10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4월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종단 개혁에 대한 사진전도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는 원로의원과 교구본사 주지, 중앙승가대 학인,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출재가 관계자, 이웃종교인 등 400여 명을 초청하기로 했으며, 홍보용 소책자를 별로도 제작해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종단 개혁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는 학술세미나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세미나에서는 종단개혁의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의미, 성과 등을 집약한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종단 개혁의 미진한 점과 과제,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리게 된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20주년 사업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총무원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한 학술세미나의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11일 좌담회를 개최 했다.

신중일 기자

새 연재 이란 보살의 인과 이야기 28면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참여는 시대 과제”

비구니회 · 비구니종회의원 기자회견… 종헌 · 법 개정 촉구

오는 3월 18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회의의 주요 사안인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 · 법규위원 참여를 담은 종헌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까지 나서서 관련 종헌 종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비구니 스님들은 제안서를 통해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법규위와 호계원 소관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오는 제197차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이 비구니도 가능하도록 종헌 종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른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한국비구니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 책정도 촉구했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초 · 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개정안은 확정된 상황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적, 이하 특위)는 3월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초 · 재심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4일 종헌특위서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 참여안 확정
종단 산하 비구니硏 설립 촉구
자승 스님 예방해 제안서 전달

특위는 종헌 73조 2항에서 초심호계위원은 9명, 재심호계위원은 11인으로 늘리고, 비구니 호계위원도 2인으로 명문화 했다. 초 · 재심호계위원의 자격과 관련한 종헌 73조 3항도 ‘재심의 경우 법계 종사 · 명덕, 초심의 경우 법계 종덕 · 현덕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변경했다. 또한 비구 스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에 열리는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구니 스님들은 호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다.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5일 기자회견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비구니 법규 ·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이부중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종단 개혁이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내 위치와 권한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비구니 스님에 대한 사안은 비구니 승가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갈마할 수 있는 역량도 있다”면서 “비구니 승가가 종단 발전에 일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구니 스님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관련 종헌 종법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명우 스님은 “항간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니 비구니도 설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승단은 엄연히 비구 · 비구니의 2부 승가로 이뤄진다”며 “종단쇄신위원회에서도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만장일치 채택한 만큼 이번 종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스님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중앙종무기관 인사에서부터 이를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확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 국제선센터 ‘결사 도량’으로 거듭

8, 9일 각각 선포식 개최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와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붓다로 살자 결사 도량’으로 거듭났다.

조계사는 3월 8일 오전 11시, 국제선센터는 3월 9일 오전 11시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 선포식을 봉행했다.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은 중도와 연기의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 추진되는 ‘붓다로 살자’ 결사 운동을, 각 사찰 단위에서 사부대중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조계사는 생명 · 평화 분야를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진행한다. ‘달빛을 켜요’라는 제하의 캠페인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포식 참석자들이 ‘하루 동안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한 시간 전 깃불 끄기’ 등의 실천사항을 서원지에 작성하면 3월 29일 오후 8시 대중전 앞마당에서 열릴 ‘Earth Hour’ 행사에서 실천 인증샷과 함께 전시된다. 조계사는 서울시 · 조계종 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원 동참자들에게 멀티탭을 증정한다. 서원지 1080개 목표 달성 시 주지스님의 프리허그 퍼포먼스도 준비됐다.

국제선센터는 수행 분야 결사 도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선센터는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맞춰 ‘행복한 108배’를 진행하며, 오는 4월부터 월 1회 포살법회 및 지역 환경 정화운동을 추진한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을 올해 10곳, 3년 이내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야권 모임 ‘삼화도량’ 통합

3월 11일 출범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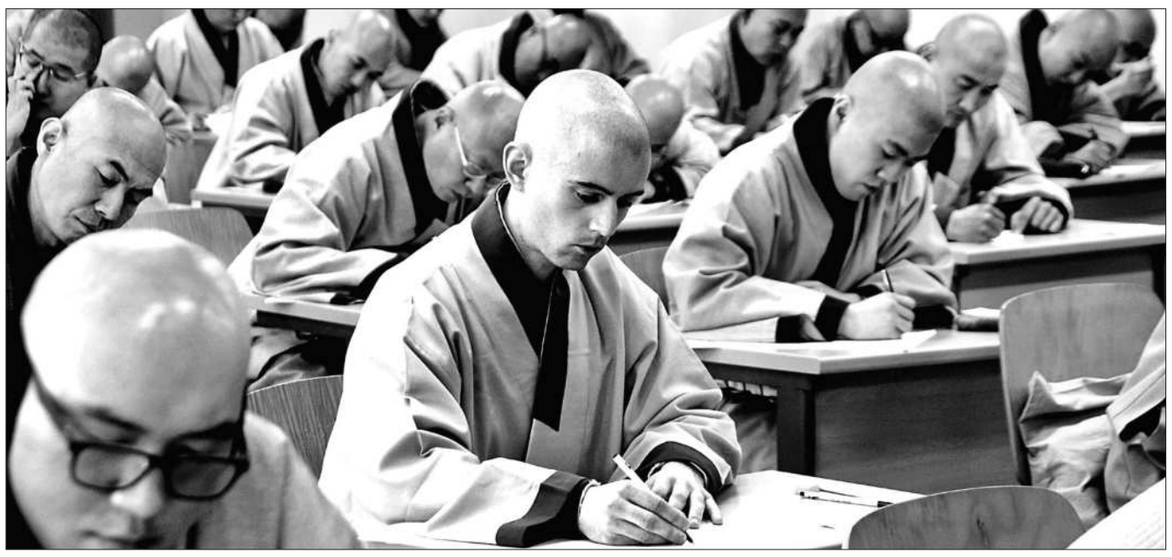
조계종 야권 종책 모임인 3자연대가 ‘(가칭)삼화도량’으로 통합됐다.

삼화도량은 3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종책모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삼화도량의 회장에는 영담 스님이 선출됐으며, 대변인에는 장명스님(직지사), 종책개발 등을 맡을 종책연구소 삼화연구소(가칭) 소장에는 법인스님(대흥사)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고문과 지도위원에는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삼화도량 소속 중앙종회의원은 25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차주 상보〉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3월 7일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외국인 학인 스님도 함께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조계종 교육원

‘인천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조계종, 7일 4급 승가고시… 총 246명 응시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3월 7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2014년 4급 승가고시를 개최했다. 이날 4급 승가고시에는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미 155명과 식차마나니 91명 등 총 246명이 응시했다.

이날 시험은 1교시 논술, 2교시 객관식, 3교시 면접으로 치러졌다. 특히 면접에서는 한글의례의식을 집전하는 것 외에 승가대학 내신성적이 서류점수로 포함됐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수행지도가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교수사 스님들이 학인들의 조석예불, 사시불공, 108참회, 경전합송 등 승가대학의 일상을 평가한 것이다.

올해 객관식에는 〈대승기신론〉 〈원각경〉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의 일부 구절을 번역하는 문제가 8문항이 출제되는 등 시험 유형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한편, 4급 승가고시 합격자는 3월 12일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오는 20일부터 8박9일간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봉행되는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가해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안타까운 죽음 다시는 없기를”

조계종 노동위, 5일 송파 모녀 추모법회

송파 모녀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삶을 등진 이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3월 5일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 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이하 장부공)’과 함께 빈곤계층 자살자들을 위한 위령제 및 추모법회를 열었다. 장부공은 장애인 · 빈민단체들의 연대체로 광화문에서 558일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1부에서는 조계종 노동위원인 동환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의 집전으로 네 명의 스님들의 위령제가 20여분간 봉행됐으며, 이어진 2부 추모법회에서는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의 발언과 추모글, 추모공연 등이 진행됐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뗀 종호 스님은 “이는 선택적 복지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한국이 세계 무역 10대국에 올랐어도 그 결과물이 서민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노동위는 송파구 세 모녀에 대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위는 2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 모녀의 죽음은 이런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이번 세모녀의 죽음을 우리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바라 봐야 한다. 노동위원회도 앞으로 빈곤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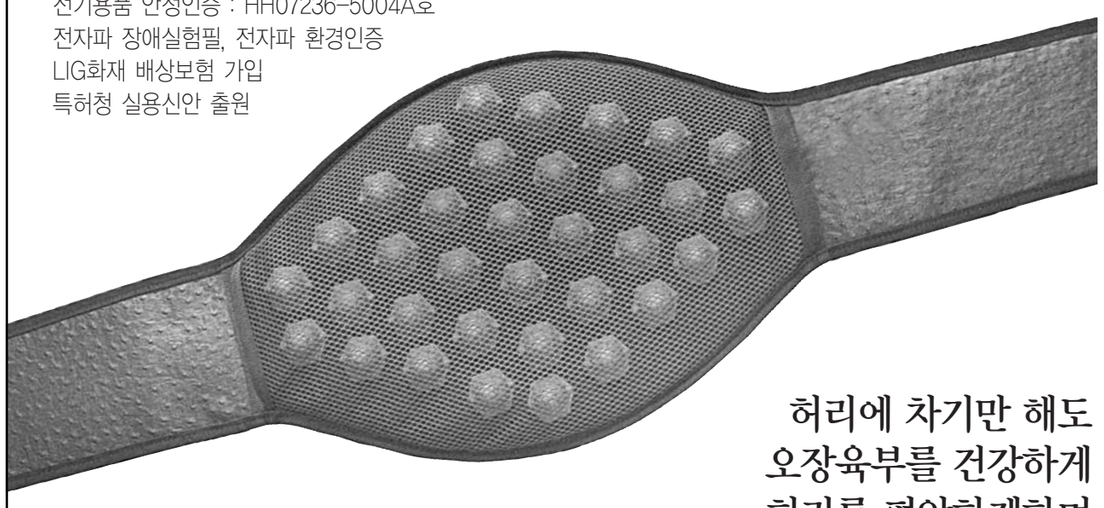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3월 5일 조계종 노동위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모녀 등 가난 때문에 삶을 등진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교계 죽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서야”

문현공 씨, 〈불교평론〉에 기고 –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자살 막기 위한 교육 필요성 강조
“사찰 죽음 프로그램 드물어”
죽음 돌보기 · 바로보기도 수행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등 지표에서 드러나듯 삶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죽음준비 교육’을 통해 대중들의 삶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美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연구원을 역임한 문현공 동국대 박사과정〈사진〉은 최근 〈불교평론〉 57집에 실린 ‘죽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서 한국에서의 죽음준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씨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죽음연구가 시작됐으며 유럽또한 죽음교육이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1970년대부터 서양의 죽음연구를 받아들여 2005년 이후부터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범죄와 자살률 증가의 대안으로 죽음교육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문 씨는 “국내에서도 불교계의 생사학을 포함한 죽음연구가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불교계를 돌아봐도 직접적인 죽음준비를 제시하는 사찰의 프로그램이나 불교계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씨는 논문에서 초기불교경전을 중심으로 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지를 살펴봤다.

문 씨는 “불교 입장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도 수행”이라며 “초기 경전에서는 시체가 부패하며 해골이 되는 과정을 관할하며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不淨觀) 수행,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인 사념(死念) 수행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문 씨는 사념 수행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념 수행은 하루 · 한나절 · 한 끼음식을 먹는 동안 ·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 등 작은 순간을 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정신을 기울이면 많은 것을 이룬 것이라는 6가지 가르침이다.

문 씨는 사념수행과 함께 아픈 이들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씨는 “상담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며 “부처님은 아습파서의 존자가 중병에 들자 마음의 해탈을 얻게 해 평안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중증환자의 심리치료를 비롯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을 불교계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끝으로 “불교계의 체계적인 죽음준비 프로그램 개설과 함께 법회 또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틀 위에 죽음명상과 같은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27 법난 사업 탄력 붙나

법난위원장 정만 스님 기자회견… “사업 정비 단행”



문광부로 소관 변경되며
기한 2015년 6월로 늘어
종단과 협의해 기념관 건립
조계사 성역화 사업과 연계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 이하 10 · 27법난위)의 명예 회복 등 목적 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정만스님〈사진〉은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목표를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피해 조사 및 처리 △기념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명예회복방안 마련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만 스님은 우선 피해 신청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난 당시 승적 보유자 3232명에 대해 설문조사서를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소극적 자세로 답신 회신율이 미미하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 정만 스님은 피해 접수가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직접 피해를 입은 스님들은 입적하셨거나 생존해있다 하더라도 피해신청을 저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난 이후 30여년이나 지났고, 종교인이라는 특수성은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한) 적극 관여를 꺼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피해신청 건수는 186건으로 그 중 완료건수는 157건이다. 의료지원금에 대해서는 31명에 대해 5억여원이 지급됐지만, 명예회복방안을 둘러싸고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 · 27법난 위원회는 10 · 27 법난 피해자와 불교계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관건은 건립부지 확정과 계획안 마련이다. 정만 스님은 정부부처를 방문한 결과 “국비지원금으로 기념관 매입부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남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다. 종단과 협조해 기본계획을 5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종단과 협의해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 스님은 “기념관 건립은 역사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졸속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사업계획을 탄탄히 세우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 27 법난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면서 인력구성에도 변화가 생긴 바 있다. 기존에 있던 군인10명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민간 전문인력과 부처 파견 공무원 등으로 변화된 것이다. 활동기한도 2015년 6월로 연장됐다.

정만 스님은 “그동안 법난 특별법 시한 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이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예정 사업에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3월 3일 서귀포 법정사지에서 출발식을 갖고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법정사지를 출발한 순례단이 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모습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START’

3일, 제주 법정사지서 출발식… 100일 장정 돌입

불교의 화쟁사상과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반목 해결을 발원하는 100일 간의 국토순례가 시작됐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3월 3일 서귀포 법정사지에서 출발식을 갖고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2500년 전 뭇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걸어가셨던 길을 이제 그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으니 환희심 가득한 심성의 불사가 아닐 수 없다”고 격려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3 · 1운동의 정신과 함께하는 화쟁코리아 순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공정과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발식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약천사 주지 성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신경선 한국대한불교연합회장 양병식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발식 이후 순례단은 제주도의 갈등현장을 순례하며 3월 9일 강정마을을 끝으로 제주 순례를 마무리한다. 3월 10일부터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 광주 · 전남, 전북, 충북, 대전 · 충남, 강원, 경기남부, 인천, 경기북부를 차례로 순례하며 6월10일 서울 광화문공원에서 100일 간의 대장정을 회향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학술원 문제 ‘시스템 미비’서 비롯”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5일 회의… 현안 수습 논의

불교계 인사 참여 운영위 구성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가 불교학술원 내홍 문제를 운영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론 짓고, 사태 수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3월 5일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불교학술원 내홍에 대한 수습을 논의했다.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회의에서 불교학술원이 인사와 행정 등에 내규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장 영담 스님은 먼저 “이번 사태로 학교가 피해를 입게 됐다. 서로 사태를 확대시키지 말고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처리하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불교대학발전위원들은 이종수 팀장 등이 사업단장인 불교학술원장을 대신해 보고한 ABC사업단 기획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권고했다. 그동안 기획운영위원회 구성이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임의기구인 만큼, 인사 및 행정 절차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명대 위원(동국대 명예교수)은 “기획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실무팀장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 이와 결제하는 이가 같다는 것은 맞지 않다. 불교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런 운영위에서 방침을 정하고 교원 채용 때에는 인사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기획운영위원회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실무진의 총괄회의 차원이었다.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것을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동국대 여러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상위의 판단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앞서서는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동국대 법인의 불교학술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에서는 사업단 연구원 채용, 출판 수의계약 및 출판대금 정산 미비, 출장비 미지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결과를 보고한 김지형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장은 “감사 결과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을 미뤄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영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 학담 스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법인사무처와 동국대 불교대학,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 시행

4월 9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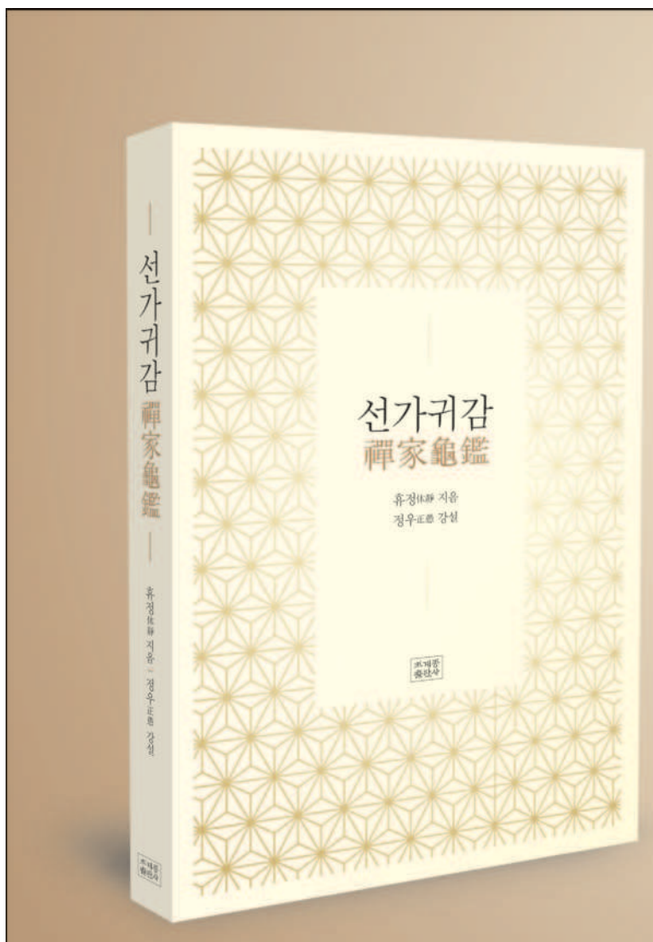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는 2014년도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은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를 범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종단에 등록하게 하고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종단 등록단체들은 조계종명 사용, 종단과의 공동사업 추진, 종단 지원 신청 및 협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사업은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심의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다. 단, 법인 및 단체(비영리 단체 포함)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창작활동)의 실적도 있어야 한다. 등록 및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2011-1779

노덕현 기자



불교수행의 입문서, 깨달음을 향한 필독서!

선가귀감 禪家龜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東巖 正愚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가 1564년 금강산 백화암에서 찬술한 책이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 시대상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이신 철우 태주 선사가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오래전의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 강설했다.

휴정 지음 | 정우 강설 | 284쪽 | 2014년 1월 25일 출간 | 값 18,000원



동암東巖 정우正愚 스님은 평생 참선 수행에 전념하며 법향法香을 전한 철우 태주(鐵牛 太柱, 1895~1979) 선사를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하여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백이신 강고봉, 호경, 혼해 강백으로부터 사집과四集科,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대교과大敎科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 11대, 12대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칠불, 청암사 수도암, 덕숭총림 정혜사, 도봉산 망월사, 영축총림 통도사, 곡성 태안사, 백양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金剛寺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안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출판사 인연 아름다운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 _ 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 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보급 _ 조계종출판사 서적총판사업부 02)998-5847

일 주 문



제3회 용주사 효행백일장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4월 6일 오전 10시 용주사 일대에서 제3회 용주사 정조대왕 효행백일장을 개최한다. (031)239-9391



한암대종사 63주기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암대종사 63주기 추모다례재'를 거행한다. (033)339-6600



조계사 에너지절약 동참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3월 29일 오후 8시 30분 에너지 절약을 위한 'Earth hour'에 동참해 캠페인을 펼친다.



37사단 민간성직자 위촉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3월 5일 충북 향토부대 육군 37사단 불교 민간성직자로 위촉됐다.



산청 보림선원 철야정진

산청보림선원 전홍근 법사는 3월 14일~16일까지 백봉 김기추 거사의 CD 법문과 녹취집을 교재로 춘계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055)972-9555

문재인 민주당 고문, 자승 스님 예방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문 고문은 "지난 연말 철도노조원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복귀 후 처음 만드는 차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종 호법원장 수혜(修慧) 스님 입적



태고종 호법원장 운곡당(芸谷堂) 수혜(修慧) 스님이 3월 7일 오전 원적에 들었다. 세수 72세, 법랍 56세. 빈소는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3월 9일 일요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봉행됐다. 운곡 스님은 1943년 태어나 195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했다. 1961년 법주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5년 법주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5년부터 20년간 동방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010)3825-8247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참선으로 '불교 대중화' 이끌 터"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



지난해 술자리 파문 후 임명
시설 보완 등 정상화에 매진
상설 참선 수행 프로그램 개설
입문 · 심화 나눠 이론 · 실참 병행
하반기에는 공무원 연수 시행

"한국문화연수원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한국전통문화를 내세워 일반인의 참여를 늘리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원의 목표는 '불교문화의 대중화' 입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사진〉은 3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일반인 대상 화두참선 프로그램과 자체 연수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 한해 계획을 발표했다.

구과 스님은 지난해 12월 4일 술자리 파문으로 해임된 초격 스님을 대신해 임명됐다. 비구니 스님으로서 종단 첫 기관장 임명이었던 만큼 연수원 정상화에 대한 부담도 컸고, 실제 살필 부분도 적지 않았다. 구과 스님은 원장 취임 이후 시설보완에 매진했다. 특히 음식, 먹을거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밥이 맛이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불교가 운영하는 연수원이지만 음식에 대한 정성과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체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사찰음식 전문가도 채용했고, 주방시설도 개선했습니다."

매점 역시 다실과 통합했으며, 한때 논의됐던 주류 판매 계획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입식 위주의 시설을 명상과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좌식 시설로 변화를 주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연수원은 참선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연수원이 기획한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입문과정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화과정은 참선 입문 과정 이수자가 참가할 수 있는 집중 수련과정이다.

특히 입문과정은 일반인이 참가하는 만큼 참선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 법문을 듣고 문답을 나눈 뒤 화두를 받고 좌선 실참에 들도록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참선 수행 뿐만 아니라 태화산 백범명상길 산책, 사찰음식, 다도 등의 세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입문 과정은 △4월 10~13일 △5월 22~25일 △7월 24~27일 △10월 16~19일 △11월 20~23일 총 5회, 심화과정은 8월 14~17일 1회로 이뤄지며,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도 법사진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증명법사로, 구과 스님과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도우 스님이 지도법사로 각각 참여하며 이론강의와 전체 진행은 박희승 한국문화원 위촉교수가 담당한다.

"화두 참선법은 그동안 산중선원에서 스님들이 주로 하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구성했고 실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연수원은 기업과 중앙 · 자치단체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현재 협력업체인 에듀맥스와 함께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절집 안에 민주주의 제도 도입했어요"

정토회 이기혜 대표 연임



"정토회 대의원제도는 절집안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법당 대표를 선거를 통해 회원들 손으로 뽑는 거죠. 지난 3년이 실험단계였다면 앞으로 3년은 이 제도를 정착화시키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정토회 이기혜 대표가 2월 16일 선거를 통해 재임됐다. 정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제를 통해 정토회 대표는 물론 각 지역 법당의 대표와 총무 등을 회원들이 선출, 중앙조직과 각 법당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토회는 2014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선거를 실시 이기혜 대표를 재선출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3월 23일 정토회 8차 천일결사부터 3년 동안 대표직을 연임한다.

"대의원(代議員)은 정토회 정회원(발심행자, 서원행자 등)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표자로, 정토회 최고 결기구인 '대의원 회의'에서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결제하고, 실무진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일을 맡습니다.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대의원들은 각 지역 법당과 봉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중앙조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의원 제도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는 정토회는 전국 시군구에 5천 개의 법당 설립과 5천명의 대중법사 양성을 목표로 전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10여년 남은 1차 만일결사를 잘 마무리하고 해외 포교를 목표로 하는 2차 만일결사 준비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20년 전, 일과 수행의 통일이라는 정토회의 설립취지에 반해 정토회 자원활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기혜 대표. 그래서 그는 불법을 행으로 실천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정토회 대표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일과 수행을 통일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원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취임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축하받고 있다.

중앙승가대 제6대 총장 원행 스님은 2월 3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2건학 계획을 밝히며 동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역대 총장 스님들의 뒤를 이어 큰 일꾼이 되겠다"며 "총장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만큼 여러 대덕 스님들과 동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의 취임식에 이어 입학식에서는 박사 9명, 석사 29명, 학사 64명 등 총 102명의 학인스님들이 입학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입학식 이후 중앙승가대는 김포시(시장 유영록)와 도서관주민 개방 · 문화재 관리 협력 · 각종 불교축제 지원 등을 골자로하는 MOU를 맺었다. 또 이날 행사에 모인 쌀 1000kg을 지역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해 김포시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운문승가대학 법계장학금 전달식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은 3월 6일 경내 종무소에서 제12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도연 스님 (동국대 불교학), 혜운 스님(동국대 경캠), 성호 스님(중앙승가대), 동광 스님(동국대 대학원), 대응 스님(동국대), 정관 스님(불국사승가대), 박지윤(성신여자대), 정연희(관동대) 등에게 각각 3백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국대 학생 1000명, 1억원 기부



동국대 재학생 및 졸업생 1,000명이 장학금으로 받은 1억 원을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전달해 화제다.

'동국108리더스' 7기 회장 조현준 군(국제통상학 4년)은 2월 28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만나,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5,9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108리더스는 지난해에도 이미 4천1백만원을 기부한 바 있어 2년간 기부한 금액은 1억 원을 넘어섰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 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께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0-3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비슬산 대견사

3·1절 '천년고찰' 되세웠다… 민족혼도…

일제 강제 폐사 97년 만에 힘모아 중창
진신사리 '대견보궁'은 민족氣 회복 의미

3 · 1절 95주년을 맞은 3월 1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 정상 부근에서는 일제에 의해 1917년 풍수지리상 일본의 국운을 짓누른다는 이유로 폐사됐던 대견사 중창을 마무리하는 개산(開山) 대재가 열렸다.

대견사 중창 개산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김문오 달성군수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이후 97년 만의 복원. '천년고찰' 비슬산 대견사가 다시 문을 여는 순간은 한민족의 한을 불교계의 힘으로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비슬산 정상에 자리한 대견사는 일본의 대마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대마도를 한반도로 끌어당기고 일본의 기를 누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사찰의 주불전에 '대견보궁(大見寶宮)'이란 현판이 걸며 대견사는 그 위용을 드러냈다. 비슬산 정상에서 대견사는 저 멀리 일본을 내려다보며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다.

마치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질곡을 씻어 내리듯 이날 개산대재에서는 추운 동토를 녹이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2011년 3월 1일 기공식과 9월 상량식에 이어 이번 중창 개산대재까지 세 차례 모두 비가 내렸다. 여기에 운무가 산자락을 휘감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울려퍼지고, 대견사 앞마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반야심경을 낭독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목탁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대견사 중창을 기점으로 국운이 융성하기를 서원했다.

이번 중창은 달성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동화사가 50억원을 지원해 중창됐다. 동화사는 앞으로 20억원을 더 들여 일주문과 종각도 건립할 계획이다.

동화사는 여기에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보궁을 조성해 그 무게를 더했다. 대구 동화사 측은 달성군, 대구시와 함께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달성의 역사성을 되찾고자 2011년부터 중창을 준비하며 진신사리 봉안을 추진했다.

올해 6월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딜란 페레라 스리랑카 노동복지부 장관이 동화사를 방문했을 때, 성문 스님은 직접 이들을 대견사 중창 불사 현장으로 안내해 적멸보궁 조성 장소를 소개하는 등 정성을 보였다.

이후 성문 스님 일행은 지난달 22일 스리랑카 페레라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쿠루쿠데 사찰을 방문해, 공개행사를 통해 스리랑카 지역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신사리를 대견사에 모시는 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1917년 일본 '기' 누른다 폐사
대구 동화사 총 50억원 들여 불사
일주문 종각도 건립할 계획
"국운 융성 · 통일 염원 도량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꺼이 진신사리의 한국 이운을 승인했다.

갖은 노력 끝에 2013년 11월 스리랑카 쿠루쿠데 사원에 모셔진 스리랑카의 진신사리 4과 중 1과가 스리랑카 스님들의 손에 의해 대견사에 봉안됐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대견사 중창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뜻 깊은 일"이라며 "군 개청 100주년과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견사가 새롭게 태어나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는 대견사를 국운융성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등 관계자들이 대견보궁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대견보궁에는 스리랑카 쿠루쿠데 사원의 진신사리 1과가 모셔졌다.


이날 1000여 대중이 모여 국운융성을 발원했다.


개산대재에 참여한 불자들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2013년 대견사를 찾아 진신사리를 봉안한 스리랑카 스님들


대견사에서 대마도 방향으로 자리한 석탑. 대마도를 견인하는 형국으로 일본의 기를 누른다고 하여 일제시대 강제 폐사됐다.

비슬산 대견사는…

일연 스님 주석… 대한제국 축원 도량

예로부터 '북봉정 남대견'이란 말이 전해지는 오래된 수행처인 비슬산 대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기록에 그 연원이 전해진다. 대견사는 신라 헌덕왕 때인 810년 창건됐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조선 광해군과 인조 대에 중창됐으며, 1900년 영친왕 즉위와 대한제국 축원을 위해 중수된 뒤 동화사 말사로 편제됐다.

구전에 의하면 당나라 문종(文宗)이 절을 지을 곳을 찾고 다녔는데, 하루는 낯을 씻으려고 떠놓은 대야의 물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다. 이곳이 절을 지을 곳이라 생각한 문종은 사신을 파견하여 찾게 하였다. 결국,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되자 신라로 사람을 보내어 찾아낸 곳이 이 절터이다. 이 터가 대국(唐)에서 보였던 절터라 하여 절을 창건한 뒤 대견사(大見寺)라 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고려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22세이던 1227년(고려 고종 4년) 승과 선불장에 장원 급제한 뒤 초대 주지로 부임해 22년 동안 지냈으며 이곳에서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팔만대장경 분사대장도감으로 남해 정림사로 가기 전 22년을 주석하며 삼국유사 자료수집 및 집필을 구상한 사찰이다.


비슬산 대견사 전경

태종 16(1416) 2월 29일과 세종 5년(1423) 11월 29일 이 절에 있던 장륙관음석상(丈六觀音石像)이 땀을 흘려 조정에 까지 보고 되었고, 종파는 교종(敎宗)에 속하였다. 그 뒤 1900년 영친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재인(李在仁)이 중창하였으나 일본의 기를 꺾고 대마도를 끌어당긴다는 속설에 의거 한일합방 이후 강제 폐사됐다.

현재 대견사에는 복원된 3층석탑과 ,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동굴대좌(洞窟臺座)와 그리고 동굴대좌 입구 절벽에 유가종심인상(瑜伽宗心印像)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절터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터가 있으며, 가뭄 때는 달성군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봉 낙성식 및 삼존불 · 신중탱화 점안 대법회 축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구담자모암 큰법당
증명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밀운 큰스님

구담자모암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여 6년 끝에 불사를 마치고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탱화를 모시어 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태아영가 천도도량을 가꾸고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구담자모암 법회안내 :
· 태아영가 천도재 : 5월 4일 (일요일) 입재
· 산신기도는 : 산신각등 1인 등 접수만 해당 됨 (4월 20일 입재 4월 27일 회향)



• 출발 버스운행 : 조계사 정문 앞 8시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8시 30분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99번길 18 / 전화 031)529-2855~6

“부처님 말씀 담긴 찬불가 부르기는 ‘생활 수행’ 입니다”

찬불가 동아리 활동으로 신심 키우는 불자들

찬불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률로 다듬어 음성으로 공부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 진리를 가사로 담아 호흡으로 몸을 조절해 음률로 메시지를 전하고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상대 모두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수행 방편이다.

이런 찬불가를 통해 신심도 키우고 친목도 다지는 모임이 있다. 바로 찬불가 동아리. 동아리 회원들은 지루한 법문 대신 노래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배워 더없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2013년 4월부터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2·4째 주 화요일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30여명이 교육관에 모여 ‘임의 소식’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양한 찬불가를 연습하고 있다. 회원들은 연습에 그치지 않고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공연을 가지는가 하면 오는 3월 중순 사찰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참가해 그동안 연습한 노래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문명하 심곡사합창단 지휘자는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노래 연습도 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신심을 키우고 있다. 찬불가만큼 불교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숙령 씨는 “청소·빨래 등 집안일 하면서 찬불가를 부른다.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런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할 자원봉사단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 동아리 ‘울림’**을 운영하고 있다. ‘울림’은 2012년 하반기에 창단된 동아리로, 평균연령 50~70대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주 금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에 모여 도영 스님(중앙승가대 불교상담교육원 교육국장의 지도아래 찬불가 연습을 하고 있다. 단원들은 찬불가 뿐 아니라 명상과 함께 마음나누기 등 마음치유 활동도 함께 한다.

유인섭 ‘울림’ 회장은 “법회시간에 법문만 들으면 가끔 지루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도반들과 모여 찬불가 연습을 하면 활력도 되고 신심도 난다. 또 찬불가 가사 중에 심오하고 불교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가사만 들어도 법문 듣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불교회관에서는 65세 이상의 여성불자 16명으로 구성된 **실버음성공양단**(단장 윤정숙)이 있다. 4년 전 전북불교회관 무료경로식당과 법당 봉사활동을 하던 서로 친분이 있던 불자들이 모여 찬불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직접 오카리나도 배워 오카리나를 연주하면서 찬불가를 연습한 단원들은 매달 관음재일 금산사 법회에 동참해 ‘관세음의 노래’를 불러 불자들에게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법당 법회나 전북대학교병원불자들의 법회에서도 찬불가를 불러주고 있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법회 후 2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단원들은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고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할 자원봉사단 찬불가 동아리 ‘울림’ 단원들이 찬불가를 연습하고 있다(사진 왼쪽).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동아리 회원들이 산사음악회 공연을 앞두고 한창 연습 중에 있다(사진 오른쪽).

40~70대 여성 불자들 활동

군법당 등 불교행사서 음성공양

LMB싱어즈·정각원·울림 등

찬불가 주제 음악법회 큰 호응

찬불가를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가사에 녹아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노래하다보면 오히려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

임옥남 씨는 “찬불가를 좋아하는 분들만 모여 신심이 흔들릴 겨를이 없다”며 “단원들간의 유대감도 좋고 찬불가를 부르다 보면 나이를 잊어버리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이종성)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모여 법회를 보고 찬불가 연습을 한다. 찬불가를 비롯해 다양한 음악을 연습한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메트로교육문화센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고객들을 위한 ‘제1회 행복바라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서울메트로법우회장은 “우리 단체는 매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진다. 그 가운데 찬불가 연습은 가사를 통해 법문을 새길 수 있어 가장 좋은 법회활동”이라고 말했다.

찬불가를 주제로 법회를 보는 곳도 있다. 전문 성악인과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 LMB싱어즈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서울 관악구 인헌동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음악법회를 열고 있다. 찬불가 위주의 의식곡으로 법회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간단한 공연이 곁들여지며 지도법사인 자우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의 법문까지 더해져 음악법회의 꽃을 피운다. 이밖에 정각원은 최근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찬불가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정각원 음악 지도법사 스님인 정행 스님(소프라노)이 불교와 마음을 주제로 한 찬불가를 들려주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뜻을 풀어주는 법문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찬불가를 배우고 공유하는 모임도 있다. 바로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임(찬사모, cafe.daum.net/ sindo108)’**이다. 2003년 12월에 개설된 카페 회원 수는 1600여 명으로 ‘진흙 속에 핀 연꽃’, ‘꽃을 바치나이다’, ‘오늘은 좋은 날’, ‘오! 부처님’ 등 수백개의 찬불가가 등록돼 몰랐던 노래가사를 보며 따라 부르고, 산사 음악회, 불교합창제 등 각종 공연 소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찬불가는 신행활동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일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 합창단 ‘울림’ 지도법사인 도영 스님(중앙승가대 불교상담교육원 교육국장)은 “찬불가는 부처님 법문에 음률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염불과도 같다. 불자들은 가사를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좋은 수행방편이 될 수 있다. 전문 합창단도 좋지만 일반 불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찬불가 동아리를 만들어 배울 수 있다면, 단순히 불자 개인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레협, 제26회 전국 어·청 연꽃노래잔치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서… 3월 21일까지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4월 1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6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중1~고1)을 대상으로 독창·중창·합창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예선은 3월 29일 독창 부문 참가자에 한해서 진행된다.

독창은 기존 찬불가 중 자유 선택하거나 창작 찬불가 1곡을 선정해 예선에서는 1절, 본선에서는 2절까지 심사한다. 중창은 15명 이내로 기존 찬불가나 창작찬불가 중 1곡을 선정해 참가하면 된다.

합창은 15~20명 이내로 최소 2성부인 찬불가로 지정곡 ‘너는 보았니’ ‘보시’ ‘돌부처’ 가운데 1곡과 자유곡 1곡을 선정해 참가하면 된다. 지방 및 도서벽지 참가자들을 위한 동영상도 접수한다.

독창 참가자 가운데 지방 및 도서벽지 참가자들은 wmv, avi, mp4 등 동영상 파일을 3월 21일까지 이메일(burec@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제24회 전국 어·청 연꽃노래잔치 경연 모습. (출처=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중창·합창 참가자는 4월 5일 까지 접수 받는다. 참가자는 신청서와 참가비, 자유곡 및 창작 찬불가 악보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독창 1만원, 중·합창은 10명 이상일 경우 10만원이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열린선원, 명상문화아카데미 개설

3월 12일~6월 18일, 법현 스님 직접 강의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이 3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4개월 과정의 명상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명상문화아카데미는 열린선원이 2005년 개원 이래 지속 운영하고 있는 예비불자교육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법현 스님이 △왜 불교인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과 보살님 △3보, 3법인 △사성제(8정도) △명상수행법 △숫자로 배우는 불교 △불교문화 △10대제자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강의 후 40분 정도의 명상 시간과 함께 초기불교의 수행법인 5정심관과 사마타, 위빠사나, 대승 선불교의 수행방법인 간화선 참구를 실행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4개월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3귀 5계를 수계하며 법명을 지어준다. (02)386-4755

이나은 기자

연등회 행사 진행할 ‘20·30’ 모여라!

연등위·대불청, 연등회 서포터즈 사업 진행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외국인을 모집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단장 하영태)은 “오는 4월 26일 2014 연등회 기간 동안 외국인 안내와 통역지원, 연등행렬, 행사진행 보조 등에 참여할 내·외국인 서포터즈 8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 연등회 외국인 서포터즈는 외국어로 소통 가능한 2~30대 한국 청년들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청년들로 국적 관계없이 80명으로 자원봉사단 단원으로 구성된다.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1박 2일 템플스테이 체험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과 이해 무형문화재 연등회 유래,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 일정에서는 명상, 연등회 문화체험,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의 면면도 더불어 직접 체험한다. 연등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국내 청년 서포터즈들은 연등 만들기 체험, 연등행렬, 회향식무대에 참여해 다른 참가자들의 행사 참여 도움, 거리질서 유지, 행사진행 보조, 외국인 안내를 돕고 참가한 시민, 외국인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지난해 보다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2014 연등회 ‘나누면 행복 합니다’의 실천 방안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3천명 어르신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비롯해 광화문 점등식에서는 외국인 플래시 몹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불청 참교육문화사업단은 “청년들이 축제 자원봉사의 주축이 됨으로써 ‘전통문화축제’의 젊고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연등회의 국제화에 기여한다.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들과의 연계,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한국에 체류 중인 영어로 소통 가능한 2~30대 국내외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웹사이트(www.cham.me)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3월 10일까지 이메일(educham9618@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개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월 1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봉사에 참여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전통문화 재현과 보존 활동으로 1356(40시간 인증)을 받으며, 유니폼(전통생활한복)지급과 교육비는 전액 무료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계 차상위계층 지원 문턱 높아

송파 세모녀 등 복지 소외계층 지원제 현실화에 관한 요구↑

저소득 복지지원 제도 홍보 미약

2월 26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집주인 앞으로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자살했다. 며칠 뒤에는 장애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일가족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주일 새 경제난에 허덕여 자살한 빈곤층은 모두 열두 명. 대다수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이 있는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에 있었다. 지원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거지원, 근로장려금, 양곡지원, 핸드폰 요금 감면 등 정부가 이들 계층에 지원하는 제도는 수 십가지에 이른다. 때문에 이들이 지원책에 신청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정부의 소극적 복지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모녀의 재정상태를 파악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지 검토하는 '제도 부검' 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역시 빈곤층이 부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를 손보기 위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한 3월 한달을 복지 소외계층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며 복지제 정비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복지관에서는 혜택 지원 대상 발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이나 부녀회 등을 찾아가 복지 소외계층 찾기에 힘써 왔던 것이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김은미 지역조직팀장은 "기본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수혜가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복지 소외계층 찾기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김 팀장은 "그때마다 일부 대상자들은 연이은 지원을 당연시 여긴다"며 복지혜택의 모순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골고루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한곳에만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한국의 복지제는 '모두 주거나 안주는(all or nothing)' 쪽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제의 모순도 문제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전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골칫거리

불교 복지 역사 20여 년
외형 커졌는데 콘텐츠는 빈약

기독교는 대출 · 취업지원 등
빈곤층 막기 위해 안전망 역할까지

전국적 네트워크 이용한
불교 복지 청사진 마련해야

다. 주민센터 내 복지 전담 공무원은 2~3명 수준으로, 1명당 많게는 1천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담당해야 한다. 불교계가 이런 한계를 메우는 데 일조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성 없는 불교 복지

복지관운영으로 대표되는 불교 복지는 산하 복지시설이 1천 여개에 이른다. 복지관은 대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천종합복지관의 경우 저소득층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100세대 중 기초수급자가 68세대로 이용비율이 가장 높다. 차상위 계층은 18세대에 불과하다. 프로그램도 목욕, 생신잔치, 반찬지원 등이 대다수다.

대표 단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경우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업이 선호하는 문화형, 재능기부 등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후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이미지 향상 효과가 있는 사회공헌 등 기업에 채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 복지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 로드맵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불교계 복지는 복지 청사진이나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며 "복지 시설이 천 개가 넘는 등 양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복지관 위탁 운영을 독려하자 시설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결과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 전반을 훑을 수 있는 구체적 기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발굴하는 데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사각에 놓인 이들을 위해 불교가 당장 어떤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독교 경우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그러나 타 종교계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메워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운영하는 'SOS뱅크' 는 긴급재정난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출지원제다. 목회자나 사회복지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을 대신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무담보, 무이자에 상환기간도 대상자가 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시스템도 마련해놓았다. 신청이 완료되면 SOS뱅크 관계자와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경기도 성남 교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주민신협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리 사채를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메자닌 아이팩' 을 만들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 곳도 있다.

물론 정부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민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타 종교계의 현장성 높은 틈새 복지 전략은 자칫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충격완화장치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기룡 불교문화연구원 조교수는 "사찰마다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개별적 노력이 있는 걸로 안다"며 불교 복지가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진단했다. 조교수는 "깊은 산 속까지 닿은 곳이 사찰이다. 교계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 복지 대상을 발굴해 취업 지원 등의 센터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소장 또한 "불교계가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뛰어들어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바로잡고 사회운동 차원의 에너지를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불교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불교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동참을 이끌어 낼만한 주체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복지제 손질론' 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불교 복지 또한 이를 계기로 방향 설정에 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어르신들 1년 동안 힘내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4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진행했다. 평균 4: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306명의 어르신은 미술관해설사, 탑골독립영화관 순회상영단 등 총 15개 분야에서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응원했다.

조계종복지재단, 해외구호자금 4억원 확보

외교부 지원 민관협력사업자 선정

"긴급구호기금 확보는 대외적으로 자비나눔실천을 통한 한국불교세계화를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해외구호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함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약정을 체결, 총 40만불(한화 약 4억원)의 해외긴급구호자금을 확보했다.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민간단체가 효과적인 긴급구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KOICA, KCOC가 사업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필리핀에 태풍 하이옌이 발생했을 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억원을 편성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공이 컸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20만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태풍 혹은 지진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주택재건, 의료지원, 생계수단 복구 등은 물론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 난민지원사업 등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업진행은 아직 미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은 "필리핀 태풍 하이엔 복구재건,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난민발생 등의 현재 진행 중인 재난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재단의 해외사업장이 있는 라오스와 몽골에서의 재난예방사업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 이사 원경 스님은 "기후변화, 전쟁 등 전세계에서 대규모 재난이 연속되면서 한국 불교도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국경을 넘는 자비나눔의 실천을 활성화시켜야 할 때"라면서 "금번 구호기금 확보로 한국불교의 해외긴급구호사업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구호단체들 사이에서 역량을 발휘한데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소 3년 이상의 해외재난 관련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새로 선정된 기관은 총 3곳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그 중 하나다.

이번에 사업약정을 체결한 단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글로벌케어, 기아대책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밀알복지재단, 어린이재단, 팀앤팀, 한국해비타트, 한국JTS 총 10개 단체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3월 3일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약정을 체결, 총 40만불(한화 약 4억원)의 해외긴급구호자금을 확보했다.

효녀가수 현숙, 송산복지관 홍보대사 위촉

효 실천 앞장…대중 신뢰 높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현숙(사진 왼쪽)이 법일 스님과 환하게 웃고 있다.

효녀가수 현숙이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 복지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3월 4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은 "효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등 홍보대사의 역할에 필요한 대중 신뢰가 높다"는 이유로 현숙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공연을 해온 현숙은 홍보대사 요청에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은 앞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노인복지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사회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1979년 가요계에 데뷔한 현숙은 한국어홍보대사, 보건복지부 치매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배현진 기자

동국대 스님 108명 장기기증서약

28일, 생명나눔 등록



동국대학교 석림회 스님 108명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섰다.

동국대학교 석림회 스님 10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앞장섰다.

2월 28일 화계사에서 열린 석림회 동계연수 입재식에서 스님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서약에 동참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5천명 달성 운동' 을 벌이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스님 1천명 모시기'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번 서약식이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서약식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 주변에 이를 꾸준히 홍보해 온 정각원장 법타 스님과 교법사 마가 스님의 적극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배현진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본부)
⇨ 지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겸재 정비오 (010-5524-7053)

인 재 양 성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미래예측학 박사
◇저서 : 규명 1.2.3권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 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동방대 문화교육원. 학습진로상담사 과정
매주 금 오후 2시~5시(봄학기 신입생 모집)
* 학력불문. 진학관심자. 철학원 운영자.
(접수처 : 문화교육원 02-3663-9860)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 업 일 : 매주 화 · 목요일
오전반 10시 부터 ~
오후반 6시 부터 ~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규명철학연구소 1층 H·P 010-5418-59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고판화, 불교 뛰어 넘어 예술로 승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강좌

이태호 교수(명지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기마다 이야기로 풀어가는 고문헌강좌 열 세 번째 시간은 '한국 고판화의 아름다움과 불교' 였다. 2월 26일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통해 불교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고판화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뛰어난 판각 기술과 깊이 있는 예술성을 느껴본다. 강의는 〈한국 옛 목판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중앙대 송일기 교수와 함께 발표 했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최적의 재료에서 나온 최고의 목판화

목판화는 한국문화사상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1300년 전 신라 때 조성한 세계 최고의 목판화 작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각기술과 예술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히 '목판화의 나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목판화 발달은, 우선 천혜의 자연이 가져다준 선물이라 할 수 있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재료로 쓰인 산벚나무와 돌배나무, 그리고 박달나무 · 단풍나무 · 후박나무 등은 단단하면서도 칼이 잘 들어 목판 인쇄문화의 발달을 가능케 하였다. 나무가 무르면 반복해서 여러 장 찍을 수 없고, 너무 단단하면 새기기가 힘들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산야에 흔한 산벚나무와 돌배나무 등은 그 두 가지 점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재료이다.

목판화가 발전한 또 다른 요인으로 종이의 생산도 한 몫 하였다. 우리나라 닥종이는 중국 상피지나 죽지에 비해 양질이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고려지(高麗紙)' 는 당대 중국에서도 최고의 명품으로 상찬해 마지않았다.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닥나무는 섬유질이 질기고 길어서 좋은 종이를 만들게 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닥나무는 같은 닥나무임에도 한국의 것보다 섬유질이 짧고 푸석푸석하다. 이 같은 종이와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풍토가 제공한 목판화 예술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목판화에 사용된 물감은 잘 아다시피 수성 먹(墨)이다. 먹의 농담을 강조하는 수묵화(水墨畵)와 달리, 목판화는 고른 농도의 짙은 먹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도 조절을 위해 탁주나 식물성 동백기름이 쓰이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단사류(丹砂類)를 첨가하기도 했고, 사향과 장뇌 같은 향료나 석류피 · 비목피 같은 방부방충제를 썼다고 전한다. 이는 동물성이나 광물성 기름 혹은 화학재료를 개발한 서양 판화와 비교도되지 않는다. 나무와 종이의 선택부터 수묵으로 찍는 과정까지 우리 고판화는 요즘 유행어로 '웰빙' 문화에 가까운 예술 영역이라 하겠다.

이러한 최적의 목판화 재료를 보유하고 있던 만큼,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판화기술이 발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목판화, 단색에 천착

우리나라의 목판화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다색판화나 동판화 기술을 배제하고 오로지 단색 목판화에 천착했다. 따라서 단색 선묘의 옛 목판화는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한국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찬란한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0년대 한국에서 활동한 독일인 신부 에카르트(Andreas Eckardt)는 자신의 저서 〈한국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1929)〉에서 중국이나 일본 미술과 다른 조선 문화의 고유한 유물로 고려 불경과 조선 후기 서적의 목판화를 들고 그 우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판화는 그림의 시각적 효용성을 빌어 문자 텍스트의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세 종교예술에서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교화에 활용되었다. 고려나 조선시대 고서 중 불교와 유교 서적에 삽화가 많이 쓰인 데서도 알 수 있다. 한 · 중 · 일 동아시아 지역의 초기 인쇄물은 거의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우리나라 목판인쇄의 역사는 대략 신라 8세기 전반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750년 경의 〈탑인다라니(塔印陀羅尼)〉 실물이 1995년에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3층석탑 모양을 목판에 새겨 종이에 사방연속 무늬로 찍은 일종의 다라니이다. 이 탑인자료는 인쇄문화사에서 초기 단계의 귀중한 목판화로 평가할 수 있다. 화엄사의 탑인이 경주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같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과 거의 동시기에 제작된 점으로 미루어, 신라 때 불경의 삽화로 그려지는 변상도 판화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려불교 판화… 사경변상화 기반 축적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대장도감의 주관 하에 대장경이 판각되었고, 이어서 대각국사 의천이 수집한 교장(敎藏)을 교장도감에서 간행하였다. 또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복원하여 재조대장경을 완성하였다. 이들은 실로 방대한 불경 판각사업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고려의 인쇄 및 판각 기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의례용이 아닌 독경용으로 간행했다는 점은 본격적인 인쇄문화시대로 진입하였음을 말해준다. 당시 불교를 후원한 왕실과 국가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붓으로 쓴 사경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봉헌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당시 사경은 공덕을 빌며 납탑 또는 복장을 목적으로 정성스럽게 제작되었다. 특수하게 만든 두툼한 감지(紺紙)나 상지(橡紙) 바탕에 귀한 금니(金泥)나 은니(銀泥)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게 조성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경의 앞머리에는 대부분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변상화가 그려졌다. 고려의 불교판화는 곧 이런 사경의 변상화를 기반으로 축적한 성과이다.

사경의 변상도를 방불케 하는 목판화로 13세기 중엽의 〈화엄경〉변상도를 들 수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화엄경〉 변상도 판화에는 중국 송 · 원대 도상이나 장식문양이 혼용되어 있으며, 중국 판화에 비해 선이 굵은 편이다.

이보다 앞서 지금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본격적



이태호 교수는 …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였으며 전남대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문화예술대학원장이다. 전남 문화재위원을 지냈고 현재 경기도와 충남 문화재위원이다. 저서로 〈옛 화가들은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옛 화가들은 우리의 땅을 어떻게 그렸나〉〈조선후기 산수화전〉〈조선후기회화전〉이 있다.

목판인쇄의 시작은
신라 8C 불경간행에서 비롯

이후 고려시대 거치며
동아시아 최고 기술 수준까지 올라
대장경 · 사경 · 변상도 등
다작(多作)통해 고려 미감 살려내

조선, 정조때 제작된 〈부모은중경〉
불경 영향 받아 뛰어난 회화성 자랑

인 변상도는 1007년에 개성의 총지사(摠持寺)에서 제작한 〈보협인다라니경〉이다. 이 변상도는 세로 5.4㎝, 가로 10㎝의 소형 판화이다. 작은 화면에 단순한 표현으로 여러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을 별다른 구획 없이 서사적으로 구성하였다. 10세기 후반에 간행된 중국의 오월판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이나, 그보다 고려본 판각이 한결 정성스럽다.

불경의 변상판화는 대부분 경전의 앞쪽에 한 장이 실려 있으나, 11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초조본 〈어제비장전〉이나 1363년에 복각된 〈금강경〉등은 본문 사이나 윗편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삽화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판화는 중국 송 · 원대 대장경을 모본으로 삼았으면서도 뚜렷이 고려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북송판을 바탕으로 제작한 고려의 〈어제비장전〉의 경우, 중국 판화에 새겨진 산수 표현이 험준하고 뾰족한 암산(巖山)으로 채워진 반면, 고려의 그것은 산 능선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다. 우리의 풍광을 닮은 듯한 인상은 고려 고유의 실경산수화로 착각하게 한다.

본격적인 삽화 형식의 고려시대 판화 불서로는 〈금강경〉과 〈부모은중경〉을 들 수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삽화본 〈금강경〉은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 남원부 관아에서 간행된 사례이다. 각 장은 상 · 하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경문의 내용을 요약한 판화가 배치되고, 하단에는 경문이 수록되어 있다. 판화는 〈영산회상설법도〉를 비롯하여 각 품의 핵심이 되는 대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들이다. 그리고 맨 끝에 〈호법선신장도〉를 넣어 한층 불경의 장엄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지방에서 판각되어 각법이 정교하지 않고 인쇄 상태도 깔끔하지 않으나, 판화가 가장 많은 고려 불경이라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부모은중경〉은 이후 조선시대 간행된 80여 종의 〈부모은중경〉의 준거가 된다. 〈부모은중경〉은 대표적 유교판화 서적인 〈행실도류〉와 더불어 한국판화사 연구에서 질과 양으로 쌍벽을 이룬다.

조선시대도 고려 못지않게 다수 불경 제작

조선시대에도 고려 못지않게 많은 불경들이 제작되었다. 초기에는 고려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이후 지방 곳곳의 사찰에서 제작되면서 다변화하게 된다. 16~17세기 덕주사에서 간행한 〈불설아미타경〉, 연기사에서 개판한 〈불설대목련경〉, 그리고 선운사 및 불암사에서 판각한 〈석씨원류〉 등이 그 예다. 이들은 장면마다 삽화를 끼워 넣은 조선적인 그림책 목판본이라 할 수 있다.

정조 때 왕실에서 제작하여 용주사에 하사한 〈부모은중경〉은 조선시대 불경 판화 중에서 가장 참신하고 뛰어난 회화성을 지녔다.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정조의 어명으로 특별히 간행되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궁중화원들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각 장면마다 기존의 서술적 표현이 사라지고 모필 선묘의 맛을 최대한 회화적으로 살린 판화 변상도로 꾸며져 있다. 그 필법은 전형적인 단원 김홍도의 양식이다. 당시의 목판이 용주사에 고스란히 전하며, 목판을 구리로 주조한 동판도 남아 있는데, 수준 높은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특히 생생한 판각 솜씨는 그 판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1434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에 실린 판화들은 조선사회의 유교적 '충효' 사상을 역설한 삽화 형식이다. 〈삼강행실도〉는 '진주 사람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사건' 을 계기로 백성들에게 삼강윤리를 교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편찬한 책이다. 백성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효자 · 충신 · 열녀의 사례를 110명씩 선발하여 각각의 전기와 함께 판화로 꾸미게 하였다. 3권 3책본으로 330매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밑그림 그리기와 목판 새김의 판화가 소용되는 작업이었다. 기초작업과 간행까지 대략 6년에 걸친 대규모 국가적 사업이었다.

수록된 판화들에는 2~7개의 이야기를 한 화면에서 전개한 설화적 구성이나 각법에 고려시대 불교판화 전통이 수용되어 있다. 특히 다원적 장면이 지그재그 구도로 조합된 장면들은 불화 전통과 유관하다. 초간본 판화의 밑그림은 당시 안견을 비롯하여 유명 화원들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화 1천년 기술은 인쇄문화의 꽃

우리나라 목판화는 불교의 수용과 함께 발달하였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제작된 불교 대장경은 중국의 송(宋) · 원(元)의 불경을 참작하였지만, 고려의 개성미가 물씬하다. 11세기 〈초조대장경〉부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이르기까지 중국 변상도를 그대로 옮겨 번각하지 않고, 고려 화가의 손으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새기는 과정에서 고려화한 것이다. 그 덕분에 고려 불화나 사경 변상도들과 함께 목판화는 고려 문화의 귀족적 세련미를 간직하고 있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불경 제작이 활발하였다. 정치적으로 억불정책을 내세웠으나 왕실은 물론 민간의 저변에 불교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그 증거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제작된 목판본불경과 목판화이다. 조선 초기 15세기에는 고려 형식이 전승되었으나 16세기 이후 심하게 퇴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시대 목판화의 고졸한 형태미와 질박한 선맛은 조선 민예의 감성과 상통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유교 판화의 형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고려시대 변상도의 판화 기법이었다.

천 년 이상을 꾸준히 이어온 목판화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 책을 가진 나라' 라는 명성에 손색없는 문화유산인 셈이다. 우리의 옛 고서가 문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구현하였기에 책의 목판화도 그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에 책의 삽도로 등장하는 목판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예술성을 성취해 냈다.

周易禪解 강의 모집안내

원조각성 큰스님 강의

우익지욱대사 (1599-1655) 周易禪解

佛敎的으로 주역을 해석한 周易禪解를 강의 한다.
지욱대사는 명 말의 불교를 마지막으로 활짝 꽃피운 최후의 거장이다. 周易禪解는 진시왕도 분서갱유 중에 주역을 태우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佛敎的 주역강의는 감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근대에 유불선의 통달한 대 강백이신 각성 큰스님께서만이 명쾌하게 풀이로 명강의가 될 것 입니다. 이 귀중한 인연을 함께해서 자기완성에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 강의일시 : **첫 강의 3월 19일**
■ 강의시간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수 강 료 : 6개월 300.000원
■ 기 간 : 2년
■ 모집인원 : 50명 ■ 교 재 : 별도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약간명
■ 접수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 18일까지
■ 입금계좌 : 농협 352-0293-1539-53 (예금주 : 최재동)
■ 접수문의 : **010-4242-7070 화영법경 스님**
■ 강의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13-50번지 좋은절

찾아오는길
KTX 광명역 오후 1시 동쪽편 봉고차운행
[승 용 차] 서울용인고속도로 서분당 고기동 내려서 절까지 2분거리
[좌 석 버 스] 조계사 건너편 5500-1번 미금역 (분당 미금역에서 택시 10분거리)
[지하철 이용] 미금역하차 7번출구쪽 마을버스 14번, 32번 →고기초등학교하차 도보 20분거리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두뇌 연기적 활동… 몸으로 진리 실현

〈불교평론〉 봄호 특집 '불교의 몸, 몸의 불교' 고찰

5명 중 1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성형, 몸짱 열풍, 웰빙 트렌트, 현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에서 우리의 몸, 그리고 작금의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할 지를 고찰 점검한 기획특집이 눈길을 끈다.

계간 〈불교평론〉 57집은 '불교의 몸, 몸의 불교' 에서는 경전에서의 몸에 대한 관점, 수행과정에서의 몸의 변화와 질병에 대처하는 불교의학 방법론, 성형문화에 대한 불교적 시각 등 5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다뤘다.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은 **'붓다의 몸도 몸이다'**라는 권두언을 통해 " '몸으로 진리를 실현한다' 는 사유에서 우리의 감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불교의 성찰은 깊고도 넓다. 욕망이 차오르는 것도 몸이요, 열반하는 것도 몸이니 몸이 전부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고 말했다.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운영위원은 **'몸의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에서 몸에서 인식작용의 핵심인 두뇌활동이 연기적 활동으로 진행된다고 고찰했다. 조 위원은 "몸은 의식의 바탕이 되는데 몸의 자성을 중시하는 존재론적인 면이나 몸의 대타성을 중시하는 인식론적인 면에서 모두 두뇌의 의식이 근거가 된다" 며 "쉼없는 의식의 흐름 속에 두뇌와 우리의 몸은 가소성으로 변화한다" 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러한 과정은 인식과 존재의 구분을 넘어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에 따라 몸이 갱신되며 새롭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런 구조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몸이란 무엇인가'** 논문에서 서양의 체험주의와 불교의 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며 최근의 불교연구에서도 몸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불교를 몸을 부정하고 마음만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으로 오해한다. 또 초기불교 교리체계를 새로운 유형의 형이상학적 기획으로 간주한다" 며 "부처님은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일체의 논의를 출발했고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방편을 펼쳤다. 분별력을 삶에서 끌어내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한다라고 했다" 고 말했다.

임 교수는 "초기불교는 삶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었다" 며 "초기불교의 몸, 그리고 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인지과학으로 무장한 체험주의가 새로운 희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불교평론〉 특집에서 학자들은 불교가 정신뿐만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종교이며 시대흐름에 맞춰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거룡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장도 **'수행에서의 몸'** 발표를 통해 몸은 해탈에 이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학원장은 "수행에 있어서는 몸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작용한다" 며 "몸의 긍정적 인식을 높게 살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는 **'몸, 질병 그리고 불교의학'** 논문에서 불교에서는 의학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했음을 들고 불교 전개에 따른 불교의학 발전상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인도의학을 완성한 박바따의 〈아스따〉, 티베트의학의 〈사부의전〉은 불교라는 사상적 매개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해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이 되며,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을 다루는 생명의 지식으로서 불교는 가치를 지닌다" 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어 "현대의학 또한 몸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만큼 불교계가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정희 여성단체 가배울 대표는 **'성형 요구하는 현대문화와 불교'** 논문에서 "하근기 대중들이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 또한 불교적 자세다. 하지만 성형에 앞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등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불교계가 성형문화와 성차별문화, 외모지상주의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6일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녹원(鹿元) 스님이 수조각승을 맡아 1659년 제작한 것이다. 삼불좌상은 경주 일원에서 출토되는 연질의 돌인 불석을 자재로 중앙 석가여래와 좌우에 약사불, 아미타불로 구성돼 있다.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불상은 조성연대와 작가가 밝혀져 있어 17세기 중 · 후반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작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 금강대 공동 학술세미나

'불성은 영성인가' 주제로 3월 28일 금강대 본관에서

인도철학회는 3월 28일 오후 1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강대 본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춘계 인도철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발표에서는 △마츠모토 시로 고마자와대학 교수의 '불성과 영성', △황용식 원광대 교수의 '불성 · 영성 논의의 다면적 함의와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후기 중관사상에서 본 불성과 영성' △류제동 성공회대 교수의 '여래장 사상의 영성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하유진 금강대 교수의 '불성과 영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고려불화' 를 주제로 2014년 1학기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를 개최한다.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는 3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강좌에서는 한국 불화의 대가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김창균 동국대 교수, 김현정 동국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고려불화의 특징과 화사, 발원자 및 제작 성격 등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고려불화 중 아미타불화, 관경변상도, 약사미륵변상도, 수월관음도 등이 매 강좌 주제로 진행된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2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2집을 펴냈다.

'불교와 상담' 과 '법화와 밀교' 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논집에서는 '불교와 상담' 에서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의 '불교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신승철 큰사랑노인병원장의 '불교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아유르베다 상담과 불교상담의 상관성 연구'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의 '불교사회복지의 영성적 접근에 관한 일고찰' △최현주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점찰선악업보경' 에 나타난 마음챙김과 상담의 상관성 고찰 등 5편이 실렸다. 또 '법화와 밀교' 에서는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법화사상과 밀교, 그 교류의 가능성' △정성준 동국대 강사의 '천태교학과 밀교의 관련성 고찰' △이성운 동국대 강사의 '법밀종 의례 정비에 대한 제언' 등 3편이 수록됐다.



투고 논문으로는 △오경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선후기 수취체제(收取體制)와 불교' △김경집 위덕대 교수의 '한국 현대불교의 개혁 운동' △오은주 동방대학원대 박사의 '유마경에 나타난 정토사상' △서용석 동방대학원대 박사의 '템플스테이가 마음치유에 미치는 영향' 등 4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관리 전문가, 불교계가 키워낸다

문화재청 · 불교계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 MOU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불교계와 손잡았다. 한국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의 관리 현장에서의 실습능력을 배양해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봉건)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전문연구과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3월 3일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 학술연구 또는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전문인재 육성 △기관 간 기술자문과 기초연구 지원 △학술연구 강화를 위한 상호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대학원 전문연구과정은 전통문화 관련 국내 · 외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생이 연구자나 현장 실무자로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문화재 현장에 참여하는 전문인재 육성제도이다. 대학원생의 현장 감각과 적응력 향상, 취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내 대학원 최초의 장기 실습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전국 사찰의 성보문화재를 조사, 발굴, 보존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불교중앙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분야 최고의 '맞춤형 전문인력' 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을 맺은 불교중앙박물관은 각 사찰에서 보관하기 힘든 성보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고, 전국 사찰에 소재한 성보박물관(33개소)을 대표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함께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 '전국 사지조사', '사지 발굴' 등 전국 사찰 2700여곳과 폐사지 5000여곳에 소재한 불교문화재를 조사 · 발굴 · 보존하는 국내 유일의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이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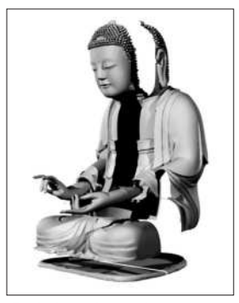
'재난' 대비해 문화재 첨단 기록화 추진

올해,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15점 조사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도난, 화재 등 문화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자 3D 정밀스캐너, 초음파장비, CT촬영기,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훼손 위험이 큰 불교계 성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록화사업은 인문학적 조사,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 보존과학적 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국보 제282호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국가지정문화재 15점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서는 해당문화재와 사찰의 크기와 특징 등 문헌 연구자료를 수집 · 분석해 정확한 현상을 파악한다. 또한 3D 스캔을 통해 문화재의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를 시행한다.

보존과학적 조사는 재질과 안료분, 손상조사, 비파괴 안전진단을 위해 초음파 · 방사선 · 내시경 · CT촬영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별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석사 불상 3D 결구도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은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범종 75점, 소조불 39점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2012년부터는 외부 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목조불, 철불 등 불상 22점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의궤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전시 활용을 위해 최초로 실물 그대로의 형태인 영인본(影印本, 복제한 책) 제작을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광주 봉축, 공모사업 통해 열린 행사로

국군병원 위문 · 518희망등달기 · 붓다 떡 전달 등 다채

공모 프로그램 공개, 열기 높아
가족 영화 나들이, 목욕봉사도
선정 단체에 홍보 지원 예정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의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부처님오신날공모사업을 통해 불교단체와 사찰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축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는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단체와 사찰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 봉축위(단장 시각)는 "기존 봉축행사가 등축제 행사에 머물고 있어, 이번 공모사업은 봉축기간동안(4월~5월)에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부처님의 탄생 의미와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의 내용도 다채롭다. 먼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014 붓다의 희망선물' 이란 주제로 동구지역 청소년가장세대에 '부처님 오신 날 선물 보내기' 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할 도서와 영양제, 붓다의 편지 등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국군 함평병원 환우를 위한 위문공연' 을 개최한다. 행사는 함평병원 대강당에서 환우장병과 장교를 비롯한 사병들을 위한 위문공연과 차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봉축주간에 5 · 18민중항쟁으로 희생된 영령을 위한 '5 · 18 희망의 등 밝히기' 를 개최한다.

행사는 5 · 18당시 격전지였던 전일빌딩에서 원각사 입구까지 시내 거리를 연꽃등 518개를 달아,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의 의미와 시대의 아픔을 겪은 영령들에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광주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붓다의 떡공양' 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생일 떡을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자비사상을 시민사회에 전하는 의미이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붓다와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라는 주제로 환우와 가족들의 영화나들이 행사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연꽃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2014 광주지역 봉축기간에는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는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동구지역의 차상위계층 어르신과 독거노인들에게 화순 철쭉축제와 목욕, 식사대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대불련 전대지부, 맑고 향기롭게, 광주 광산구청, 광주불교교육원, 동원사, 선덕사 등이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 봉축위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행사비 일부와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열악한 제정으로 단체별로 진행하지 못했던 홍보를 다양한 매체(포스터, 현수막, 신문광고 등)를 통해 전달시킬 예정이다.

광주봉축위 단장 시각 스님은 "각 단체들 홍보를 봉축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봉축행사를 계기로 지역 불심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일된 조국 만이 3 · 1정신 계승할 수 있다"

장수 죽림정사, 3·1절 기념법회 봉행… 500여명 참여

정토회 등 용성 스님 관련단체 모여
통일한국 위한 운동 펼칠 것 결의
5월 29일 학술 심포지엄 개최

"대한독립 만세, 남북통일 만세, 평화통일 만세"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삼일 운동 정신이 널리 퍼졌다.

3 · 1 독립운동 95주년을 맞아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 참여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3월 1일 용성교육관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현 스님(용탑선원장), 유수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이풍삼 광복회 前전북지부장, 김정길 6 · 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대표, 정인선 원불교 교무, 신봉수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상무이사, 신봉수 통일의병 대표와 정토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에 대한 향공양,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꽃공양, 3 · 1절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제창, 환영사, 기념축사, 기념법문,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죽림정사 주지)는 이날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 우리나라의 정세는 3 · 1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다"며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게 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조사는 3 · 1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며 "선열들이 독립국가를 염원하면서 일어섰던 그 뜻을 기려 통일한국을 만들 때만이 진정한 3 · 1 운동의 정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또 화엄경의 '보살에게 있어 정토란 이미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완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토' 라는 구절을 인용해 "통일 조국 역시 이미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토"라고 말했다.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린 3 · 1절 기념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한편, 용성 스님은 대각교 운동을 펼친 근현대 불교의 선지식으로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도심포교운동에서 힘썼다. 특히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죽림정사와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 정토회 등은 올해 '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 을 맞아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사의 현재적 계승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6월 5일 죽림정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대표사찰 무각사 중창불사 들어가



광주지역 대표적 도심 속 사찰인 무각사(주지 청학)가 대웅전 건립을 포함하는 중창불사에 들어갔다. 착공식에는 청현 스님, 송광사 광원암 현봉 스님, 총무 중현 스님을 비롯해 신도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각사는 광주지역 불자들의 신행공간이자 포교의 도량이다. 불사를 광주불교의 원력을 담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각사는 중창불사를 위해 낡은 대웅전을 헐고 약 2200m²규모의 현대식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건립한다. 템플스테이관은 500명이 함께 하는 대강당과 선방, 명상실, 사경실, 다도체험실 등 최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식 복합 건물로 신도는 물론 지역민들이 수행과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또한 2층에는 전통한옥양식으로 108평 규모의 대웅전과 극락전, 관음전 등의 전각 불사를 진행한다.

무각사는 중창불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0일 기도와 정진을 시작한다. 현재 무각사에는 로터스갤러리, 전통찻집을 비롯해 불교회관 등이 입주해 있어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는 3월 3~20일 신진작가 공모를 개최하고, 선정된 작가에 한해 개인전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무각사 홈페이지(www.mugaksa.com)에 공모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정심원' ,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불교계 유일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에도 기여



사회복지법인 송광(이사장 도영, 송광사 회주)이 운영하는 불교계 유일의 정신질환자 요양 사회복지시설인 송광 정심원이 지난 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송광 정심원은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재활에 앞장서고 정신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인권향상, 나눔의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정신요양시설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심원은 시설의 개방화와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실, 차량, 치료공원을 개방하고 나눔의 사회복지 실천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명에게 매년 김장철에 김장김치 나누기, 추석에 송편나누기, 설에 떡국나누기, 동지에는 팥죽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기존의 받기만 했던 사회복지에서 나누고 주변을 돌보는 사회복지를 실천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용호 원장은 "마음이 아픈 정신질환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실천하라는 격려로 알고 지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불교학당, 높은 인기 화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불교학당이 3월 4일 개강했다. 송광사 불교학당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장을 지낸 주지 법진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서 매주 화요일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밀교사상을 강연한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야간반도 운영된다.

4일 첫 강의에는 교수,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40여명이 수강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전주에서 온 수강생 장지숙 불자는 "불교학당에 오니 함께 어울리고 스님들에게 불교교리를 배워 너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법진 스님은 "불교를 알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불교학당을 개설했다"며 불자로서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자비심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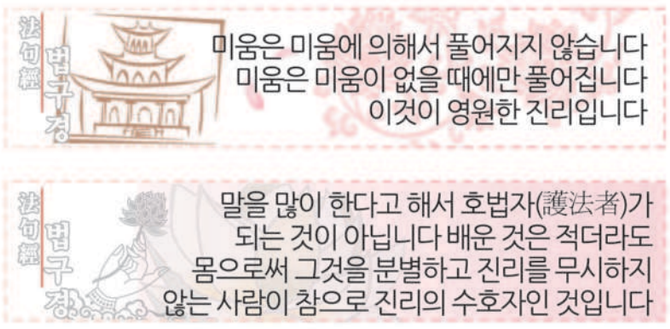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민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되십니까?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장 / 한국 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 총재

현오스님 이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교육생 수시모집 [최면.퇴마.자극요법.기공]

서울 은평구 | 부산 동래구 사직1동 18-14 | 인터넷상담 가능

010-5656-3915 | 010-9229-3801

빙의 · 신병 · 천도재전문 현오스님 을 찾으세요

덕주공주 망국의 아픔 달래며 마애불 조성

마애불이 있는 사찰 - ② 제천 덕주사



신라가 멸망하자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와 딸 덕주공주는 망국의 아픔을 달래며 각자 절을 하나씩 세웠다고 전해진다. 덕주공주는 월악산 남쪽 기슭에 마애불을 모시고 덕주사를 세웠다. 상덕주사에는 마애불 앞에 소나무 한그루, 왼쪽 극락보전 앞에 우공탑이 서 있다.

덕주공주 마애불 모시고 덕주사 세워
마애불은 그리운 오빠 모습 그려
마의태자가 세운 절과 마주보는 형국
주지 스님 "전국 제일 친절한 절" 발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월악산 남쪽 기슭에는 높이13m의 거대한 마애불이 모셔져 있다. 덕주사와 덕주사마애여래입상(보물 406호)이다.

덕주사의 전설, 덕주공주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자신의 나라였던 신라를 왕건에게 넘겨준다. 신라의 다음 임금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던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아버지 앞에서 울분을 토했지만 기울어버린 국운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태자는 누이 덕주공주와 함께 망국의 아픔을 품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난다. 마의태자 일행은 길을 가던 중 문경군 마성면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마의태자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은 태자에게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西天)에 이르는 큰 터가 있을 것이다. 그 곳에서 불사를 하고 석불을 세우며,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에 영봉을 골라 마애불을 이루면 억조창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마의 태자는 지금의 덕주사와 마주하는 월악산 자락(포함산)에 석불을 조성하고 절을 세우니 지금의 충주 미륵대원지이고, 누이 덕주공주는 미륵대원지와 마주하는 곳에 마애불을 조성하며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덕주사다. 오빠 마의태자가 조성한 석불의 모습은 누이 덕주공주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덕주공주가 조성한 마애불의 모습은 오빠 마의태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공주는 이후에도 불사에 전념하며 불제자의 길을 걸었으나 잃어버린 나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마의태자는 누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금강산을 향해 떠난다. 마지막 혈육인 오빠와 헤어져 혈혈단신이 된 공주는 출가하여 절에 몸담고 아버지인 경순왕의 애틋한 부정을 그리워하고, 오빠인 마의태자의 건승을 서원하며 일생을 살았다.

마애불, 새긴 것인가 찾아낸 것인가

덕주사는 상덕주사와 하덕주사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구분 없이 덕주사로 부르고 있지만 덕주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치상 산 아래쪽이 하덕주사이고 하덕주사에서 약 1.5km 올라가면 상덕주사다. 마애불은 상덕주사에 있다.

하덕주사에서 상덕주사까지는 걸어서만 갈 수 있다. 길은 잘 닦여있는 산길이지만 경사가 급한 곳도 더러 나온다. 상덕주사는 마애불과 극락보전, 요사채와 작은 텃밭, 그리고 마애불 앞에 소나무 한 그루가 전부다. 오후의 햇살이 소나무 그림자를 끌고 부처님의 얼굴 위를 지나간다. 소나무는 하루에 한 번 부처님 얼굴을 지나간다. 이런 시자가 어디 있을까.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다. 덕주공주의 이야기가 전설이라면 훗날 아득한 후손에게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덕주공주는 마애불 앞에 소나무가 되었다고. 덕주공주는 부처님의 영원한 시자가 되었다고.

마애불은 자연의 바위에 새긴 부처님을 말한다. 혹자는 "마애불은 새긴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다."고 말한다. 각지에 모셔진 마애불을 볼 때면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불심의 진한 흔적 마애불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 머무는 부처님이다. 사바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애불을 보고 있으면 정녕 새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마애불 왼편에는 극락보전이 있고 그 앞에는 우공탑이 서있다.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통일신라 말기 마의태자의 누이 덕주공주가 망국의 한을 품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모습을 마애불로 조성했다고 전해오나, 머리가 크고 비만하게 표현된 양식을 살펴볼 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덕주사에는 대웅전과 관음전, 부도전이 있다.



하덕주사의 대웅전

덕주사는

덕주사의 창건연대는 587년(진평왕 9년)으로 처음에 월형산 월악사(月岳寺)였다. 그 후 신라가 멸망한 후 경순왕의 장녀 덕주공주가 불교에 입문하고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마애불을 조성한 후 덕주사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덕주사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신동국여지승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덕주사는 월악산 밑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덕주부인이 절을 창건했으므로 덕주사로 이름을 지었다.' 는 기록에 따라 10세기 중엽을 덕주사의 창건 연대로 보고 있다. 그 뒤의 연혁은 전하는 바가 없어 잘 알 수 없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됐는데, 이후 1963년에 지암 권정철 스님이 지금의 덕주사를 중창했고, 이어서 1970년에는 박해찬 스님이 법당을 중수했다.

1985년 중창 당시 충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한수면 역리에 있던 고려시대 석조약사여래입상을 덕주사로 옮겨 봉안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 꼭 보고 가세요'

우공탑



마애불 옆 극락보전 바로 앞에는 '우공탑' 이라고 불리는 탑이 1기 있다. 작은 석등 같기도 하고 부도 같기도 한 이 탑에는 전설이 있다. 덕주사의 대중이 늘어나 불사가 불가피했다. 쉽지 않은 불사라 대중이 걱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 한 마리가 나타나 재목을 실어 날랐다. 소가 목재를 내려놓은 곳이 지금의 마애불 자리였다. 소는 목재를 모두 실어 나르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대중은 소가 죽은 자리에 우공탑을 세웠다고 한다.

주지 원경 스님 인터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절은 '친절' 입니다."

스님은 평소 덕주사 신도들에게 '친절' 을 강조한다. 외형적으로 크고 볼 것이 많은 절이 제일 좋은 절이 아니라 절을 찾은 사람이 친절을 느낄 수 있는 절이 좋은 절이라는 것이다. 처음 절을 찾은 사람이 어색해 하며 기웃거릴 때 친절하게 대해 절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하고 불교에 다가올 수 있게 하라는 당부이다. 주지 스님은 덕주사가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절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주변보기

〈주변 볼거리〉

-충주 미륵대원지/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덕주사와 함께 월악산(포함산) 기슭에 자리한 충주 미륵대원지는 마의태자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동생 덕주공주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덕주사와 서로 마주하는 의미로 세워졌다. 덕주사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25km이다.

-청풍호/충북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



면적 67.5㎢, 높이 97.5m, 길이 464m, 저수량 27억 5000t으로, 1985년 충주시 종민동 · 동량면 사이의 계곡을 막아서 만든 충주댐으로 인해 조성되었다. 육지 속의 바다로 불릴 만큼 소양호(29억 t) 다음으로 담수량이 큰 호수이다.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풍부한 수량과 넓은 수면, 심한 굴곡과 경사도로 인해 어종이 풍부해 사철 낚시꾼으로 붐빈다.

주변에 월악산국립공원 · 청풍문화재단지 · 단양팔경 · 고수동굴 · 구인사 · 수안보온천 · 노동동굴 · 충주호리조트 등 관광명소가 많다.

-월악산 국립공원/충북 충주시 · 제천시 · 단양군과 경상북도 문경시



월악산국립공원의 가장 남쪽에 있는 포암산(布岩山:962m) 부근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나온 지맥의 끝부분에 솟아 있으며, 만수봉(萬壽峰:983m)을 비롯해 많은 고봉들이 있다. 정상의 영봉은 암벽 높이만도 150m나 되며, 이 영봉을 중심으로 깎아지른 듯한 산줄기가 길게 뻗어 있다. 청송(靑松)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위능선을 타고 영봉에 오르면 충주호의 잔잔한 물결과 산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식당〉

-월악산장 / 043-651-5616 / 더덕정식, 능이버섯전골

-월악산장가든 / 043-652-7002 / 황태찜, 산채비빔밥

〈숙박〉

-수안보상록호텔 / 043-845-3500

-한솔펜션 / 043-653-3008

-황토방펜션 / 043-651-6478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넘쳐나는 기도 영험도량 현지사 부산분원!!



현지사 부산분원

부부가 불화하여 헤어질려고 한다거나 자식이 불효해서 가정이 시끄럽거나 아기도 갖지 못하고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등 가정사 잘 되지 않을 때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고 다라니를 21번씩 하든지 108번씩 하든지 하고 칭염염불하고 참회발원하면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라.

– 2011년 7월 광명 만덕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3중추돌사고에서 살아나다

저는 현지사 부산분원에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7년 아들 전규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10월 26일 강서구 서부산 삼거리에서 아들이 새벽 출근길에 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 차의 타이어가 날아가고 뒷문 유리는 다 깨졌고 이미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타박상 하나 없이 멀쩡했고 후유증을 걱정해서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상도 없고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기적이겠지요. 그리고 아들은 100일 기도에서 발원했던 좋은 인연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저의 기도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훈가피임을 확신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박문자)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3월 춘천본사 정기법회 : 3월 16일(일) 오전 9시

육도윤회와 지옥 극락의 실재, 영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아설에 대한 비판, 인간과 우주의 탄생에 대한 미증유의 법문 등 21세기를 열어가는 현지사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 만현 큰스님 동영상 법문(235회 째)을 현지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 됩니다.

관음재일 행사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30분

16부처님 재일 :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분원 100일기도 안내 : 관세음보살님, 산왕부처님, 치성광부처님, 화엄성중님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영산불교 현지사 부산분원 관음성전 전화 051)554-5150 팩스 051)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탑의 진화
⑥ 인도 산치의 불탑(2)

탑돌이 길 '요도' 만든 불탑의 새 모델

〈繞道〉

지난 호에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조성한 산치 제1탑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산치 제1탑의 탑문을 지나 탑신에 이르면 오른쪽으로 탑을 돌 수 있는 통로**〈사진1〉**가 있다. 이 통로를 요도(繞道)라 부른다. '휘돌아 가는 길' 이란 의미의 요도의 용도는 탑돌이를 하기 위함이다.

불교에서 탑을 도는 의식은 여러 신행활동 중 중요하게 강조 되었던 수행 방법의 하나였다. 이는 여러 경전에서 탑돌이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전에는 탑돌이를 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공덕 등에 대하여 설해져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왜 탑을 돌라고 하셨을까? 〈불설옥야여경〉에서는 경의 주인공인 옥야라는 부인이 **부처님으로부터 착한 아내와 악한 아내의 법을 듣고는 본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니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아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옥야 부인은 옥을 조각하고 비단에 수를 놓아 주보장을 만들고, 비단 깃발과 일산을 달고, 여러 가지 좋은 향을 사르고, 불탑을 돌며 염불을 하니 그 소리가 시방(8방+하늘과 땅)에 들렸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따라 기뻐하며 탑 앞에 예배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2권 864쪽 중단)라는 내용이 있으며,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에는 **'부처님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므로 탑에 머리 숙여 합장하고, 돌면서 시방에 예배하라'** .(〈대정신수대장경〉 1권 251쪽 하단) 라는 내용이 전한다.

이처럼 부처님 재세 당시에는 부처님이 앉아계시면 제자들이 부처님의 주변을 돌고 합장 예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은 바로 부처님으로 인식되어 탑을 도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나아가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불의 탑에도 탑돌이를 하였다는 경설이 전한다.

〈대방편불보은경〉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십대제자인 지혜제일 사리불이 열반에 들자 대중들은 그의 사리를 거두어 탑을 조성하고 공양하였다. 이때 수많은 대중들이 탑을 돌며 사리불을 생각하면서 그리움과 아쉬움을 잊었다.**(〈대정신수대장경〉 3권 149쪽 중단)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경설로 미루어 보아 고대 인도에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귀인의 탑을 도는 것이 일반화된 신앙의 한 형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탑돌이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전에는 어떻게 설해져 있을까?

〈현우경〉에는 전생에 황금을 너무 좋아하여 독사로 태어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승가에 금을 보시한 공덕으로 도솔천에 다시 태어난 뱀의 일화가 있다.(〈대정신수대장경〉 4권 369쪽 하단) 이 경설에서 주목할 내용은 대중들이 공양 때가 되면 한 줄로 서서 탑을 도는데, 출가자들이 앞에서 인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공양 전에 탑을 도는 의식이 있었고, 그 의식을 행할 때에는 출가자들이 앞장서서 대중들을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앙행위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탑돌이를 할 때에도 출가수행자들이 선두에서 대중들을 이끌며 탑돌이를 봉행하는 것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탑돌이의 공덕은 어떠한가?

〈구잡비유경〉에는 보다 구체적인 탑돌이 신앙사상의 근원이 되는 경설이 두 가지 전한다. 먼저 제 10편의 경설에서는 옛날 한 국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불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경하였다. 생소했던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끼리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이에 왕은 신하들에게 "끓는 솥에 황금이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집어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니 신하들은 "아무리 귀한 황금이라도 손으로는 끓는 솥 안에 있는 황금을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왕은 "찬물을 거기에 쏟을 수 있겠는가?" 물으니 신하들은 가능하다고 답한다. 이에 왕은 탑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사냥하는 일은 끓는 솥과 같고, 향을 사르고 등을 켜며 탑을 도는 것은 찬물을 가져다 끓는 물에 쏟는 것과 같다."(〈대정신수대장경〉 4권 512쪽 하단)라고 말하며, 탑돌이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구잡비유경〉 48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설이 전한다.

옛날 어떤 국왕이 도와 덕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탑을 돌았다. 백 번 돌기를 마치기 전에 변방의 어느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하였다. 신하는 매우 당황하여 적의 군사가 온다고 국왕에게 보고하면서 탑돌이를 그치고 돌아가 생각을 가다듬어 적을 물리치라고 간하였다. 이에 왕은 그 군사들이 여기 오는 것을 허락해 주라. 나는 이대로 불탑을 돌고 있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탑돌이를 하였다. 그러자 탑 돌기를 마치기 전에 적의 군사들은 스스로 흩어져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518쪽 중단)

이 두 경설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이 탑돌이를 하는 것은 끓는 물에 찬 물을 붓는 것처럼 고통을 평정하는 선행의 의미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 제6권 '정행품' 에 의하면, **불탑을 도는 중생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도를 얻으려고 해야 하며, 모두가 바른 길을 닦아 부처님의 광명을 끝까지 빛내며, 일체중생이 모두가 성불하기를 발원해야 한다.**(〈대정신수대장경〉 10권 432쪽 하단)' 라고 설하고 있다.

〈우요불탑공덕경〉은 탑돌이의 공덕을 보다 자세히 교설한 경전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리불이 불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공덕에 대하여 질문하자, 석가모니부처님은 게송의 형식으로 탑돌이의 공덕을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셨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탑돌이를 하면, **세세생생 팔난이 없어지고, 복과 수명이 길어지며, 거동과 용모가 단정해지며, 재물과 보배가 항상 가득하고, 다음 생에는 천상에 나게 되고, 항상 4념처와 4정근과 4여의와 4신족과 4진제가 있게 되며, 5근, 10력, 7각지분과 8정도와 6신통을 얻게 된다.**(〈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중단)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탑돌이의 공덕은 현세의 모든 복과 내세의 이상은 물론, 다음 생에까지 복덕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탑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산치의 불탑에는 아예 탑돌이 길을 만들어 후세의 모든 불탑 조성에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탑돌이에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는 일정한 규범이 있다. 즉 신체 오른쪽 어깨를 탑 쪽으로 향하게 하여 돌아야한다. 그 유래는 우요삼잡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우요삼잡이라는 것은 본존의 오른쪽을 지나면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는 신앙적인 불교 수행법의 하나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귀인에게 존경의 뜻을 표할 때, 오른쪽 옆구리는 귀인을 향하게 하고 그 주위를 세 번 돌았다고 하며, 또 군대가 개선해서 돌아올 때에는 성벽의 주위를 세 번 오른쪽으로부터 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우주와 태양계의 회전 운동에 동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도는 우선을 우주 자연의 정상적인 운동 원리로 여겼으며, 그 반대인 좌선은 우주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 배척하였다.

오늘날에도 불교 복식의례에서는 왼쪽 어깨는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여 스님들이 장삼으로 감싸 덮는 편단우견을 한다.

탑돌이를 봉행할 때에도 우요삼잡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여러 경전에서 우요삼탑을 불탑신앙의 중요한 의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2) 산치 제2탑〈사진2〉

산치대탑의 서쪽계단을 내려가 약 500m쯤에 위치한 제2불탑은 다른 산치의 불탑보다는 좀 더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기원전 2세기경에 조성된 것이다.

다양한 모양의 동물과 꽃, 사람의 형상이 어우러진 원형 돋을새김에서는 옛 인도인들의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커닝험의 발굴에 의해 이곳 불탑에서는 백색사암의 외부사리용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사리함에는 또 다른 사리용기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납작한 원형의 사리기가 4개 들어있었다. 그 사리용기 안에는 '헤마 바 타 (Hemavata)의 스 승 카 사 파 고 타 (Kasapacota)' 라는 명문을 필두로 열 분의 스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헤마바타는 한역경전에서는 설산부(雪山部)로 칭하는 것으로 이 탑은 설산부의 승가에 소속되어 예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산치 제3탑〈사진3〉

산치 제1탑에서 동북방향으로 약 45m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있는 제3탑은 규모가 제2탑과 비슷하다. 크기는 기단부 밑변이 약 10m이고 높이는 8m정도이다. 탑신 정상에는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평두와 함께 돌로 조성된 일산이 하나있다. 산치 제1탑에는 일산이 3개가 남아 있지만 제3탑에는 한 개만이 남아 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불탑에는 일산이 조성되어진 이유에 대하여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대반열반경〉에는 **"전륜성왕의 다비를 마치면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세우고 그곳에다 비단 번기와 일산을 세우라!'**(〈대정신수대장경〉 1권 199쪽 하단)고 하였으며,

〈장아함경〉에는 **"세상에는 마땅히 탑을 세워 향, 꽃, 일산을 비롯하여 기악으로 공양해야 하는 4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여래, 벽지불, 성문, 전륜성왕을 말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권 20쪽 중단)라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고대 인도에서는 일산이란 빛을 가리는 용도 이외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으로 사용되었으며, 고귀와 존경의 상징물 이었다.

이러한 일산이 중국의 불탑에서는 수레바퀴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알아보기로 한다.

산치 제3탑의 탑문은 남쪽에만 있으며, 대탑과 같이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도와 낮은 담장의 역할을 하는 난순(欄楯)은 잘 보존되어 있다. 평두 밑의 사리실에서 사리함 2개가 발견되었는데 사리용기의 명문에 의하면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사리임을 밝히고 있다.



글 · 우인보

〈사진3〉



산치제1탑에서 동북방향으로 약45m 떨어진 곳에 조성되어 있는 제3탑. 대탑과 같이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도와 낮은 담장의 역할을 하는 난순은 잘 보존되어 있다.

불탑 도는 '탑돌이' 부처님 예배하는 것
대탑·3탑 '탑돌이' 위한 '요도' 설계
오른쪽 회전은 태양계 회전 동조
3탑에서 사리불·목련 사리 발견

〈사진1〉



산치대탑의 요도

〈사진2〉

산치 제2탑. 대탑의 서쪽 계단을 내려가 약 500m쯤에 위치한 제2불탑.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각종 케이블 방송외 다수 출연

1회 무료수강 가능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환영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등표사다리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민족불교 내세우고 대중화까지 전천후 활동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⑤ 불교 운동가 만해와 범어사, 통도사





부산 범어사<사진 왼쪽>와 양산 통도사<사진 오른쪽>의 전경. 범어사는 조동종 맹약을 반대하는 임제종 운동의 산실이었으며, 통도사에서는 만해 스님이 〈불교대전〉을 집필하기 위해 대장경을 열람했다.



我佛世尊의 大道

二月十一日 全鮮 各道 各郡 各面 各洞 各里 各人 各個 各家 各戶 各口 各男 各女 各老 各少 各兒 各孩 各胎 各生 各物 各有 各無 各全 各缺 各完 各破 各壞 各新 各舊 各大 各小 各長 各短 各廣 各狹 各深 各淺 各高 各低 各平 各直 各曲 各圓 各方 各角 各邊 各面 各點 各線 各體 各積 各容 各量 各重 各輕 各硬 各軟 各脆 各韌 各堅 各固 各鬆 各緊 各密 各疎 各濃 各淡 各香 各臭 各味 各色 各光 各暗 各明 各晦 各晴 各雨 各雪 各風 各雲 各霧 各露 各霜 各冰 各氷 各水 各火 各土 各石 各山 各川 各海 各陸 各島 各洲 各國 各都 各邑 各里 各洞 各面 各郡 各道 各全 各鮮 各地 各球 各星 各宇 各宙 各界 各種 各類 各族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예요"

철야정진법문 ⑨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어. 또 그리 해야 돼. 그리 안 하면 큰일 나. 참말로 큰일 나. 그 시작이 없는 그 자리,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앞소식, 이 자리는 이건 절대의 자리거든. 이 절대의 자리, 이 절대의 자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허공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말이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여러분을 보고 내가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자리, 여러분의 절대성 자리. 그 자리를 갖다 허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것이거든요. 요새 어떠한 종교들은 절대성 상대성 책을 보고 그 자리를 갖다, 어쩐... 그 양반이 목사여. 목사가 온 일이 있었는데 내 한테 따지러 왔던 모양이라. 바로 이 자리가 하느님입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하느님이란 것도 없어요. 부처란 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다 부처다 하는 건 이건 제 이의 소식이에요. 첫째의 소식이 아니고 제 이의 소식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운데 여기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듣는 것, 이 얘기를 듣는 그 자리는 바로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들 무식합니까? 말이 말이 아니면 말이지 저런 것 써 붙이지 못합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은 제 이의 소식, 몸뚱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몸뚱이 밖에 걷어잡을 것이 없으니까 인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말이죠 이 누리의,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공뿐 아니에요. 허공의 주인공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다 하는 이 말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저러나 사실인데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사실인데야. 딱!(죽비 치는 소리) 몇 분 됐죠?

"삼십 분 됐습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조금 내 몸이 괜찮아졌는데, 그만 하죠. 나를 말리는 누리의 주인공 가만 있거라. 보자. 자운 선생 걱정을 하고 그만하라고 나를 말리는데 누리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성도화 보살 이거 믿으소. 우리가 성도화 보살... 여신 받았죠? 그러니까 남자 한테 지배를 받아. 지배를 받아도 누리의 주인공이여. 어쩔 도리가 없어. 나중에 또 그 몸 없애버릴 거여. 없애도 착착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할 줄 모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정리한다고 해서 그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없어질래야 없어질 것이 없어. 왜 그러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헛거 이거, 변하는 이거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비유하자 할 것 같으면 저 바다에 파도 한가집니다. 파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다. 파도가 저 은하수에서 파도가 돼서 나왔든가요? 우리 김 양, 파도 어디서 나왔노? 파도, 물결. 어서 말해봐.

>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
> **이걸 우리가 알면**
> **죽을 때도 자신이 생겨요**
>
> **육신은 관리물이지**
>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가? 탁 돌에 부딪혀. 그것도 인연 관계로 바람의 관계 인연 관계로 해서 부딪혀서 파도가 나제? 그러면 나중에 물로 돌아가지 않나? 이건 비유로 한 말이여. 물이라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여.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인생에 자신이 생깁니다. 죽을 때도 자신이 생겨. 죽을 때도. 아닌 게 아니라 자식들 있으면 내 갈란다. 장구 있나? 장구 없습니다. 김서방 집에 가서 장구 빌려 오너라. 장구 쳐라. 하고 술 한 잔 가져오너라. 술 한 잔 먹고 그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꼭 그러란 건 아닙니다만도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간다. 가긴 어딜 가. 이리 해서 참 기회를 가져오는 수가 있는데 두말 할 것 없이 여러분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의 지혜 자리, 눈을 가지고서 보는 그 자리, 귀를 가지고서 듣는 그 자리, 혀를 가지고서 맛보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란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있음으로서 모든 법을 갖다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차 얘기할 겁니다. 죽을라고 여러분이 소원을 세워 보세요. 몇천만 년 소원 세워보세요. 여러분 참말로 죽을 수 있다면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석가세존보다 낫습니다. 석가세존 죽지 못해요. 석가세존 죽지 못해요.

그러하니 "그만 하십시오."

그러하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아닙니까? 허공의 주인공. 왜 주인공이라고 하느냐. 허공은 지혜가 없거든요. 이건 내 말입니다. 참말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아니에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딱 하게 이놈이 굳히어지면은 그땐 문제 다릅니다. 문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살림이 파괴되고. 그럴수록 가정은 더 좋아. 가정은 더 좋은 겁니다. 하니까 어떻든지 오늘 요 시간에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몸은 내의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 제일 첫째 이거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허공의 주인공이다. 허공이라 했나, 뭣이라 했나? 뭐라고 써놨는고? "삼계."

삼계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나? 부처님 있지. 왜 없어? 그러면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어? 부처가 없는데 내가 있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의무가 있어. 나는 나로서의 그러나 허공의 주인공으로서는 삼계의 주인공으로서는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 하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나중 시간에 그거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해도 괜찮습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사람이라는 건 말이지 이 육신은 내의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눈이 보는 것 아니고 귀가 듣는 것 아니고 혓바닥이 맛보는 것 아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주와 나는 하나다"

4-8 귀경례

또 문(門)을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과연 어떤 수행문(修行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여래(如來)가 세운 수행문은 대단히 많아 과연 어떤 문에 의지하여야 여래가(如來家)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런 것도 실상은 해결할 수 없는 부질없는 의심이다. 문에 대한 의심은 다음의 적당한 방법으로 풀어 버려야 한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무아(無我)다. 먼저 이러한 명제(命題)에 의하여 나를 살펴 보기로 하자. 나를 거슬러 올라가 추궁해 보면 거기엔 무수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나의 두 부모, 두 부모의 각기 두 부모씩인 네 부모, 네 부모에서 여덟 부모, 여덟 부모에서 열여섯 부모, 서른 두 부모, 예순네 부모…… 하는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조상의 수량에 압도되어 버리는 나를 보리라. 그 막대한 조상들의 퇴적인 물구나무선 피라밋과 횡적인 얽설킴을 생각할 때 나란 존재는 그만 짓눌려 부셔져 버리고 말 것만 같다. 다시 미래의 자손의 분상에 의하여 붕괴되는 나의 모습에 눈을 돌려 보라. 이것은 보다 더 많은 기하급수적인 중대의 분산 과정으로 한량 없이 펴져 나가 이내 전 우주는 수십억만명의 나에 의하여 꽉 차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듯 나를 시각적으로 고찰한다면 동체의식(同體意識)이란 마치 물 속에 녹아버린 각설탕 같아서 아무 데서도 나를 볼 수가 없으면서 실상인즉 이 우주 안에 어느 곳에나 내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이렇듯이 금방 없어져 버리며 무수한 존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또 공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 봉명산 다솔사 행원방(行願房)에 있다. 행원방 어느 장판위에 이렇듯 내가 동그마니 앉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구와 떼어 놓을 수 있느냐? 또 이 지구를 우주 성운의 태양계의 태양이 공전하는 그 궤도의 테두리 안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느냐? 나의 존재를 얹고 있는 이 우주적인 위치란 것은 이렇듯이 거시적(巨視的)인 막대한 량으로 어느 하나를 떼어 놓을 수도, 옴짝할 수도 없이 꽉 달라붙어 우주의 광대무변한 넓이로 퍼져 나갔으므로 이를 생각한다면 바늘 끝만한 점 하나의 위치라도 나의 것이라고 할만한 자리는 없는 것이다. 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발 디딜 곳이란 이 우주 안에선 아무리 찾아보아야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는 종횡으로 얽히어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나 자체란 있는 듯이 없는 것이며 없는 듯이 있다는 자각을 갖는다면 '나'라는 개체(個體)는 결코 동떨어져 고립된 것이 아니고 사회 기구의 혜택을 받고 그리로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칭하여 일심관(一心觀)이라,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 또는 대승(大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은 문(門)의 의심을 푸는데 마련되어야 할 선행조건이다.

> **이 우주 안 어느 곳에도**
> **내가 없는 곳이 없다.**
> **시간적 · 공간적으로 얽혀**
> **분리할 수 없는 존재 자각이**
> **대승이며 수행문의 선행 조건**
>
> **문에는 진여문 · 생멸문이 있다**
> **止觀병행, 운용의 묘 터득해야**

문에 대한 의심을 푸는데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진여문(眞如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수지행(修止行)이고, 둘째는 생멸문(生滅門)으로 들어가는 관상(觀相)이다.

지(止)는 사마타, 머물러 주의하고 한군데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 '거기에 마음을 붙인다' 고 한다. 생멸문이란 현상을 이름이다. 나고 꺼지고 하는 현상을 본다는 것이다. 관(觀)은 위빠사나. 생멸문에서는 이 관을 일으켜야 한다.

지와 관은 병행해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는 정신통일을 하여 생각을 집중시키는 노력, 관은 그 집중된 생각의 대상을 현상 세계에서 실제로 관찰하는 행동이다. 단순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활용하여 대상으로서의 사물(事物)을 잘 처리하고 그 사물 안으로 들어가 행동화(行動化)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코 지관(止觀)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참선(參禪)하는 이는 공안(公案)이라고 하는 화두(話頭)를 내걸고 여기에 정신통일을 한다. 이것은 지다. 그런데 마냥 참선만 하여 지에 그쳐 버려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는 이가 수두룩하다. 참선의 목적은 정신통일을 하므로서 어떤 사물에 통찰력을 가지고 처리하여 가는 것인데 이러한 의의는 몰각해 버리고 지 한 가지에만 노상 머물러 있다. 이러다 한평생을 덧없이 보내 버리고 만다.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 불교 선객(禪客)들의 통례다. 이래서야 사람 사는 모양도 아닐뿐더러 더욱이 승려가 걸어갈 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참선에서하는 지의 목적은 통찰력을 얻는다는 것, 즉 관이다. 지는 어디까지나 과정이요, 프로세스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 목적은 관이다. 사물을 꿰뚫고 보아 잘 알고 잘 처리해 나가야 중생을 건지든지 자신이 부처를 이룩하던지 할 것이 아닌가.

관(觀)하는 사람은 첫째 법집(法執)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것, 나의 이데올로기에 붙들리어, 멀뚱한 눈으로 끌려다니는 해괴한 꼴은 시정해야 한다.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이라고 하니까 이 마음 심자(心字)를 옳게 해석을 못하여서 그것이 바로 소박하게도 마음이라는 줄 알고 '마음이 없으면 산도 강도 없다' 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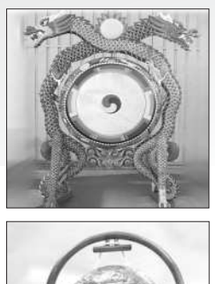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론적(認識論的)인 착오를 저지르는 이가 버젓이 우리 불교계에 활보하고 있다. 그 자신의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산이 없어진단 말인가? 이런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지 도무지 통찰력이라고 할 수 없다. 관이 없으면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 지와 관을 떼 놓지 않고 함께 수련해 나가는데서 우리는 운용의 묘(妙)를 터득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그리움이 엷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일까. 초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어느 해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객지의 울적한 마음이 더욱 오래되어' 라고 한 것이나 초의를 '일로암향사(一 :鱸香史)' 라고 부른 것에서 그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제주 유배시절임을 짐작케 한다. 제주 시절 어느 해 섣달 11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로암향사(一 :鱸香史) 한 해는 저물어 가고 또(날씨마저)추우니 화롯불에 토란을 굽는 풍미를 생각할 만합니다. 곧 (그대에)묻노니 이즈음에 계의 실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요. (그대를 향한)그리움이 엷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요행히 그대가 날마다 〈무량수경〉을 읽으며, 빌어주는 성의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며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만 객지의 울적한 마음이 더욱 오래되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일 년의 반은 (내)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그대가 있는)산중에 머물러 있는 듯하니 세월을 어찌하는가. 첩의 이 글씨를 올려 보내지만 형상이 거칠어 더욱 부끄럽습니다. 글씨엔 반야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후배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이보다 잘 쓰게 하는 것이 어떨지요.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납월 11일 륵구(泐具:형식만 갖추었습니다)(一 :鱸香史 歲暮且寒 ㄸW芧風味可想 卽問此際戒履吉羊 溯念不淺 俗人幸賴 師日誦無量壽經祝釐之力 得以安存喜荷喜荷 但客懷大淹尤苦 一曆伴似 領情留作山中 日月如何 來帖玆書呈而形穢甚愧 所書含出般若 使後生輩試爲之用工於此 如何 都留不式 臘月十一日 泐具)

이 편지의 말미에 납월 11일이라 하였으니 이는 섣달, 곧 엄동설한에 보낸 편지이다. '한 해는 저물어 가고' ' 또(날씨마저) 추운' 이 때 초의가 못내 궁금했던 추사였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외우(ㄸW芧)란 화롯불에 토란을 넣어 굽는다는 뜻이다. 실제 외우에 대한 옛 이야기는 당 나라 이필(李泌)과 관련이 깊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필이 형악(衡岳)에 있을 때, 명찬(明瓚)이란 승려가 있었다. 이필은 그 승려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밤에 그를 찾아가자, 명찬 승려가 구운 토란을 꺼내어 씹으며 하는 말이 '여러 말 마시오. 그대는 장차 10년 동안 재상 노릇을 할 것이요' 라고 했단다.



도판 추사 글씨 '죽로지실'

초의를 명찬 승려처럼
눈 밝은 수행자로 인식
추사가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의가 읽어주는 〈무량수경〉 덕분

따라서 외우의 풍미는 초의가 명찬 승려처럼 사람의 미래를 잘 점칠 수 있는 눈 밝은 수행자로 인식한 것은 아닐까. 추운 겨울, 뜨겁게 구운 토란의 풍미도 향기롭고 맛이 좋겠지만 추운 겨울과 뜨거운 토란, 이는 대비의 극점을 잘 드러낸 말로, 추사의 언어 구사의 묘미를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초의에게 향한 추사의 마음은 '(그대를 향한)그리움이 엷어지지 않는다' 는 대목에서 더욱 또렷이 빛난다. 특히 자신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의가 '날마다 무량수경을 읽으며, 빌어주는 성의에 힘입어'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의 우정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객지에 오랜 머물던 추사는 울적한 마음이 일어 더욱 '고통스럽다' 하였다. 따라서 이 편지는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 머문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낸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위로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시를 짓고, 글씨를 탁마했던 그였기에 제주 유배시절, 추사체를 완성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그의 서체 예술의 지선(至善)은 제주시절 완성된 셈이다. 한편 자신이 쓴 글씨에 '반야를 함께 드러냈다' 고 하였으니 반야는 곧 지혜이다. 법의 실다운 이치에 딱 맞는 최상의 지혜가 글씨에 드러났으니 '후배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나보다 더 지혜를 담은 글씨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지' 를 반문하였다. 대흥사 승려들 사이에 더러 추사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교유가 남긴 여훈(餘薰)이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법 알리는 종합 엔터테이너 되고파"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전 태생적으로 수리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재에 밝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로서는 제로점수죠. 이건 운영자로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닌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 협력업체와의 업무나 사찰 측과의 업무에서도 경영마인드 대신 수행마인드로 살아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요. 그래도 부처님법 믿으니 마음은 든든합니다."

1999년부터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를 무료배포하고 있는 김윤희 대표는 자신의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는 부산 지역 각종 사보는 물론 출판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잡지 발행에 쏟아부으며 문서포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맑은소리맑은나라〉의 시작

"처음 제가 시작한 잡지는 아주 어설펐습니다. 36쪽 분량으로 선사들의 이야기를 실었고, 그 길에서 만난 불교신자들의 신행이야기, 금쪽같은 경전, 향기로운 법문 등 여느 불교언론의 지면들이 다룰법한 내용들을 게재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불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소위 '종이 언론' 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지를 발행하는 것이 스스로 참신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언론사 기자로 일했던 김 대표는 1999년 불교월간지를 펴내는 발행인이 되고자 결심하고 맑은소리맑은나라를 창립한다. "옥탑방 같은 사무실에서 직원 두명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1인 다역을 하는 오너로 살기 시작했어요. 취재현장을 누비는 기자로, 편집 · 발행인으로, 출판사 사장으로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 쉼 없이 일을 했어요. 출판을 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며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한 해 두 해를 보태다 보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무료 월간지를 발행하기 위해 그녀는 사보출판사를 병행해 수입을 얻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사찰이 사보를 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보전문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찰에서 사보 전문기자를 쓰지 않는 이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예상은 적중했다. 〈맑은소리맑은나라〉가 불과 몇 호를 발행했을 즈음 그녀는 통도사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책의 내용이 좋으니 사보를 맡아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통도사처럼 대형 사찰의 사보를 만들게 된 것은 김 대표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산 불교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던 것도 큰 공덕이 되었죠. 지중한 인연으로 저는 지금껏 통도사의 월간 사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교전문 출판사로 단초를 세우게 된 원천이며 가장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량도 통도사입니다. 이렇게 물꼬를 트니 이후 다른 사찰에서도 사보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는 통도사의 〈보궁〉을 비롯해 무비 스님의 〈염화실〉, 봉화 축서사의 〈축서사보〉, 마하보디(자재병원) 능행 스님의 〈보디사트바〉, 법륜사의 〈학소대〉, 관음사의 사보 등 다양한 사찰사보와 신문, 법요집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서포교는 '나의 행복'

신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덕분에 불교문화에 익숙했던 김 대표가 불교언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간지에서 수습을 마치고 새내기 기자로 일하던 그녀에게 한 사찰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게 된 인연으로 부산불교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다.

"제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시 부산불교신문 발행인이셨던 정암 스님(해동 용궁사 주지)이 연락을 주셨죠. 그렇게 많이 망설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당시 꾸었던 꿈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꿈에서 개울의 커다란 돌다리를 건너는데 중간쯤 가니까, 어느 스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일간지를 뒤로하고 불교계에 첫발을 내디뎠죠. 그것은 지금도 제겐 청복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만나 이토록 넓은 대해를 맘껏 유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이후 그녀는 〈맑은소리맑은나라〉를 창립 월간지 발행과 사보 출판을 이어가니 부산불교신문 입사는 문서포교의 시작이 된 셈이다. 김 대표는 지난 시간 동안 단행본도 다수 발행했다. 기후 스님(호주 시드니 정법사 회주)의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 부산 원효센터 회주 공파 스님의 〈부처님의 유언〉과 〈바이로차나1, 2〉,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명정 스님의 〈차 이야기, 선 이야기〉 를 비롯한 경봉 스님 관련 책들도 발간하게 된다.

"〈꿈속의 인연들〉은 기후 스님께서 병석에서 일어나 쓰신 구도소설인데 그 내용의 전개가 너무도 감동적이고 전개방식 또한 여느 전문 작가들의 구상을 뛰어넘는 작품이라 생각돼요. 그 안에 승가의 공부와 승가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정말이지 모골이 송연해지는 책입니다. 책은 2만부 가량 팔렸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서울 영풍문고에서 스님의 팬사인회까지 가질 정도였죠." 김 대표는 판매 수입 중 1500만원은 기후 스님의 호주 시드니 정법사 불사 기금으로 회향하기도 했다고.

또한 공파 스님의 〈부처님의 유언〉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으로 불유교경의 마지막 구절들을 스님의 금쪽같은 대입과 해설로 풀어냈다.

사보 · 출판에서 얻은 수입금으로
무료 월간지 발행 문서포교 16년
기자 · 발행인으로 1인 다역하며
부산 불교계 출판언론 활동 매진

전시공간 갖춘 아트홀 건립해
불교문화 널리 알리는 것 '발원'

또한 〈바이로차나 1. 2권〉은 고려시대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스님 특유의 명해설로 역해한 내용이다. "저는 공파 스님을 항상 '나의 스승님' 이라고 불러요. 관념적인 불교인에서 바른 불교인, 신의의 불교인으로 이끌어주신 최고의 강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 3년 여에 걸쳐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때 익히고 수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살아가는 데 최상의 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문서포교를 하는 저에게 단단한 기운을 부여해 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불교문서를 만드는 것만으로 큰 복밭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스님들의 다양한 책들을 출판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전 굉장한 '복밭' 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현대의 선지식이신 경봉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저의 손으로 다시 엮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덕인지 몰라요. 동시대 언저리도 함께 하지 못한 까만 후손이 무슨 복력으로 그 선사들의 책을 출판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입니다. 더불어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선사의 법담을 일일이 교정하는 동안, 저는 그 수승하신 시대의 선사들과 도담을 나누는 듯 착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불교의 삶에서 찾은 행복

이렇게 불교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스님을 만난 김 대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스님은 누굴까? 그녀는 주저없이 축서사 무여 스님을 꼽았다.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의 향기가 몇날 며칠을 떠나



맑은소리맑은나라 김윤희 대표는 16년 동안 문서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11주년 기념식 때 직원들과 함께.



김윤희 대표는 … 1966년 충남에서 출생했다. 1995년 부산불교신문사와의 인연으로 불교계에 입문했으며 1999년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와 동명의 출판사를 설립하여 불교문서포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2010년, 맑은소리맑은나라 창간 11주년 기념, 〈폐사지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 단행본을 내놓았으며 두 차례의 개인사진전 '우주를 품은 시선' 과 ' 김윤희, 맑고 고운 사진전' 을 국제신문사와 영광도서 갤러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08년 조계종 여성개발원이 선정한 '108 여성불자' 로 선정되었다.

지 않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카메라 셔터가 안 눌러질 정도로 추운 한겨울 날씨에 축서사로 스님을 뵈러 갔어요. 스님을 대담하고 나왔는데 정말 스님의 향기가 몇 날, 며칠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허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충만함으로 가득차 있었죠. '저런 모습이 수행자의 참 모습이구나' 라며 스님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저 '거룩하다' 는 말이 툭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이후 무여 스님과의 인연은 새롭게 이어지게 된다. "취재하면서 스님을 몇 번 뵙기는 했지만 스님께서는 제가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러던 중 사중의 소임자를 불러 불교교양지 중에서 이 잡지가 가장 여법하니, '이곳에 연락해 사보를 의뢰함이 어떤가' 라고 하셨대요. 결국은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몇 해 전 취재를 왔던 기자가 이 책을 발행하는 저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축서사의 사보를 전담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무여 스님과의 지중한 인연도 예사 인연력이 아닌 셈이지요." 지금도 스님은 김 대표를 '우리 예쁜이 보살' 이라며 정답게 불러줄 만큼 각별하다.

"스님께서는 항상 재가자든 수행자든 자신을 오롯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평소 느끼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수행의 깊이도 나오고 살아갈 길도 나온다고 말씀해주세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죠."

이렇듯 불교와 삶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그녀에게 불교는 삶의 나침반이며 지혜를 일러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말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 이를 수지하니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최상의 법에 따라 제 삶을 조정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맞추어 살아가잖아요.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세간의 사람들이 욕망을 갈구하며 서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불교만 제대로 배워도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남 탓할 일이 없어요. 부부도, 동료도 다들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 그리고 인연 따라 이생에서의 관계를 지어 살아가는 것이니 서운한 일도 없어요. 다소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확연히 이해가 돼요."

김 대표는 불교의 인연법을 터득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김 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공부' , '내 살림' 잘 사는 일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최상의 불사라고 전한다.

그녀는 108배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져나가는 일도 잊지 않는다. "곧잘 집에서 새벽기도와 108배를 자주해요. 절은 나를 관조하며 내려놓는 최고의 수행이에요. 제 내면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관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히 정해놓고 신행모임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부산불교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후배기자였던 천미희 기자와 함께 한마음선원 청년회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둘은 좋은 도반으로 법담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안팎으로 나의 일에 철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불자로서의 삶이겠죠."

김 대표는 앞으로 언론출판 활동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업무를 이어가고자 한다. "사실 업무량에 비해 마진폭이 아주 떨어지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현재 직원이 저를 포함해 8명인데 빠듯하게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이 항상 우선이기에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단지, 조금만 더 이윤을 창출해 직원들을 위해 더 베풀며 참다운 불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트홀을 겸비한 불교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녀의 원이다. "불교출판에서부터 불교 전시기획 관련 일은 뒤지지 않을 만큼 잘해낼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아트홀을 겸비한 공간 확보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를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낼 수 있는 '공부' 하는 '종합불교엔터테이너' 가 되고 싶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그간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3년 봄 호주 시드니 정법사 창건 20주년 행사 때, 축서사 회주 무여 큰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윤희 씨.

전법일기

"군법사는 스님이지만 머리가 길어요"

간부를 양성하는 부대의 법사로 있으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법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일일이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인연이 생기면 아무래도 기억하게 되지요.

한번은 법당에 나온지 6주 정도 지난 청년 불자가 심각한 얼굴로 법회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사님, 법사님은 스님이십니까?"

무슨 날벼락 같은 질문일까요? 사실 그 청년 불자는 군대에 오기 전에 한번도 절에 가본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할 때가 되니 어머니께서 군에 가면 꼭 절에 가서 스님 말씀 잘 들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침 부대에 절이 있어서 매주 참석을 했는데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주일 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법당에 나가라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더불어 우리 법사님은 젊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생기시고, 헤어스타일도 저희처럼 짧은 스포츠형으로 하셔서 친근감도 들고, 때로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런데 청년 불자의 편지를 받아보신 어머니께서 걱정스런 어투로 답장을 보내셨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법당에 즐겨 나간다고 하니 엄마로서는 기쁘기 그지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걱정이 생기는 구나. 엄마는 20년 넘게 절에 다녀봤지만, 젊은 스님을 본적이 없고, 더군다나 머리를 기르고 스님이라고 부르지않고 법사라고 호칭한다고 하니 혹시 아들이 신흥종교에 간 것이 아닌지 걱정이구나'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졸지에 신흥종교의 법사가 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림 · 박구원

군법사님들은 다들 스님이시고 군이라는 특수한 곳에 있다보니 머리를 기리기도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즐겨보앗던 '날아라 슈퍼보드' 의 삼장법사도 스님이라고 예를 들어주었지요. 제 말에 그 친구 얼굴에는 순식간에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말에 그리 짧은 순간에 환희심이 가득한 얼굴로 변한 청년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군대에 있다보면 초심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저런 사연이 많습니다. 예전에 군법당에 열심히 나오던 젊은 장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젊은 장교가 전출가는 부대에는 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근처 민간 사찰에 가서 매주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고 나서 일요일 오후에 그 젊은 장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부대 업무 파악과 숙소를 정리하느라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날 처음으로 절을 찾았답니다.

마침 절에는 법회가 열려 있었고 10여 명의 보살님들이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랍니다. 그리고 법회 후에 따로 부르시더랍니다.

"젊은이는 처음보는데 무슨 일로 절엘 왔나? 부모님이 아프신가? 아니면 애인과 헤어졌나?"

군법당에 익숙해져서 일요일에 법회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자는 당혹스러웠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회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노보살님들이었는데 어찌해야 하나 싶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숙소에 와서 제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초심자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그들이 자대에 배치받아, 혹은 전역 후 법회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민간사찰에서는 도시 일부 사찰에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회가 있을 뿐 대부분 중년층이 주 대상인 법회에 청년불자가 일부 끼어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법사들은 전법의 길을 갑니다. 때론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소식을 듣더라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기에…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심각해지는 미얀마 종교 · 민족 갈등…왜?

영국 식민시절 소수민족 우대 정책 반목… '국경없는 의사회' 면허 정지
UN인권보고에서 "종족 및 종교분쟁 본격화 우려"


다민족 · 다종교 국가임에도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미얀마의 종교 · 민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다민족 · 다종교 국가임에도 그동안 평화를 유지해 온 미얀마의 종교 · 민족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3월 3일 '국경없는 의사회'의 라카인주 활동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서 의료활동 면허를 취소했다. 그 이유는 로힝야 족을 고용했기 때문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는 전체 인구 330만 명 중 108만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 족이다. 로힝야족 133만 명 중 대부분이 라카인 주에 산다.

사실 로힝야 족은 미얀마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로힝야 족이 미얀마가 영국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전략적으로 이주됐기 때문이다.

영국 식민 시절 미얀마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불교도들과 주요 민족인 버마족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소수민족을 기독교로 개종시켜 우대하는 등 분열정책을 펼쳤다. 그 갈등의 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뿌리깊은 반목은 2012년 불붙었다. 로힝야족 청년들이 불교도 소녀를 집단성폭행 하며 유혈충돌로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는 라카인주를 넘어 이슬람교도와 불교도의 충돌로 번져 최대 280명이 넘게 숨지고 약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인권보고관은 이러한 종교분쟁이 미얀마의 발전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퀸타나 UN인권보고관은 "민주화 개혁 와중에 사회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종족 및 종교 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식민시절 분열정책 잔재 남아

미얀마의 소수민족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은 130여 개에 이르러 동남아시아에서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다. 미얀마는 불교를 주로 하는 버마족이 약 70%에 이르며 카친, 카렌, 친, 샨, 꺼야, 몬 등 소수민족이 약 25%, 중국 및 인도계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1948년 미얀마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자치확대와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뤄지며, 군부에 의해 억눌려 있던 종교 · 민족간의 감정이 보다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도를 중심으로 이슬람교도 남성이 불교도 여성과 결혼할 때 불교로 개종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슬람교 규율에 따라 불교도 남성이 이슬람교 여성과 결혼할 때 이슬람교로 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미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얀마는 또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31년 만에 인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민족과 종교를 기록하도록 했다. 소수민족 단체들과 반군들은 인구조사로 소수민족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샨주 반군단체인 팔라웅해방전선은 최근 정부에 낸 탄원서에서 "정부가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수민족들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자들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미얀마 내 스님들이 1000여 명이 모여 이를 해결하려는 대규모 법회를 가지는 등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국내 불교계 NGO 관계자는 "불교국가인 만큼 부처님의 자비정신 하에 화합하는 모습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종교가 다르더라도 평화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印 불가촉천민 300명 불교개종

힌두교 사원 출입 금지 등 계급 차별에 저항


수계를 받고 있는 불가촉천민들

인도의 불가촉천민 300여 명이 단체로 불교 개종을 해 화제다.

뉴인디안익스프레스(The New Indian Express)에 따르면 '힌두교 사원 출입금지' '지역 공동 화장터' 사용 금지 등 차별 대우를 받아온 세샤사무티람 지역의 300여 불가촉천민은 최근 "계급 차별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제출한 28개 탄원서를 관리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당국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세샤사무티람에는 힌두교 주민들은 3천명인데 비해 불가촉천민은 79채의 세대가 작은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동안 이 지역 힌두교인들은 사원 출입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불가촉천민들은 10년 전에 돈을 모아 그들 스스로 마리암만 사원을 짓고 정기적으로 힌두교식 예배인 푸자(puja)를 거행하고 수소가 끄는 짐수레에 신상을 모시고 퍼레이드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목재로 차를 만들어 신상을 모셨지만 힌두교인들은 사원으로 가는 통로를 막는 등 불가촉천민의 종교 활동을 방해해왔다. 그해 9월 인도 법원은 불가촉천민들의 행렬이 힌두교인들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힌두교인들은 여전히 불가촉천민들의 행렬이 공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뉴인디안익스프레스는 "불가촉천민들은 마리암만 신상을 모시고 행렬하는 권리를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마침내 관리 당국의 무성의에 지친 300여 명의 불가촉천민은 불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당국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들은 계급적 차별을 종식할 의지가 없는 관계자들의 태도가 그들을 개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에서는 지옥의 공포를 단지 아이들이 꾸는 악몽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업을 지으면 혀가 뽑히고, 낙태를 하면 마귀가 산모의 내장을 뜯어먹는 등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팔한지옥(八熱八寒地獄)의 광경을 섬뜩하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지옥공원'을 통해서도 지옥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

태국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왕센석 지옥공원(Wang Saen Suk Hell Garden)은 지옥을 테마로 한 지역 내 최대 규모를 자랑 하는 곳이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지옥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136가지 조각으로 묘사해 공원 곳곳에 설치한 왕센석 지옥공원은 자녀들에게 도덕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인기 주말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나은 기자

中 대기오염에 중국 사찰 "천연향 쓰자"

라마사, 지난해부터 참배객에 천연향 무료로 제공

중국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불교와 도교 지도자들이 스모그 억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China.org에 따르면 신도들이 불교나 도교사원에 향을 피우며 복을 비는 것이 일반 적인 중국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스모그를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향을 피우는 전통이 점차 압력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불교와 도교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원에서 향을 공양할 때 문명인답게 행동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베이징의 유명한 라마사(寺)의 주지 후쉐헹 스님은 "환경보호는 인류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도 스모그를 억제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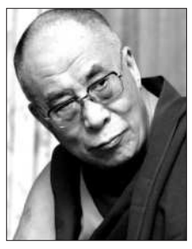
시안시(市)의 팔신궁 도교사원은 "앞으로 친환경 향 제품만을 사용할 것이며 종이나 폭죽 등을 태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환으로 라마사는 2013년 12월부터 소나무와 삼목나무 가루 및 자연재료들로 만들어진 친환경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배객들이 개인적으로 향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조치로 향 소모량은 절반으로, 재는 2/3가 줄어 사원의 공기가 현저히 좋아졌고 환경에 대한 신도들의 의식도 높아졌다고 한다.


중국 불교 · 도교사원에서 피우는 향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달라이 라마 "서로 만족하면 동성 결혼 OK"



달라이 라마〈사진〉가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3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은 달라이 라마는 래리 킹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동성 결혼은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며 "두 사람이 진심으로 현실적이고 만족을 느끼며 완전하게 동의하는 관계라면 (동성 결혼도) 괜찮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각자의 종교가 성에 대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비신자에게는 안전하고 합의된 것이라면 괜찮다. 단 협박과 학대는 잘못된 것으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동성 결혼은 유럽과 북 · 남미 등 서구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교 국가 중에서 아직 이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이나은 기자

함부르크 대학, 온라인 비구니수계 강좌 개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이 비구니 수계를 위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해 눈길을 끈다.

함부르크 대학은 3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비구니수계에 관련된 내용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주 동안 영어 강의와 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 주요내용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앤 헤르만, 잠빠 쎄드론, 까르마 렉쉐 쏘모 등 여러 여성 학자 수행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율장의 관점에서 본 비구니, 비구니로서의 삶, 그리고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여성 수행자들의 상황과 비구니 수계 복원 문제 등의 주제로 강연한다.

이나은 기자

자성주(自性珠)를 아니나요?

화장(火葬)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섞지않고 섭씨 2,300℃ 이상의 고온에서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을 생성하는 자성주(자성사리) 입니다.
아름답고 품위있는 자성주(자성사리)로 하여 종교시설 및 납골당 가정에 모실수 있습니다.

자성주 결정체의 특징

자성주로 모시면 잘못된 묘자리 또는 화장된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후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어 좋은 인연을 이루어줍니다.



NAVER 자 성 주 네이버 검색



납골당 분양 및 지사지국 모집

(주) 보은의 사랑
010-3679-1080,1899-104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수내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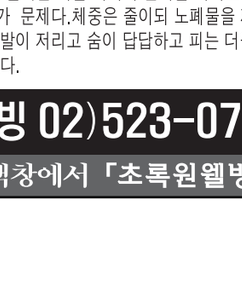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사여래도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삶에서 깨어난다는 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
날 믿고 산다는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삶에서 깨어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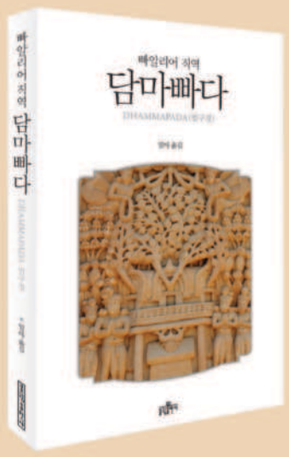
True Refuge

2013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타라 브랙 지음,
윤서인 옮김
480쪽, 20,000원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작은 판형으로 만나는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법구경)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
(법구경)

최신간

일아 스님 옮김,
224쪽, 12,000원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으로
빠알리 경전의 대중화에 초석을 놓은 일아 스님의
담마빠다 번역본이다.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 속에
삶을 대하는 선사들의
빛나는 통찰력이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내공에 대하여

어른의 공식

최신간

장엔 지음, 정이립 옮김
320쪽, 15,000원

『어른의 공식』은 인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사들의 이야기 77편을 담았다. '고정된 틀을 깨부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준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연등시공전문기업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 화 연 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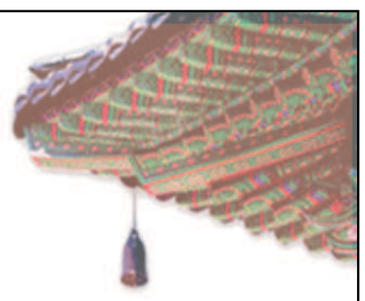
인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관세음보살님 감상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국립춘천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이 불교문화재도 관람하고 영화도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매월 1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 불교의 정수 부처님의 손(手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의 경지,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금동 불상의 다양한 손 모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강릉 한송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무외·여원인 수인 부처님과 고려시대 관음보살상 등을 선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무외인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는 수인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에서 주로 표현된 수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삼혜 학예연구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도 박물관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033)260-1521

정혜숙 기자


선정인 수인 관음보살


시무외여원인 수인 부처님

국립경주박물관 '토요 뮤지엄 투어'

3월부터 외국인 관람객 대상 해설프로그램 운영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3월부터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품 영어 해설 프로그램 '토요 뮤지엄 투어(Saturday Museum Tour)'를 운영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중요 전시품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토요 뮤지엄 투어'는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가 외국인 관람객과 함께 각 전시실을 순회하며, 전시품에 대한 영어 해설과 더불어 참여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들

경주박물관은 "2013년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라 및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문화재를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95%로 높게 파악됐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 전시품 중 성덕대왕신종, 금관, 불상 등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흥미를 갖게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토요 뮤지엄 투어'는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박물관 정문에 모인 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다양한 선율로 전하는 봉축의 환희심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교음악페스티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제 25회 정기연주회로 불교음악페스티벌을 마련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사바세계에 전한다. 공연은 4월 11일~12일 KBS홀에서 열린다.

새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가까워질수록 불교계는 봉축 준비에 서서히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오신날 기쁨의 팡파레를 울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교계 대표 오케스트라 니르바나가 그 주인공이다.

창단 15주년을 맞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제 25회 정기연주회로 불교음악페스티벌을 마련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사바세계에 전한다. 4월 11일~12일 KBS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음악감독에 김의명, 작곡 김대성, 판소리 안숙선, 기획에 강형진 등이 참여 축제의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니르바나가 제작 구상중인 뮤지컬 '싯다르타'의 대표음악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싯다르타'는 2015년 연말을 목표로 제작중에 있는 니르바나의 야심작으로 30억 예산에 10만 관객을 목표로 한다. 연출은 오페라 '원효' 등을 연출했던 김효경 씨가 맡는다.

강 단장은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작품을 영국에서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하지만 서구의 콘텐츠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봐요. 그럴수록 동양사상에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싯다르타'는 정말 가장 매력적인 소재죠. 서양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훌륭한 콘텐츠로 가공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불교를 알리는 동시에 동양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니르바나는 한국 공연에 이어 중국과 일본 공연을 동시에 진행 108회의 대규모 공연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용으로 제작된 '싯다르타'(작사 김정빈) 등의 음악이 연주돼 '싯다르타' 제작의 시작을 알려갈 예정이다.

4월 11일~12일 KBS홀서
기악·국악·힙합 공연은 물론
2015년 연말 목표로 제작중인
뮤지컬 '싯다르타' 음악도 선사

강 단장은 "현재는 시나리오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본연의 이야기에 충실한 대중성을 확보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펀딩을 통해 자금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우수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쏟을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힙합과 오케스트라의 만남도 큰 볼거리가 될 것이다. 힙합& 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는 20여 명의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이 출연해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으로 풀어 유쾌한 무대를 연출한다.

강 단장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음악페스티벌을 연출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합창, 기악, 국악은 물론 가요 팝 등 다양한 음악이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 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전국민의 대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라며 취지를 전한다.

프로그램 1부는 칸타타 담마파다에서는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공연되며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정행 스님, 시조여창 하윤주, 바리톤 김재일, 테너 김태환이 무대에 오른다.

2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정윤) △판소리와 오케스트라 '아기부처님 강생'(11일 박애리·12일 안숙선) △뮤지컬 '싯달타' 창작 뮤지컬 주제곡(김태환) △힙합& 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 △판소리와 오케스트라 – 염경관 '행복'(칸타타 담마파다 중), 13개 사찰연합합창 △상사뒤야 우리스승(작사 반영규, 작곡 이종만) △좋은인연(작사 덕신스님, 작곡 이종만) △가자(작사, 작곡 허철영) 등이 공연된다.

공연은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총 2회 공연된다. 티켓가격은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공연은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당일 KBS에서 전파를 탄다.

(02)2157-0778~0779, 인터파크 1588-1555, 티켓링크1588-789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봉은사 '판전' 이제 사보로 발행

사찰 소식 전달 강화, 불교문화·신행에도 비중

서울 강남 봉은사가 펴내는 월간지 '판전'이 사보 형태의 '봉은 판전'으로 전환됐다. 2007년 10월 문화잡지로 출발한지 6년 4개월 만이다.

위영란 봉은사 홍보실장은 3월 4일 "그동안 봉은사 신도들 사이에서 잡지 '판전'에 사찰과 신도들 소식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환 사유를 밝혔다.

〈봉은 판전〉은 편집방향을 바꾸기 위해 2월과 3월호가 합본으로 발행됐다. 〈봉은 판전〉은 그동안 전문작가들에게 외주를 주는 형태에서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 간다.

위영란 홍보실장은 "봉은사에는 사진기자로 일하다 은퇴한 신도를 비롯해 능력이 있는 이들이 많다"며 "전문적인 기자교육을 시켜 신도들이 만드는 사보로 꾸려 갈 것"이라고 전했다.

〈봉은 판전〉 창간 호에는 주지 원학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사찰 소식을 실은 '봉은 한마당' 신도들의 수행을 담은 '이달의 봉은 인물', 봉은가족 이야기, 봉은사 법회를 지상중계하는 '지상법문 불광보조' 등이 중점적으로 실렸다.

특히 선서화와 다도에 조예가 깊은 주지 원학 스님이 직접 쓴 '동다송' 해설은 초의 스님이 저술한 '동다송'의 17송 중 10송을 선별해 주문해석, 단어풀이 등을 통해 해석한다.

이번 〈봉은 판전〉에서는 봉은사 불자로 30년 동안 신행활동을 이어온 김희옥 동국대 총장 가정의 신행활동도 소개됐다. 위영란 홍보실장은 "이번호부터 봉은사 신도가정을 탐방해 일상 가정생활 속의 불자로서 사는 삶을 만나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생활수행 일기인 법상 스님의 '생생한 삶 속 지금 이 자리', 고은 선시 '문답' 김하원의 강남이야기,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김경현 선재한의원 원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혈자리' 등도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봉은 판전' 표지. 최정수 봉은사 신도회장 기도모습을 커버스토리로 담아 봉은사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급) 소 식

평화통일사

소승 일선은 1971년 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종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승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5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90 노령의 합병증이 심해 요양이 필요하여 급하게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사문 윤동암 씀.

가격은 오시고자 하시는 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 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문산기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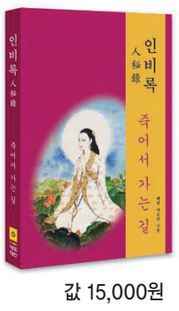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문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새로운 이야기 그려내요”

붓다아트페스티벌 참여한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붓다아트페스티벌 ‘만화기획전’에 참여했다.

“제 별명이 파주 스님이에요. 팬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죠. 머리를 밀고 다닌지 5~6년이 됐고 불교 관련 소재로 작품을 하다보니 그렇게 이미지화된 거 같아요. 일종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34)가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불교아트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의 대표작 〈신과 함께〉와 현재 네이버에 연재중인 〈제비원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호민 작가의 대표작인 〈신과 함께〉는 한국 문화가 만들어 낸 저승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10대에서 50대까지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신과 함께〉로 주호민 작가는 한국 만화 작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발돋움했다. 특히, ‘저승편’은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현대화해 불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무속 다큐를 보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불교의 저승관과 연결된 내용들이 많았지요. 지장보살 미륵 등이 나오는 것은 물론 저승이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등 10개의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죠. 형벌의 종류도 각각 다르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고리타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대적인 생활풍토를 접목한 저승 세계를 새롭게 그려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과 함께’에 나오는 저승은 ‘전설의 고향’에 나올법한 그런 정형화된 저승이 아니다.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춘 저승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제로 옷을 빨아 이승의 죄를 씻어내기도 하며 저승타임즈라는 신문이 발행되는 흥미롭고도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신과 함께〉서 불교 저승관 그려내 두터운 팬층 확보하며 큰 인기 모아

주 작가가 불교적 세계관에 익숙하게 된 데에는 불교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한 것도 한 몫을 한다. “제비뽑기를 통해 군종병으로 복무 하게 됐어요. 매주 법회에 참석하다보니 〈반야심경〉은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심할 때마다 사찰 관련 서적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죠. 그때의 경험이 현재 제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함께〉는 현재, 김태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내년 추석 개봉을 목표로 영화 제작중에 있다.

주 작가는 최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비원이야기〉를 네이버에 연재중에 있다. 경북 안동에서 전해내려오는 제비원 전설을 바탕으로 연이 처녀 이야기, 제비원 미륵불을 조각한 형제 이야기, 제비원과 법룡사의 절 짓기 시합, 제비가 된 목수 이야기 등의 민담을 웹툰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혀 다른 4개의 이야기를 두형제를 주인공으로 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불상 조각을 하는 두 형제를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 애증 등의 문제를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제비원 이야기〉는 4월 책으로 출간돼 독자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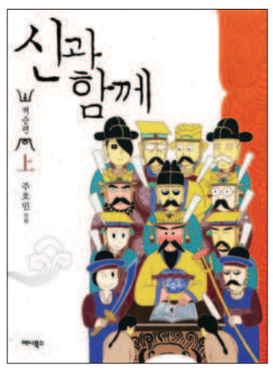
주호민 작가는 당분간 〈제비원 이야기〉 연재 외에는 작품활동을 쉴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작품에 매진하느라 쉼 없이 달려 왔어요. 물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주호민 작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그려가는 그가 앞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즐거움을 선사할지 재충전 이후 그의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박람회 개막식 당일 전시장 라운딩을 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주호민 작가의 부스를 둘러보고 〈신과 함께〉를 읽어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박람회서 주호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네이버에 연재중인 ‘제비원이야기’


〈신과 함께〉 표지 이미지

푸른 산 반쪽은 비, 반쪽은 저녁종소리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⑪ 김종직과 불국사




불국사 전경. 김종직의 시를 통해 그가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국을 향한 민중의 바람

경주 불국사(佛國寺)는 근래까지 만해도 학생들 수학여행의 1번지였고 신혼여행 효도관광의 필수코스로 기억되는 곳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된 요즘에도 불국사는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관광코스이고 외국여행객들에게도 매우 기억의 남는 여행지로 각인되고 있다. 고도 경주라는 지리적 특성과 주변의 풍부한 역사유적이 불국사를 수학여행 뿐 아니라 한국관광의 1번지로 손색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불국사가 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金大城)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절이 유난히 많았던 신라의 도읍 경주에서도 대표적인 사찰로 위용을 떨쳐 온 불국사는 숱한 병화(兵火)를 입으면서 오늘까지 그 맥을 지켜오고 있다. 불국사가 종교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더불어 명승으로서의 이름을 잃지 않은 것은 ‘불국’을 향한 민중의 바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경주부 조에서는 불국사를 “토함산(吐含山) 속에 있다. 석교(石橋)가 둘이 있는데 청운교(靑雲橋)、백운교(白雲橋)라 한다. 제작이 지극히 정교하다”고 소개하고 창건설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신라 사람 김대성(金大城)이 창건한 것이다. 일찍이 모량리(牟梁里)의 가난한 여자가 아들이 있어 이름이 대성(大城)이었는데 일찍 죽었다. 그가 죽던 날 밤에 나라의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공중에서 외치기를, “모량리의 대성이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난다” 하더니 문량의 처가 과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른손을 7일 동안이나 꼭 쥐고 있었는데, 금으로 새긴 대쪽이 그 손에 있어 ‘대성(大城)’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 있었으므로 그대로 이름 지었다. 장성하자 그 가난한 여자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 두고 어머니와 같이 봉양하였으며, 또 이 절을 창건하여 승려 표훈(表訓)을 청하여 거주하며 두 어머니의 장수(長壽)를 축원하였다 한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발문을 쓴 당시의 대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오언율시 한수를 ‘신증’으로 추가하여 소개하고 있다.

위방초제경(爲訪招提境)
송간자취중(松間紫翠重)
청산반변우(靑山半邊雨)
락일상방종(落日上方鍾)
어여거승연(語與居僧軟)
배수고의농(杯隨古意濃)
퇴연일탑상(頹然一榻上)
상대빈성송(相對頻聲 ?)

그대 위해 초제(절) 경계 찾아드나니
솔 사이에 붉고 푸른 빛 겹겹하여라.
푸른 산 반 쯤 하여 비가 뿌리고
해 지는 윗절에는 종소리 나네.
스님과 나누는 이야기 부드러운데
술잔은 옛 정 따라 무르녹나니
술에 취해 한 자리에 주저앉아서
서로 마주보니 귀밑털이 희끔희끔하네.
–김종직 ‘불국사여세번화’ 점필재집 제3권

이 ‘불국사여세번화(佛國寺與世藩話)’는 〈점필재집〉 말고도 〈동문선〉제6권과 〈해동역사〉제 48권 등에 수록되어 있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이 조선초 성리학 영남학파의 종조로 추앙되는 거유(巨儒)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가 워낙 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시는 오래 사귀어 온 스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초제’는 불교용어로 사방에서 모여든 승려들이 머무는 객사라는 의미와 관부(官府)에서 사액(賜額)한 절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개념을 합하면 이름 있는 큰 절로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많은 스님들이 모여드는 사찰이라는 의미 쯤 될 것이다.

아무튼 불국사로 찾아간 화자(話者)는 솔 숲 사이로 자줏빛과 푸른빛이 겹쳐지는 풍광을 만난다. 불국사로 들어가는 정면에 자하문이 있고 절 주변이 푸른 솔숲이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 구절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이 절창인데, 푸른 산의 반쯤에 비가 내린다는 표현이 묘하다. 게다가 푸른 산의 시각적 효과와 비라는 촉각적 효과에 이어 해가지는 시간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의 청각효과가 겹쳐지면서 화자는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정민 교수(한양대)는 〈한시 미학 산책〉에서 이 두 구절을 ‘푸른 산 반쪽에선 비가 내리고 / 해지는 상당에선 종이 울린다’로 번역하고 “시인은 청산의 반쪽에 비가 온다고 말하여 다른 한 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음을 보였다. 이편에는 비가 오는데 저편에서는 해가 진다. 떨어지는 해가 못내 아쉬운 듯 절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푸른 산과 붉은 해, 서늘한 비와 맑은 종소리. 경물과 마주하고 선 시인의 맑고 쇄락한 정신이 이러한 이미지들의 결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풀이했다.

그러한 풍경 속에서 화자는 오래 사귀어 온 승려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 대목에서는 이야기의 주제나 목소리가 모두 부드러워 정감이 더욱 깊어지고 거듭되는 술잔에 흥마저 깊어지는 화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의 정서는 아름다운 풍경 속의 고찰과 정 깊은 이야기 등으로 한층 고조되다가 결국에서 ‘서로 마주보니 귀밑털이 희끔희끔하네’라고 하였다. 인생의 관조적 경지 내지는 깊은 연륜의 선비가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느껴진다.

온 세상이 ‘웰빙’과 ‘힐링’을 외치는 시대다. 그래서 산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보듬는다. 조선의 하늘아래 선비들도 산사를 찾아 고단한 영혼을 ‘힐링’했음을 점필재의 시가 보여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6 ~ 3/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마을
5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6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7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8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9	담마빠다–빠알리어 직역 법구경	일아	불광출판사
10	삶은 환타지다–월호스님의 명쾌한 계송 이야기	월호	민족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사찰음식, 이제 아이들 밥상으로



아이좋아 가족밥상
홍승 스님·전효원 지음
겨리 펴냄
1만4천원


고구마옥수수밥. 고구마와 옥수수를 넣어 지은 밥을 양념장에 비벼 먹는다. 고구마와 옥수수를 같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은 물론 다이어트에 좋다.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몸속에 남아도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짜게 먹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음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대이다. 음식이 육체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일반화 된 것이다. 현대 음식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어른들을 위한 건강밥상과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소개한다. 그 음식은 사찰음식이다.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며 2005년 '사찰음식연구회'를 만들어 사찰음식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홍승 스님(현재 경주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겸임교수)과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한식을 강의하고, 푸드코디네이터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이지사찰음식문화원 전효원(사찰음식연구회 상임이사) 원장이 소개하는 108가지 사찰음식 레시피이다.

책은 음식이 아이들의 성격과 정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입맛 까다로운 아이도 잘 먹고 온 가족 건강을 챙기는 '사찰음식'을 소개한다.

사찰음식은 이미 '건강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음식이다. 현대인들이 앓는 많은 병이 지나친 육류 섭취, 패스트푸드, 인공조미료, 인공감미료, 인스턴트 등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늘고 폭력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가? 지나친 육류 섭취나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유래 첨가물 등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망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일수록 정서의 동요가 쉬우며 성격이 조급하고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먹을거리가 원인이 되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비만, 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 집 밥상은 어떨까. 대량생산, 대량유통, 장기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제철이 없는 식품, 유해 첨가물 범벅인 먹을거리를 밥상에 자주 올리고 있다면 사찰음식으로 건강밥상을 차려보라는 것이다.

음식은 육체만을 위한 것 아니다
음식이 아이들 성격 · 정서에 영향
아이들도 잘 먹을 만한 사찰음식
땅의 기운 받은 채소는 정적인 음식
가까이하면 내면 충실해 질수 있어

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채소를 주로 사용하는 사찰음식은 수행하는 스님들의 음식이다. 책은 "채소는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정적인 음식으로, 채소를 가까이 하면 밖으로 뻗치는 기운이 줄어들고 내면이 충실해진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인 동적인 음식은 사찰음식에서 쓰지 않는 육류, 어패류, 오신채,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등이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들이다. 책은 이런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밖으로 뻗치는 힘이 강해서 정서의 동요가 쉽고, 성격이 과격해지며,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사찰음식은 한창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예전에는 '성인병'으로 불리던 병들이 '식원병', '생활습관병'이라는 말로 바뀐 사실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앓는 병들이 잘못된 먹을거리에서 비롯되는 원인이 많아졌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찰음식을 권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8개 파트로 나누어 〈매일 맛있는 반찬〉, 〈야무진 한 그릇〉, 〈엄마표 간식&도시락〉, 〈인기만점 초대요리〉, 〈달콤 디저트& 건강차〉, 〈아토피 제로 해독밥상〉, 〈키 쑥쑥 성장밥상〉, 〈똑똑해지는 건뇌밥상〉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 요리 초보 엄마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다.

예를 들어 해독밥상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뿐 아니라 니코틴,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어른들에게도 좋은 요리이다. 아이들의 키를 쑥쑥 자라게 도와주는 성장밥상, 두뇌활동을 돕는 건뇌밥상까지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요리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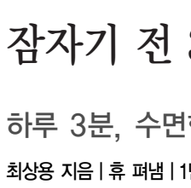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엄마들을 위해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굽거나 튀기는 요령, 조림장의 비율, 응용요리 등 도움이 되는 팁을 요리마다 따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책을 보면서 요리하기 쉽도록 180도로 펼쳐지는 제본 방법으로 책을 만들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와 과학의 공통점은 '진리 탐구'

붓다와 아인슈타인

사사키 시즈카 지음 | 이성동 옮김
대숲바람 펴냄 | 1만 7800원



목욕탕서 부력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 마을 주민이었다.

그의 최후는 좀 황당했다. 마을을 침공한 로마군 병사에게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반항의 이유 역시 흥미롭다. 아르키메데스는 도형을 땅에 그리고 그 해법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로마군 병사가 오더니 도형을 발로 지워버린 것이다.

또한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수학문제 풀이에 열중한 나머지 계란을 삶으려 하다가 잘못해 시계까지 삶아 버렸다. 프랑스 수학을 색인한 대학자 푸앵카레는 오랜시간 방안을 왔다갔다하면서도 자신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이런 예는 가우스, 아인슈타인, 힐베르트, 괴델 등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과학 이론 구축에 공헌한 사람들로서 사색에 깊이 침잠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즉 과학자들은 명상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과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찰해 집필했다.

불교와 과학의 연관성 모색

저자는 또한 과학에 조예가 깊은 불교학자답게 물리학, 진화론, 수학 분야에 걸쳐 논의된 첨단 주제들을 역사와 논쟁적 관점서 개별 기술하면서 석존 시대의 불교와 과학의 숨은 연관성을 모색한다. 여기서 저자가 초점을 맞춘 것은 '과학의 인간화'란 방향성이다.

저자인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일본 하나조노 대학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과학 분야 저명 연구자들을 초빙해 '선과 생명과학'이라는 교양 강좌를 주관했다. 그 때의 내용들을 보강해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신비주의 양산한 신과학운동 비판

저자는 신과학운동을 주도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들만 끄집어내 안이하게 불교와 과학을 연결시켜 괴상한 신비주의를 양산하며 과학과 불교를 모독한 방법을 비판하며 철저히 배제한다. 유식학과 뇌과학, 만다라와 양자 우주식으로 서로를 비교해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붓다와 과학자의 공통 작업은 '진리 탐구'

저자의 접근 방식은 흥미롭다. 우선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자각하면서 법칙성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가는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 그리고 신의 관점을 극복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내며 과학 발전을 이끈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 이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와 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통찰적인 시각으로 고찰한다. 그래서 과학과 불교의 연관성을 논할 때 고찰 대상이 되는 불교는 석존 시대의 불교로 한정시킨다.

인간이 짊어진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명상하는 부처님 모습과 아무도 모르는 우주 진리를 자신의 지적인 힘으로 발견하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긴 과학자의 모습은 '진리 탐구'라는 동일 작업을 외롭게 하고 있는 무소의 뿔들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풀어야 할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명상 상태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점은 부처님과 과학자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불교와 과학의 공통 법칙과 합리성

하지만 부처님에게서 그 기원을 갖는 불교와 합리주의를 무기로 우주의 법칙성을 체계화하는 데 매진한 과학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기도 하다. 과학이 인간의 괴로움을 제거해주지 못하듯, 불교 또한 물질 세계의 법칙성을 해명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치열한 탐구 정신과 개방된 마음가짐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불교. 또한 과학 이전의 체험적 사실을 과학적 관찰과 탐구로 진리가 아님을 밝혀내는 과학. 이 둘의 법칙성과 합리성이라는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와 과학의 차이는 불교와 개신교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잠자기 전 3분, '잠의 마법'에 빠진다

하루 3분, 수면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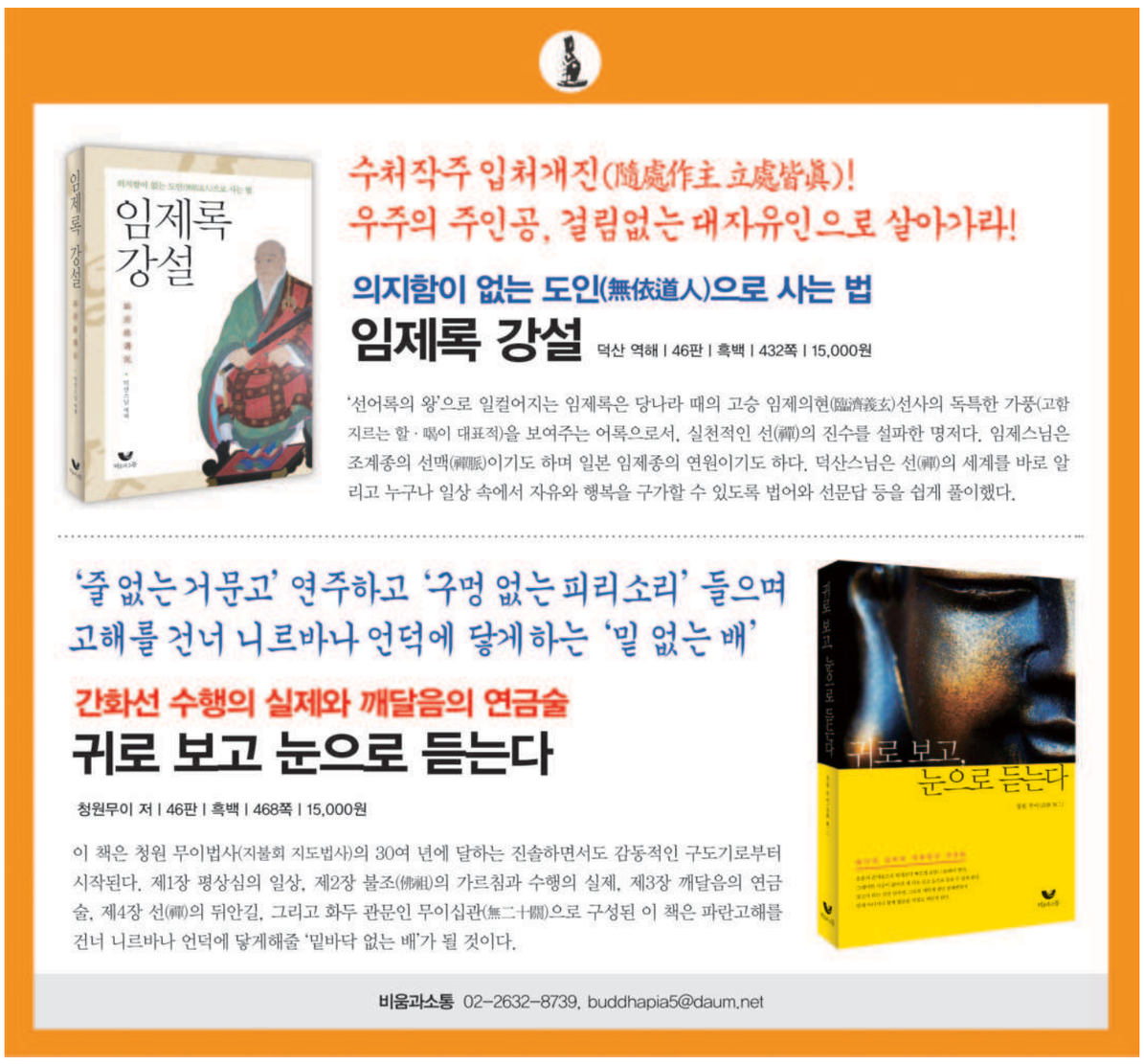
최상용 지음 | 휴 펴냄 | 1만3천원



건강의 단초이기도 한 이 '잠'에 관해 20여 년간 연구, 개발, 실천해온 수면명상전문가 최상용 박사가 그간의 치료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정리해 잠의 비전(秘傳)을 제시한다.

수면은 왜 일어나는지, 수면은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다. 숙면을 취한다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회복은 물론 자연 치유력이 증가한다. 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우울증, 짜증, 조급증, 분노감을 초래하며, 만성적일 경우에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두통이나 소화불량은 물론 긴장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누구나 거치는 하루 8시간 내외의 수면시간을 활용한 심신수양의 한 수단으로 '잠의 마법'을 탄생시켰다.

'잠의 마법'은 숙면은 물론 대뇌와 뇌간의 관계성을 이용해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수면명상법이다. 숙면을 위한 이완법, 온몸으로 대우주의 에너지를 호흡하는 종식법,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힐링하는 존사법을 동원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영성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어떠한 운동법보다도 간단한, 잠자는 시간을 활용한 마음 운용법이다. 단 3분이면 된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잠자리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심신의 이완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자기계발은 물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줄 없는 거문고' 연주하고 '구멍 없는 피리소리' 들으며
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하는 '밑 없는 배'
간화선 수행의 실제와 깨달음의 연금술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청원무이 저 | 46판 | 흑백 | 468쪽 | 15,000원
이 책은 청원 무이법사(지불회 지도법사)의 30여 년에 달하는 진솔하면서도 감동적인 구도기로부터 시작된다. 제1장 평상심의 일상, 제2장 불조(佛祖)의 가르침과 수행의 실제, 제3장 깨달음의 연금술, 제4장 선(禪)의 뒤안길, 그리고 화두 관문인 무이십관(無二十關)으로 구성된 이 책은 파란고해를 건너 니르바나 언덕에 닿게해줄 '밑바닥 없는 배'가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수행으로 탄생한 竹林法燈
세계유일의 신제품!! 특허출원중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자주 머무르시면서 설법하신 곳이며 기원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2대가람(二大伽藍)으로 불리웠습니다. 죽림정사에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법을 생각하고, 참선 및 기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등이 竹林法燈입니다.
慧梵 海龍 합장
윤장대 법등A 회전가능 □가로 400㎜ □넓이 400㎜ □높이 1,200㎜
윤장대 법등B 회전가능 □가로 400㎜ □넓이 400㎜ □높이 1,200㎜
죽림법등 □가로 300㎜ □넓이 300㎜ □높이 1,100㎜
팔각법등 □가로 450㎜ □넓이 450㎜ □높이 1,500㎜
제품 특징
❶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유일의 수공예 대나무 法燈(법등)입니다.
❷ 12가지색의 파노라마 LED전구가 내장되어 있어 법당 장엄용으로 최고입니다. (LED전구 내장으로 전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❸ 특히 윤장대 법등은 업장소멸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포교원에 적합한 法燈(법등)입니다.
❹ 법등이므로 불안심리, 가위 등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소멸에 많은 도움을 주며, 취침燈(등) 대용으로도 최상입니다.
❺ 천연(자연) 그대로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보존기간이 길며, 인테리어燈(등)으로써도 최상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수공예 작품이므로 크기는 주문 사양에 맞추어 드리며, 제작 기간은 1달 소요 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大韓佛敎曹溪宗 참선.약사기도 도량
舞鶴山 藥師禪院
敎法師 慧梵 海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7(회원2동)
TEL : 010-6561-3277 / 055-244-3277
FAX : (055)244-3277

깨달음의 열쇠 게송은 전법의 최고 방편



삶은 환타지다
월호 스님
민족사 펴냄
1만 3500원

삶이 과연 환타지 일까?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을 만끽할 수 있다면 분명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월호 스님은 말한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행불선 원장)이 1년 만에 신간을 펴냈다. 제목은 〈삶은 환타지다〉이다. 이 책은 월호 스님이 '삶은 환타지다' 라는 제목으로 불교 TV서 방영한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월호 스님은 경전교실, 시민강원 및 시민선방 등을 운영하는 한편 불교방송과 불교TV 등서 대중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풀어주고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힐링 멘토다. 이 책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게송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는 〈법구경〉을 중심으로 〈보배경〉 〈자애경〉 등을 월호 스님이 그 특유의 유쾌 통쾌 상쾌한 필치로 펼쳐 놓은 주제별 게송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성품에 관한 게송' 등 주제별로 편집해 무엇보다 게송 하나하나에 얽힌 일화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독자를 앞에 놓고 차분히 이야기 하듯 전달해 더욱 편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월호 스님은 "사리뿌뜨라는 곧바로 수다원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출가후 3주 만에 또다시 부처님의 게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단지 게송 한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이 외에도 게송 몇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라며 "오죽하면 〈금강경〉서 온 우주를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 또는 갠지스 강의 모래보다 많은 목숨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게송 한 구절 전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고 하였겠습니까? 게송이야말로 깨달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게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불교TV서 방영한 내용 보완 정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개 특징
자아 집착않으면 행복 누릴 수 있어

저자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에도 게송 한 마디 듣고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육조 혜능 대사도 금강경의 게송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 게송의 송(頌) 자가 노래 '송' 자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게송은 일종의 노래이다. 산문보다 노래를 외우기 쉽듯이 게송은 외우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쉬워서 초창기에는 주로 장로게, 장로니게 하는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게송으로 전했다. 숫따니빠따, 법구경 등 초창기 경전들이 다 게송으로 전해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송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응축시켜 놓은 것으로 깨달음의 열쇠요, 최고의 전법의 길임을 잘 알 수 있다.

"온 세상을 보배로 채워서 주는 것보다 게송 하나 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 있다"고 강조하는 월호 스님의 말처럼 이 책에서 읽은 짤막한 게송 하나라도 잘 배우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 제목처럼 '삶은 환타지다' 라는 것을 알면 작은 자아(小我)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유와 행복을 체득하게 된다.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애착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우울하다는 것이다. 작은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 보면 온갖 괴로움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월호 스님은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 속에 밀줄 긋기

▲근심 걱정서 벗어나는 게송
무조건적인 애착심,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으면 근심이 줄어들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애착을 버리는 게송
애욕이야말로 이 세상을 불타는 성처럼 만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품에 관한 게송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또는 부처님이 너를 지켜봐 주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불안한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통달한 안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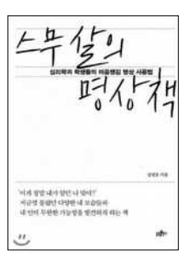
▲화를 다스리는 게송
명상 · 참선을 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참선이나 명상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부르는 게송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세잎클로버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게송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의 가능성 키우면 인생의 자신감 생겨

스무살의 명상책
김정호 지음 | 불광 펴냄 | 1만5천원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밀려가며 살면, 남는 건 후회뿐이다.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았다는 자책,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점점 깊어져 순간순간이 힘겹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그걸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실대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 이다.

20대의 삶은 팍팍하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지만, 그렇게 애를 쓴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고민스럽고, 때론 모든 것을 다 놓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누구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고민만 늘어놓다가 절망하기 일쑤고, 어른들께 물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며 공부나 하라는 잔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20대에게 탈출구란 없는 걸까?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정호 교수는 20대 학생 30여 명과 함께 8주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명상을 하며 그때그때 명상일지를 제출했고, 그 기록에는 8주 동안 먹고, 공부하고, 명상하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확 뒤바뀐 심리학과 학생들의 리얼한 체험기가 담겨 있었다. 이 체험기와 저자의 심리 및 명상 이론이 절묘하게 결합해 이 책이 탄생했다.

이 책에는 명상을 통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지금껏 몰랐던 자기의 다양한 모습과 자기 안의 잠재력을 발견한 사례들이 나온다. 또 남의 규칙에 끼워 맞추며 자기를 학대하는 대신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이야기도 있다. "긍정적인 척하며 나에게 값싼 동정을 보내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억지로 내 진실한 감정을 부정하고 상황에 나를 끼워 맞추며 나 자신을 학대해왔음을 자비 명상을 통해 깨달았다."

20대 학생들과 한 8주 명상체험기
잠재력 발견한 다양한 사례들 담아

자기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책이야말로 진정한 자기계발서라 할 수 있다. 백 마디 이론보다 한 편의 리얼 스토리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이론은 간단히, 체험은 자세히' 라는 집필 원칙 아래 이론은 핵심만 정리하고 대신 되도록 많은 사례를 담아냈다. 서른 개가 넘는 입을 통해 전해지는, 명상을 하는 이유와 그에 적절한 명상법들, 명상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명상이 가져다주는 변화들 속에서 독자 누구라도 자기에게 딱 맞는 것 하나쯤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를 힌트 삼아 삶 속에 명상을 조금씩 심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몰라보게 달라진 밝고 건강한 자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禪味를 음미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어록 강독

선문답의 일지미
신규탁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5천원



조주 종심(778~897) 선사에게 한 객승이 물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질문에 조주 선사는 답했다. "나는 청주 땅에서 베옷 한 벌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일곱 근이었다."라고.

초심자들은 이런 선 문답을 들으면 어려워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하지만 〈선문답의 일지미〉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화엄철학과 선불교, 중국철학사 등을 연세대서 강의하는 신규탁 교수〈사진〉의 명쾌한 해설이 들어있어서다.

신 교수는 이 책에서 "마음이란 일곱근 장삼입는 너와 나 모두에게 있으니, 이 문제는 장삼입은 수행자들 각자가 스스로 깨쳐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며 "그래서 조주 선사는 '그대가 물어올 것도 아니요, 내가 대답할 것도 아니다"라고 곧잘 말했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선법은 달마의 서래 이래 혜능 대사를 거쳐 5가7종으로 꽃피웠다. 불립문자를 주창하는 선종은 별도 이론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즉시적 문답으로 드러낼 뿐이다. 그러므로 선을 맛보려면 선문답이 담긴 선사들의 어록을 읽어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읽고 흥미롭게 선사의 길을 동행할 수 있게 한 친절한 안내서는 선을 음미하는데 필요한 텍스트다. 바로 이 책이 발간된 이유다.

그런데 책 제목이 흥미롭다. 이 책의 주 내용이 당나라 시대 선사들의 선문답을 담았기 때문에 '선문답' 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지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일지미(一指味)는 선문답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전체의 맛을 한 손가락에 찍어서 일부만 맛보여 줄 때에 쓰이는 말이다.

저자는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들어 있는 용어인데, 이 책의 내용이 그렇다는 필자의 자조 섞인 고백이라는 의미"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나눠져 있다. 우선 제1부 '선의 향기' 에서는 비교적 짧은 글들을 모아 놓았는데, 이 곳에서는 주로 선문답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을 위해 선문답의 일지미를 맛볼 수 있게 했다.

이어 제 2부 '선사들이 그리는 세계' 에서는 말 그대로 선사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글들을 모았다.

제 3부 '선어록을 읽는 묘미'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선어록들을 소개했다. 마지막 제 4부 '선어록 읽기 진검승부' 편에서는 선불교 사상의 철학적 내용을 비롯해 문헌 분석을 실었다.



특히 제 3부에 실린 '선어록을 읽기 위한 예비지식' 편은 선어록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알려줘 초심자들에게 유익한 팁이다.

저자는 이 장에서 선에 관한 개론서를 읽기 보다는 선서를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치에 막힐 경우는 이치를 아는 사람을 찾아서 지도받아야 하겠지만, 문장에 막힐 때는 학문의 성과를 빌려야 한다는게 저자의 지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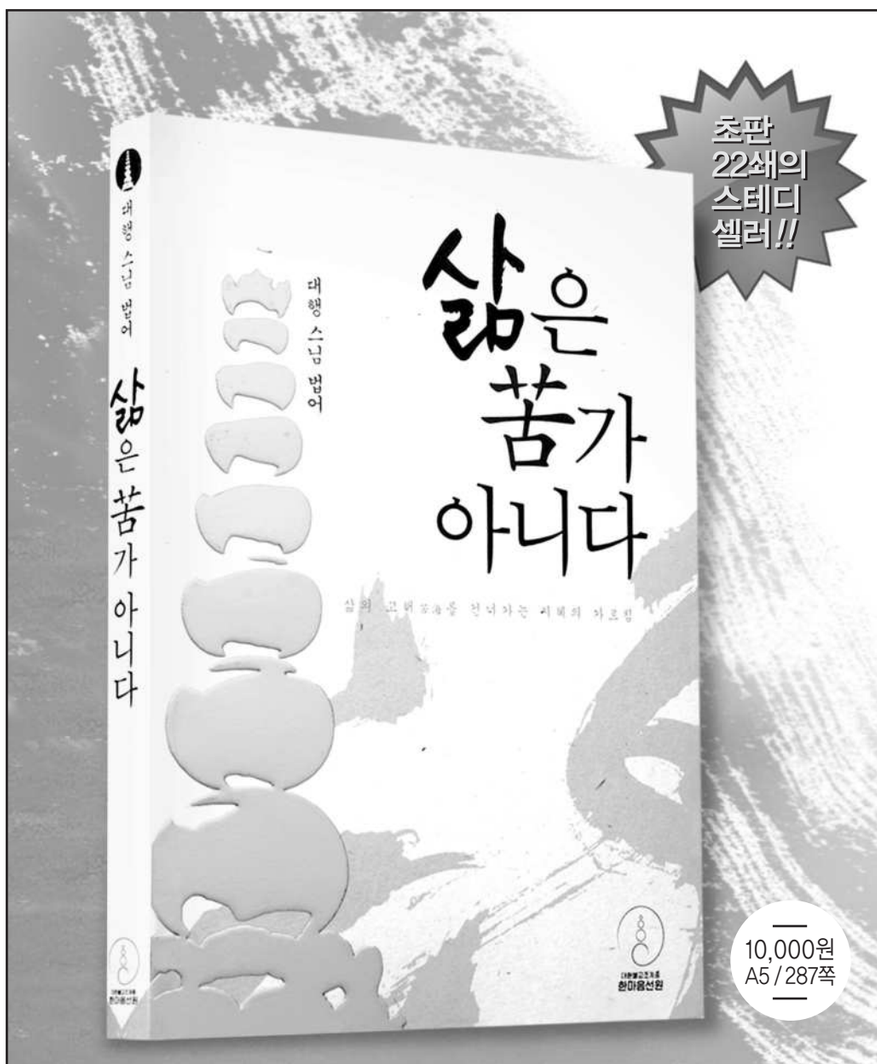
그래서 이치에도 밝고 문장에도 밝은이가 번역한 선서를 구해다 읽다가 미심쩍으면 원문을 대조해 보는 독서법을 권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또한 저자는 원문 확인을 위한 책들도 소개한다. 대장경으로 활자본 중에서 이용도가 높은 〈대정신수대장경〉 권 47~52, 권 85 등과 〈선림고경총서〉 부록으로 실린 사진판 등이 있으며, 우리말로 된 사전으로는 〈불교사전〉 〈불교학대사전〉 〈선학사전〉 등을 꼽는다.

선어록을 읽는 묘미 자세히 설명
개론서보다는 선서 직접 읽어라
원문 확인 위한 책들도 함께 소개

저자는 마지막으로 "선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는 부득불 세속의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나오게 된 이 책을 통해 선문답의 일지미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책은 그 값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저자 신규탁 교수는?
1994년 동경대 중국 철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화엄철학, 선불교, 중국철학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교평론 학술상과 연세대 공헌 교수 상을 받기도 했다. 저서로는 〈선학사전〉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화엄의 법성 철학〉 〈규봉 종밀과 법성교학〉 등의 저서와 〈벽암록〉 〈선문수경〉 〈화엄과 선〉 〈원각경〉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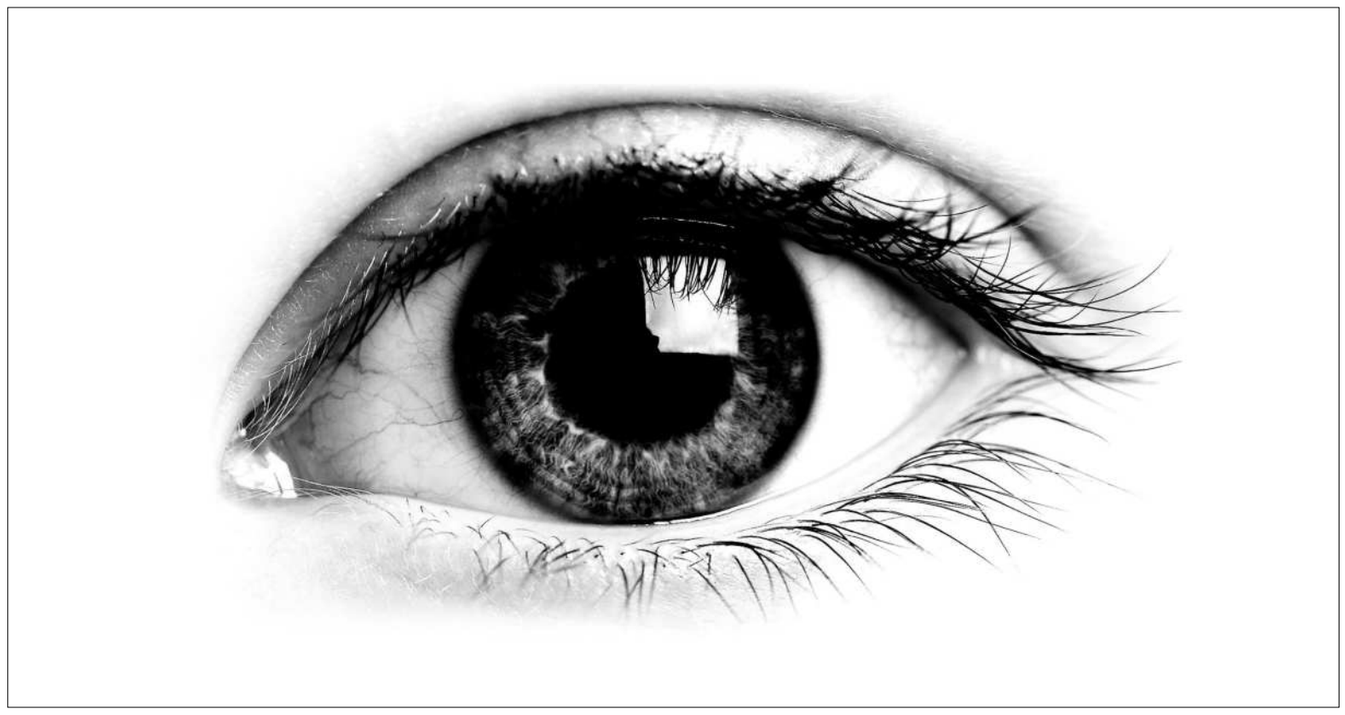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품절]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붓다의 물리학
3. 감성물질 (上)

눈구멍 살덩어리에 맺히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

(相)



태어날 조건이 있는 한 태어나게 되고 즐겁거나 괴로운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 일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봄, 들음, 그리고 다른 오식뿐만 아니라 재생연결의식을 만드는 것도 업(깜마)이다.

감성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하려면 감각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업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다. 감성물질(빠사다루빠)은 업의 육체적인 결과인 반면 봄, 들음 그리고 다른 오식은 마음(나마), 즉 업의 정신적인 결과인 과보 마음(위빠까찟따)이다.

봄이란 정신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물질인 형상과 눈의 감성인 시각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시각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시각은 보이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눈에 있는 하나의 물질(루빠)이므로 마음(찟따)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소리를 지각하는 들음이라는 정신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귀에 있는 물질(루빠)이다. 냄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후각이 필요하며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각이 필요하고 접촉대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촉각이 필요하다.

앗타살리니(2I, 2권, 3장, 306)에서는 눈을 '복합기관' 과 눈에 있는 시각 물질(짝쿠빠사다 루 빠)인 '감성기관' 으로 구분했다. '복합기관' 으로서의 눈은 다음과 같다.

"…눈구멍에 살덩어리가 있어서 아래로 눈구멍의 뼈에 붙어있고 위로 이마의 뼈에 붙어있다. 양옆에는 눈꼬리에, 안으로는 뇌, 바깥쪽으로는 눈썹에 붙어 있다.…."

사람들은 눈을 희다든지 크기나 넓이 등으로 알지만 실재인 감성의 눈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다만 그것의 육체적인 기초만 알고 있다. 눈구멍에 있는 살덩이는 근섬유에 의해서 뇌에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는 희고 검고 붉은 것이 있고 땅의 물성, 물의 물성, 열의 물성, 바람 성품의 물성이 있다.

"눈은 많은 점액으로 인해 하얗고, 담이 많아 검으며, 혈액이 많은 곳은 붉고, 땅 요소에 의해 견고하며, 물 성품으로 인해 유동성이 있고, 열 성품으로 인해 열기가 있으며, 바람 성품으로 인해 진동이 있다. 이런 것이 복합기관으로서의 눈이다.…."

'앗타살라리니' 에 의하면 시각 즉, '감성의 눈' 은 검은 동자 가운데 있고 흰 동자에 둘러싸여 있으며 '뿌려진 기름이 일곱 겹 무명 심지를 적시듯' 눈의 박막에 골고루 퍼져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왕자가 네 명의 보모들이 안고, 목욕 시키고, 옷 입히고, 부채질하면서 보호받듯이 사대의 기능 즉, 지탱하고, 결속하며, 성숙시키고, 움직이는 기능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온도, 마음, 영양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생명기능에 의해서 보호되며 색깔, 맛, 냄새 등이 동반되는 이의 머리보다 작은 그 기관은 안식의 문과 토대의 본능을 아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

> 감성물질은 업의 육체적인 결과
> 오식(五識)은 업의 정신적 결과
>
> '본다' 는 정신적 현상의 순간은
> 일어나고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
> 모든 시각은 일생을 통해
> 업에 의해 만들어져
>
> 그러나 인간은 '내 시각' 이라는 생각에
> 익숙해져 모든 시각 착각
>
> 시각이란 자아가 없는 물성일 뿐
> '본다' 는 정신적 현상의 조건 중 하나
>
> 눈은 대양(大洋)과도 같아
> 바다가 채워질 수 없듯이
> 눈 또한 만족시킬 수 없어

청정도론 14권 37에서는 시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눈의 특징은 모양, 색깔에 부딪혀 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기본 물성(사대)으로 된 감수성이다. 대상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기본 물성으로 된 감수성이 그 특징이다. 그 기능은 보이는 대상들 중에 한 대상을 안식이 선택하는 것이며, 안식에 잡힘으로써 표출된다.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보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기본 물성(사대)이다."

우리는 볼 때 욕망이 일어나기에 모든 지각인상들에 집착한다. 자연히 재탄생을 만들고, 봄과 들음과 다른 지각인상들을 만든다. 또한 감각대상을 지각하고 조건이 되는 감각기관을 만드는 업의 조건들이 충족된다. 이것 역시 미래의 삶에서도 지각인상들에 구속되어 버린다.

시각이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져 우리는 그것을 '자아'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봄' 이라는 정신적 현상의 순간이 긴 순간일 것 같고, 동일한 시각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은 일어나고 바로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 이어지는 봄의 순간에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이 모든 시각은 일생을 통하여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 시각' 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시각은 '이의 머리보다 작은 크기' 로 매우 작지만 눈을 통해 전 세계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보이는 모든 것은 눈을 통해서 지각되지만, 우리가 세계를 본다고 믿는 것은 실재가 1개념인 생각하는 것이지 보이는 대상을 실재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은 '봄' 과 다른 지각인상들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눈은 대양에 비유된다. 왜냐하면 바다는 채워질 수 없듯이, 눈 또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각에 집착되어 계속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상윳다 니까야" (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네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3장, 187, 바다의 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비구들이여, 눈은 사람에게 형상의 흐름이 계속되는 대양이다. 이런 계속되는 형상의 흐름을 견딘 자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악마가 득실대는 눈의 바다를 건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자는 그것을 건너 위대한 피안의 대지에 우뚝 서다."

다른 감각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되어 있다.

아나함 성인(아나가미)이 된 수바라는 비구니 테리에 관해서 '테리가타' (Psalms of the Sisters, Canto XIV, 71, Subha of Jivaka's Mango-grove)를 인용하면, 수바 비구니는 감각대상에 대한 갈망을 뿌리째 뽑았다. 젊은 남자가 수바 비구니의 아름다운 눈에 반하여 유혹하려고 했다. 수바 비구니는 그 남자에게 사물의 외양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재계에서는 자아는 없고 단지 물성들만이 있을 뿐이다. 테리는 자기 눈에 관해서 말하기를(vs. 395)

"이 눈이라는 것은 속이 빈 나무의 가지에 박혀있는 작은 공 모양으로 생긴 것이고, 눈물이 담겨 점액이 스며 나오는 거품 막에 지나지 않으며, 다양한 기관의 양상들이 눈의 형태를 구성한 혼합물이기에……."

수바 비구니는 한쪽 눈을 뽑아서 그 남자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설교는 그 남자의 욕망을 치유하지 못했다. 나중에 붓다의 앞에서 그녀의 눈은 다시 회복되었고, 수바 비구니는 계속 통찰지혜를 계발시켜 결국에 아라한이 되었다.

시각이란 자아가 없는 물성일 뿐이다. 봄이라는 정신적 현상의 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청정도론' (15장, 39)에서는 '봄' 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안식은 눈의 감각기관과 보이는 대상과 빛과 주의 기울임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청각은 또 다른 감성물질의 하나다. 그것은 황갈색의 부드러운 털로 귀의 내부 가락지 모양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청각감성물질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물성(루빠)다.

'청정도론' (14장, 38)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의 특징은 소리가 부딪혀 오는 것에 만반의 준비가 된 기본 물성(사대)으로 된 감수성이다. 대상을 듣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기본 물성으로 된 감수성이 그 특징이다. 그 기능은 소리들 중에 한 대상을 듣는 마음(이식)이 선택하는 것이며, 듣는 마음에 잡힘으로써 표출된다. 그것의 가까운 원인은 듣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한 업에서 생겨난 기본 물성(사대)이다."

듣는 마음인 이식이 없다면 들을 수 없다. '청정도론' (15장, 39)에서 말하기를, "귀와 소리와 공간과 주의기울임으로 인하여 이식이 일어난다." 공간이란 귓구멍을 말한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들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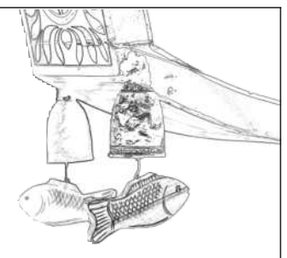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억울함을 당한 뒤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불사용 달마도 그려 드립니다
사이즈 : 18×19(지갑용)
37×36 / 71×38
▶통신 개인지도 3개월 완성◀
대구시 동구 팔공로 31길 6-4 천불사
팔공산 선인 010-8786-61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시골 자그마한 암자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다
관세음보살 화신이
실제 현실에 나투시다
관세음보살 화신
전시관 창건불사
인연 접수합니다
금재선원 010-2255-7389

용모단정하고 참신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6582-3137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명리학(사주철학)개인지도
1. 경력 30년 '병제철학원'
2. 명리학 + 성명학
3. 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전숙지
4. 주 1-2회, 3~4개월 완성 (주/야 평일, 휴일 선택)
010-3695-1626
서울 가락시장역 3번출구 3분거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삼보님, 영단, 탱화, 법당 집기일체 보시합니다
석불, 약사좌불, 다섯자 연화대 보시합니다
010-7124-3605

사찰포교원 양도 창설할 분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 상담
야간도 통화 환영
010-5381-14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명리비법 전수
통변이 잘안되는 분
오늘 일진 몇시 무엇때문에
왔는지를 설명(이긴론 비법) 등
명조 = 음신가지고 설명
음신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고장 가지고 설명 =
고장을 어떻게 사용할까
명리 어느정도 알면 통달 할 수있음
(맥을 모르니까 어렵지요)
010-2307-3915

특수한 기도법
●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특 보
지리산 청정 고로쇠 수액
18ℓ 55,000원
9ℓ 35,000원 (택배비 포함)
산마니 도사 황상필 010-3725-327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매주 토,일요일 치유명상
* 강력한 변화와 힐링(부부,자녀,조상,진로)
2 원네스 깨어남 코스
*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성공,번영,건강,성장
* 매주 화, 수요일 저녁 7시 무료명상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문자)

대 작 불 사 권 선 문
큰인연으로 약사여래불 조성불사에 설판이나 시주하여
주시는 분에게 큰스님 글씨와 그림 30여점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으로 몸과 마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량복덕을 받으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연락처 : 054)853-3855 만허 합장
※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산승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622-24-0064-982 (예금주 : 유명혜)
농 협 729-02-117074 (예금주 :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 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영덕사
- 법 명 : 영덕(김효진)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11-6

위 사찰과 상기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성 명 : 이도준
- 법 명 : 도준
- 주 소 : 경북 경산시 삼북동 222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인 개인(改印)공고

-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청계사 포교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7번지

상기 사찰의 포교원 주지 직인은
2014년 2월 28일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청계사 포교원 주지 설정 합장

반드시 발복 흥성하는
혈맥생기터
혈맥터는 천년지기이자 보궁이다!
물은 강길따라 흘러 바다를 살리고,
산은 맥따라 혈 맺어 사람을 구하는 도다!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태극상)
● 맥과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백점백혈)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전수
● 흥망성쇠좌우 터 길흉감정
● 명당혈맥터 확보 인연점지
▶ 절암자, 주택산장, 사업장, 묘지, 가족납골수목장 등
명당은 반드시 3-5년 안에
발복되어야 진혈이다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집안이 흥성합니다.
지장법사 휴담
010-4600-739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요,
악 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착함과 지혜라네."

- 법구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명상의 집(토굴)
- 위치 : 경남
- 총부지 : 970평
- 건물 : 4동
- 양도금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10분거리
- 대지 : 1,350평
- 건물 : 33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12개
- 버스주차장 완비, 산세수려함, 계곡물 철철
- 은행안고 4억 인수

※ 전국 사찰 30년 역사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사찰(급)안내

- 경기 사찰 양도
- 목조법당 90㎡, 산신각목조 10㎡
- 요사채100㎡, 토지5,200㎡
- 등산로입구 아늑한사찰
- 주차장 있으며 유원지 부근 임
- 양도가액 : 13억원

(원주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산세 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9058-535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4억3천(조정가)

011-645-1361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3분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토굴 수행처 도심속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2리
- 주택빌라, 조용, 깨끗, 참선도량
- 4층건물 4층,방3개,5층 옥상 깨끗
- 넓음, 전망 좋음 개발지역 사둘 분
- 월세가30만, 수입, 서울간 50분거리
- 보증금으로 내집마련 지인 해외이주
- '급' 양도가 (4천2백) 30일까지 입주

010-9787-55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울산근교 약 15키로)
- 부지 2,182제곱미터(약660평)
- 마을과 저수지 푸른산 대나무숲 지대가 높으며 아름다운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하며 마당이 크고 약 25년된 암자로 건물은 수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단청이 되어있음
- 건물은 보시하고 땅값만 받고 양도함 (주변시세 백만원)
- 가액 : 3억 5천만원(은행 1억 안고 2억 5천만원)

010-6536-3504

강남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40평
- 시설비 없음
- 완벽한 시설
- 즉시 기도 법회 가능

02)2226-5315

별장같은 토굴 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6898-911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도보 10분거리, 아파트 상가 밀집 20년 운영중
- 평수 4층 중 3층, 50평 옥상 사용가능
- 전세 6,500만원 즉시법회가능
- 법당외 방 3개
- 시설 : 후불탱화, 불상, 종, 인등
- 가액 : 답사후 절충

010-3221-047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신축사찰
- 대지 250평
- 신축법당(20평) 2011년 준공 신축요사채(34평) 2012년 준공
- 대전에서 1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486-1275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상사
- 법당 10평, 친견실 10평
- 공양간 16평(옥상사용)
- 주차용이, 아파트밀집지역
- 보증금 천오백 월세 90만 시설비 2,500만원 법당내닫집
- 집기모두 새물건임

010-7236-1808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 부지 : 527평
- 법당 : 33평(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 40평 (방 3, 거실 1, 실내 다용도실 2)
- 기타 : 10평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CCTV)
- 가액 : 2억 3천만원, 스님 건강상 최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010-2544-48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내 중심지역
- 상가 2층 55평
- 언제든지 법회 가능
- 보증금 :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별도 상담 요망
- 스님건강상 급 안내

010-9018-6656
033)533-99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웅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8505-0101

사 찰 안 내

- 위치 : 속초시 중앙시장 입구
- 4층 건물에 3층 약 90평
-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지장
- 시설A급 완벽함
- (1)전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무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2)보증금 1천만원에 월 25만원도 가능

010-3750-5424
02)826-6409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지목 : 전(관리지역) 1,000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쳐 완비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경기 이천 장호원 5분 15년절터
- 약 350평, 등기 300평 농가주택
- 뒤 언덕은 공짜땅, 해화나무 소나무 약 20주
- 현재- 세1,000만에 월35만 5월에 나감
- 볼곳 3곳 더 있음
- 가액 : 양도가 1억 / 전세 5천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원구 마원면 운암리
- 대지 200평, 임양 153평, 밭 685평, 요사채, 산신 54평
- 법당 : 22평
- 가액 : 2억 8천만원

010-8801-3837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청 평 한 옥

- 대지 : 199평
- 건평 :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서울 최고의 명당수행터

- 삼각산보현봉 전체산야가 펼쳐보이고 기를 받는 서울중심의 명상치유터
-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각산자락 큰스님 수행터(조계사 20분거리)
- 천혜의 힐링산책로 품고있는 위치
- 실건물은 약30평, 한옥식 단독주택임 이용하는 토지는 약 300평 이상임
- 가액 : 3억2천 직접 방문요

010-8800-32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상가3층 45평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즉시법회 가능
- 포교, 철학 모두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3102-5321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 80평
- 방, 주방, 거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주차완비

010-6505-0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낙동강 기슭 명산
- 하루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명지
- 캠프카공원옆, 60번시내버브 종점 150미터
- 사찰진입로 길2개, 대웅전1, 산시각1, 집무실1, 공양간1, 방6, 창고3,해우소1, 사무실1, 주차장 산 절부지 2500평
- 안에 밭500평,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구함
- 주지스님 꼭 하실분만 연락
- 가액: 2억

010-2670-4090

암 자 터 안 내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유명한 산 질부능선 365일
- 1급수 물이 흐르고 옹달샘
- 가옥 40평, 25평 2채
- 땅 평수 8500평 • 주인직접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전세 : 6천만원
- 집기일체 드림,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130-06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시설 완벽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743번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대지175평,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아늑하고 편안한 도량
- 가액 : 2억

054)776-5482
010-5439-1232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특징 : 절, 요양원 최고의 조건
- 부지면적 : 2,300㎡ (700)
- 건물면적 : 7,000㎡ (2,000)
- 가액 : 58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문화재 사찰
- 목조, 단청 대웅전,삼성각,종각
- 요사채 2 외 건물
- 기도하기 좋은 사찰
- 대지 1,000㎡ , 건물 290㎡
- 가액 : 15억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멋진토굴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근교
- 대지 237평, 한옥56평, 집뒤(대죽밭), 잔듸, 정원 조성양호
- 대구까지 30분
- 가액: 싯가 2억 5천인데 1억6천5백 (대출 5천 5백 있음)

010-7417-4560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서산
- 법당1, 요사채1, 산신각, 집무실1
- 주차장 100대주차 가능
- 가액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월세도 가능함
- 몸만오셔도 가능합니다

010-5404-921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부근
- 대지 200평 건평(기와집 30평, 별채 10평)
- 유실수 다수, 텃밭 깨끗하고 예쁜 토굴
- 비구스님이 계시던 곳
- 가액 : 9천 5백만원

011-231-258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부전역(기차역) 앞
- 시설완비(삼보전, 지장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상호절충)

010-6631-6426
010-8683-642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시설 완벽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7139-5566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입구
- 실평수 85평, 법당 약 30평, 큰방2, 종무실, 다용도실, 욕실(게르마늄 황토 찜질방) 주방(시설 1년 안됨)
- 보증금 1,000만원 130만원 시설비 3,300만원 협의절충
- 몸만오시면 됨, 부재시 문자 주세요

010-3606 - 2442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 외 방1, 주방1, 화장실1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300만원 월 77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가능)

011-309-353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28평
- 주차장시설 완비
- 보증금 3천보증금, 년1백만원 또는 1천5백만원, 월 40만원

010-4534-669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대지 : 21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80평
- 도시가스 취사난방 설치
- 가액 : 6억9억(은행융자 3억원)
- 절충가능

010-6237-596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5〉 아동기의 통합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내면의 아이'에 집중하라

나는 순진무구하다

당신의 내면에는 인도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아버지, 돌봄과 양육을 상징하는 어머니, 그리고 순수, 기쁨, 창의성을 상징하는 아이의 삼위일체 상태가 잠재돼 있다. 누적된 감정을 통합해 당신의 아동기 자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겠노라는 의도를 세우면 이 삼위일체의 상태가 일깨워진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아동기 때 필요로 했으나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관심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기의 자아와 연결을 맺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냄으로써 열리는 길, 곧 자기 양육과 내적 인도의 길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 길은 당신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서 부모님과 공유하고 있는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각인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는 관계를 자신의 아동기 자아에게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현존과 현 순간의 자각이 커지는 보상이 돌아온다.

무력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신뢰한다. 하지만 결국 무력하고 취약한 아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사랑에 못 미치는 경험을 내면에 각인시키고 만다. 그것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 역시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바로 그 정도의 무조건적인 관심 밖에는 아이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는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인 받은 불편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실에 늘 부딪히며 살게 된다. 성인이 된 그는 그 불편한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표출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고 화나고 슬퍼한다' 고 믿는다. 그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각인된 두려움, 분노, 슬픔이 외부로 표출된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외부에 투사한 것 – 다시 말해서 어릴 때 받았던 감정적 각인이 현재의 성인기 경험 속에 표출된 것 – 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잘못' 으로 인식하는 것에다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를 잘못 두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잘못들' 을 곧 자신이라고 여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순수성(innocence),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의 느낌(inner sense)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잘못이 곧 당신 자신인 것은 아니다. 당신은 순수한 상태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느낌인 현존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는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쓴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 에 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경우마저 생긴다. 이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희생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생각 – 그리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오직 무조건적인 관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당신 존재의 어느 측면이 상처받은 느낌인지, 그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성인이 된 당신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대개 이 불편한 느낌으로부터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한다.

현존 수업 4주차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을 조건 없이 느껴볼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얻게 될 깨달음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불편에는 특징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그 특징적인 감정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에 따라다니는 울림의 느낌으로서, 하나의 감정상태이다. 이 특징적 감정은 두려움, 분노, 슬픔이라는 삼총사 안에서 일어나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의 특징적인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컨대 만약 허리 통증이 잘 가시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허리 통증은 어떤 기분이 들게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허리 통증이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든가 낙담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어떤 대답이라도 그것은 두려움, 분노, 슬픔,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에서 생겨나는 감정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으로 인해 방아쇠가 당겨진 이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특징적인 감정을



정신적으로 묘사해보는 데까지 접근하게 된다.

자신의 특징적인 감정에 바로 접근하려면 느낌과 직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특징적 감정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정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불편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 상태의 직접적인 느낌, 혹은 질감이다. 현존 수업은 이러한 특징적 감정을 '감정의 누적물(emotional charge)' 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누적된 감정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를 안다. 3주차에 당신은 누적된 감정의 경험적 뿌리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다. 다시 설명하자면, 자기 삶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그것을 일련의 물리적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특징적 감정이 반복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신의 특정적 감정의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경로는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이 –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 감정적인 것이든 –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성인기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음을, 그 경험은 단지 당신 내면의 불편을 '비춰보여주고(반영해주고)' 있을 뿐임을 밝혀준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 중 하나 는, 통합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성인기 경험이 아니라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감정이라는 사실이다.

현존 수업의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성인기에 느끼는 신체 · 정신 · 감정적 불편한 경험… 자신과 동일시 여겨

그 불편함은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통해 각인 받은 불편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일 뿐

아동기 때 받지 못한 무조건적 관심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주어야

성인기 경험으로 표출되는 불편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원인이 아닌 결과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원인에 영향을 주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성인기에 경험하는 불편은 그것을 통해 아동기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는 데에만 그 의미가 있다. 이 점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통합을 위한 당신의 시도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순수와 기쁨과 창의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아동기 자아의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순수한 기쁨과 창의성을 수용할 능력을 없애고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지어내려는' 노력에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에 이른다. 그것은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 당신의 길 잃은 아동기 자아를 구제해 현재의 울림 속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현재의 울림 속에서 길 잃은 아동기 자아가 필요로 하는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동기 자아의 통합

현존 수업의 여정 중에도 당신에게는 도저히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편과 혼란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두려움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하는 때이다.

이런 불편한 순간에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울림 속에 불편한 느낌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성인 자아에게 다짐하려고 애쓴다. 이 불편은 스스로 소화할 수 없는 경험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아직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보내오는 구조요청이다.

이 구조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느낌과 직감이 필요하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 상태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과 함께하라.

우리들 중 일부는 서로 조금씩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분노와 같은 감정상태를 경험할 때, 눈을 감고 일곱 살 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아동기 자아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느끼는 분노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아이가 하고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의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것과 '무조건적으로' 함께하라. 아동기 자아를 이처럼 심상화해 돌보면 당신 내면에 있는 부모의 자질이 일깨워진다. 아동기 자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면 조화롭고 편안한 울림이 일어난다.

아동기 자아를 통합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울음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이다. 그런 울음은 반드시 당신이 불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나오는 것은 누적된 감정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표시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당신이 어른으로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이 때 울지 못했던 울음을 지금 우는 것이다. 이 눈물은 무의식중에 당신의 삶을 불편한 느낌으로 오염시켜온, 막히고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 눈물이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은 현재의 흐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감정 반응은 당신의 성인기 자아와 아동기 자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통로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는 굳은 살이 박인 듯이 무딘 상태인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합되지 못한 경험의 일부를 통합하겠다는 당신의 의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해방과 안도의 눈물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흘러나온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를 구출해낸 결실을 거둬들이려면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의 힘을 계속 꾸준히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특징적 감정이 의미 있는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첫 운전 수업에서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했다고 자동차 운전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통합을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해 그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즉석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의 현실 속에 표출하고 있는 불편한 경험은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과거가 보내는 구조요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기에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을 꾸준히 기울임으로써 이 요청에 응답한다면, 당신은 자기 경험의 질에 조화를 회복시키는 에너지 차원의 과정을 개시해 자신의 인간적 표현의 소중한 한 단면을 과거라는 관념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83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3(直)
FAX 02) 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군
• 대지 : 약 4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개
• 물좋고 산세,경관이 수려함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308-0876
011-9588-0998

조그마한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상운면 문촌리 (신라 약수암)
• 대지 200평
• 법당20평(가건물), 요사채 24평
• 가액 : 1억5천만원 (하실분만 가액상담)
• 절전답 2800평도 있음(별도)
010-9004-721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 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청동불상 포함 3,900만원 부처님 빼면 2,500만원
010-2251-3378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8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흑 금니 후불탱화, 촛대, 불기, 인등, 연등, 탁자, 앰프, 칠판, 좌부동 일체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10-2832-455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양도가 : 3억 5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문의 010-5155-19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IC 부근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 1억 (절충 가능)
010-2575-987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0-2503-3899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갤러리 색즉시공



〈공양제불 공행백분은 금강경의 경구〉

부처님의 열반

"아난다여, 내가 가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自燈明法燈明).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말씀을 마치신 세존께서는 초선에 드셨다. 그리고 2선, 3선 4선을 거쳐 공무변처에 드셨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후에 상수멸에 드셨다.

3월 15일(음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신 날(열반재일)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 날이다.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에게 부처님 오신 날도 새겨야 할 일이지만 가신 날 또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오신 날 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가신 날의 기억이 적은 것은 아닐까.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 따르는 일이 평생 하신 말씀 기억하는 일이니, 오늘 하루 그 말씀 입에 붙이기만 해도 그 일 가벼운 일 아닐 것이다.

그림 · 성륜 스님 / 글 · 박재완 기자

"인과와 윤회 법문에 환희심… 신묘한 약"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결혼 후 시댁 종교 따라 불교로 개종
'감인대' 화두… 사바는 忍土 절감

불교와 만나다

나는 너와 더불어 사는 존재, 그래서 한 뿌리 한 생명이며,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만 알아도 인생의 문제 반은 해결된 것이다.

내가 한 말과 행동, 마음먹었던 생각들로 인한 결과물이 오늘의 '나' 라는 사실을 불교를 만나면서 깨달았다. 지금이야 내가 지어 내가 받는다는 자작자수(自作自守),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유심조(切唯心造)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는 정말 심연 깊숙이 다가와 내 모든 것을 흔들고 지나갔다. 그렇게 불교와 만났고, 깊이 들어갔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인연들을 즐거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

불교와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 당하는 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의식의 밑바닥 깊숙이에서 '이것이 아닌데..'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인갑답게 내 의지가 참가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왔을 때, 불교와 만났다. 종교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온 고향을 향한 향수처럼 고여 있던 그때가 서른아홉, 막 불혹을 앞둔 나이였다.

어렸을 때는 성당에 다녔고 한때는 수녀를 꿈꾸기도 했다. 결혼 전 직장에 다닐 때는 혜화동에 있는 동정녀마리아회라는 모임에 나가기도 했다. 천주교를 계속 믿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에서는 불교를 믿고 있었기에 용납이 되지 않았다. 순종이 미덕인줄만 알았던 새댁시절이었기에 시댁식구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주장을 세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교와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혼인을 하고 보니 종교가 불교라고는 하나 부처님 오신날 한 번 정도 절에 갔다. 그래도 나는 초파일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아이들에게 스케치북에 부처님 그림을 그리게 했고, 떡도 받아먹고 밥도 먹고 왔다.

그런데 그렇게 일 년에 한 번씩 따라 다녀보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 집안 잘되게 해달라' 고 복을 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었다. 올바로 이해하고 나서 내가 믿는 종교와 비교해 시댁식구들에게 내 종교를 믿게 하던지, 아니면 내가 불교를 믿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다.

짧은 치마를 입고 처음 봉은사 법당에서 절을 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만큼 아무 것도 몰랐다. 법당 한 쪽에 쌓여 있는 방석에 임자가 있는 줄 알고 방석 크기를 재고 색깔도 눈에 담아두고 나와 동대문 시장에 가서 감을 끊어 내 방석을 만들었다.

그 후 남들이 절을 하기에 절을 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길래 따라 불렀고, 불교 용품점에 가니〈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을 팔길래 사서 읽고〈몽수경〉도 읽었다. 이웃 종교에서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 불교는 누가 오는지 가는지 무심해서, 혼자 알아서 믿어야 하는 종교인 줄 알았다.

불교가 도시 무얼 가르치는지 알아야겠는데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다. 지금은 웬만한 큰 절에는 불교기초교리강좌가 개설되어있지만, 당시에는 어느 절도 마찬가지겠지만 봉은사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고, 게다가 봉은사에선 스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날마다 데모를 하고 있었다.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 "엄마, 스님들이 왜 데모를 해?" 하고 묻기에 "응, 데모를 하지 말자고 데모를 하는 거야."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데모 때문에 잠깐 절에 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보고 자라야 한다고 하지만 기왕이면 밝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즈음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친구 모임에서 부부동반으로 남한산성에 놀러갔는데 잠시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흩어져 봄나물을 캐는 동안 나는 호젓하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작은 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마침 법문 시간 중이었는지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산다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일이다"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법문 전체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뭉클거렸던 걸 보면 인상에 남았던 것 같다. 돌아와 얼마 후,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 절을 찾아갔다.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여서 여쭈어보았다.

"스님 지난 법회에서 법문하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스님께서 묵묵히 계시더니 한지에 붓글씨로 '감인대(甘忍待)' 라고 써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님께선 그 때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내 마음을 읽고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 동국제강 본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포항에 신설 공장을 세울 때 창립멤버로 갔다. 아이들과 서울에서 생활하던 나는 결혼생활 중 남편과 따로 살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마음을 가누기 힘들 때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절에 가서 초를 켜고는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게 내 길이라면 그렇게 해보겠다."하고 다짐했다.

어느 날은 스님께서 무엇을 꿰뚫어 보신 듯 기다릴 '대(待)' 자 하나만 써주셨다. 어느덧 "감인대"가 나의 화두가 되었고 나중에 태고종 종정이 되신 덕암스님께 수덕화修德華라는 법명을 받았다. 좀 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사바세계는 우리에게 온 일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인토(忍土)임을 알았고,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연기법과 인과법을 수용하면서 사는 길이고, 중생에 수순하는 길이며 도의 길이라는 걸 말이다. 그때 화두로 들었던 감인대야 말로 세상을 수용하고 나를 수용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봉은사 분규가 가라앉게 되자 자연스럽게 봉은사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

책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불교 책을 보는데 인과와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지은 대로 받고 내가 행동한 대로 윤회한다는 가르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느낌이었다.

"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생기는 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닦으면 되겠구나."

좋은 것은 금방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발심을 하자마자 불교에 바로 들어갔다.

"식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인과의 법문은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신묘한 약이 되었다. 살면서 무수히 들었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격언들이 이미 인과의 법문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건만 무심히 지나쳐왔던 것이다.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안 순간부터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환희심이 올라왔다. 그것이 인과의 법문이며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순간부터 살얼음판의 삶을 산다고 할까, 발 한발자국을 뗄 때마다 "이게 진정으로 바로 가는 것인가?" 라는 마음의 소릴 듣기 시작했다.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알게 되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식구들에게 "내 종교로 가자"라고 할 일이 없어졌다.

절대신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신의 종이 아니라 부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는 것은 아기신앙이고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냉담자라고 하는데, 하느님 세계에서는 굉장히 죄를 짓는 일이어서 언젠가는 가톨릭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과와 윤회의 도리를 알고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더 미룰 수가 없어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드렸다.

"남편이 불교를 믿어서 결혼 후에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내 종교에 귀의시키려고 불교 공부를 해보았는데 마음에 와 닿아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신부님께서 인도를 아주 잘 해주셨다. "잘 살려고 종교를 믿는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시댁의 종교를 따르세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편한 마음으로 불교도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여여원 원장〉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불탄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탄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대행 스님

모든게 일심으로 돌아가는것이니 일심에다 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럼 여러분이 마음공부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애고가 있고 병고가 있다고 해서 금방 그것만 애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냥 그것만 앞장세우고 그냥 애탄지탄하지 마시고 '야, 이런 수확이 어딨어? 이런 게 닥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겠다.' 한다면 고(苦)도 고가 아니에요. 어디 갈 때, 길을 걸을 때, 지루할 때 말입니다, 차가 갈 때에 그 차가 밀려서 지루하게 쉴 때가 있죠. 어떠한 좋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차가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요. 길을 걸을 때도 지루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냥 멀건히 있으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게.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고 뛰는데 뭐가 지루합니까? 그렇다고 그냥 별거 아닌 거를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모조리 다가오는 대로 거기다 놓고 신선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남이 안 하는 신성한 생각.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이 모든 애고、병고、유전성、영계성、세균성,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닥쳐오면은 "흥!" 코웃음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허,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겼네. 네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내놓은 것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어떠한 고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요런 재료를 내놓는 것도 너야. 그러니까 체험하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들 열심히들 하십시오.

그 공부들 열심히 못하시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응신이 되지 못합니다. 응신으로 화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의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자생중생이 화해서 천백억화신, 응신으로서 둘 아니게 응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자기가 그분이 되죠. 자기가 바로 그분이 되죠. 그래서 이 공부 하는 분들은 바로 정신계에 요점을 두고, 내 자생중생을 제도해야 내가 제도가 된다는 뜻이죠. 자생중생이 제도가 못된다면은 내가 제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성불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생중생을 제도하려면 내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모든 걸, 아까 다섯 가지 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보신다면 모두가 공향으로서, 공양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밝음이 역력히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려걸랑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데 뒤범벅을 해놓지 마시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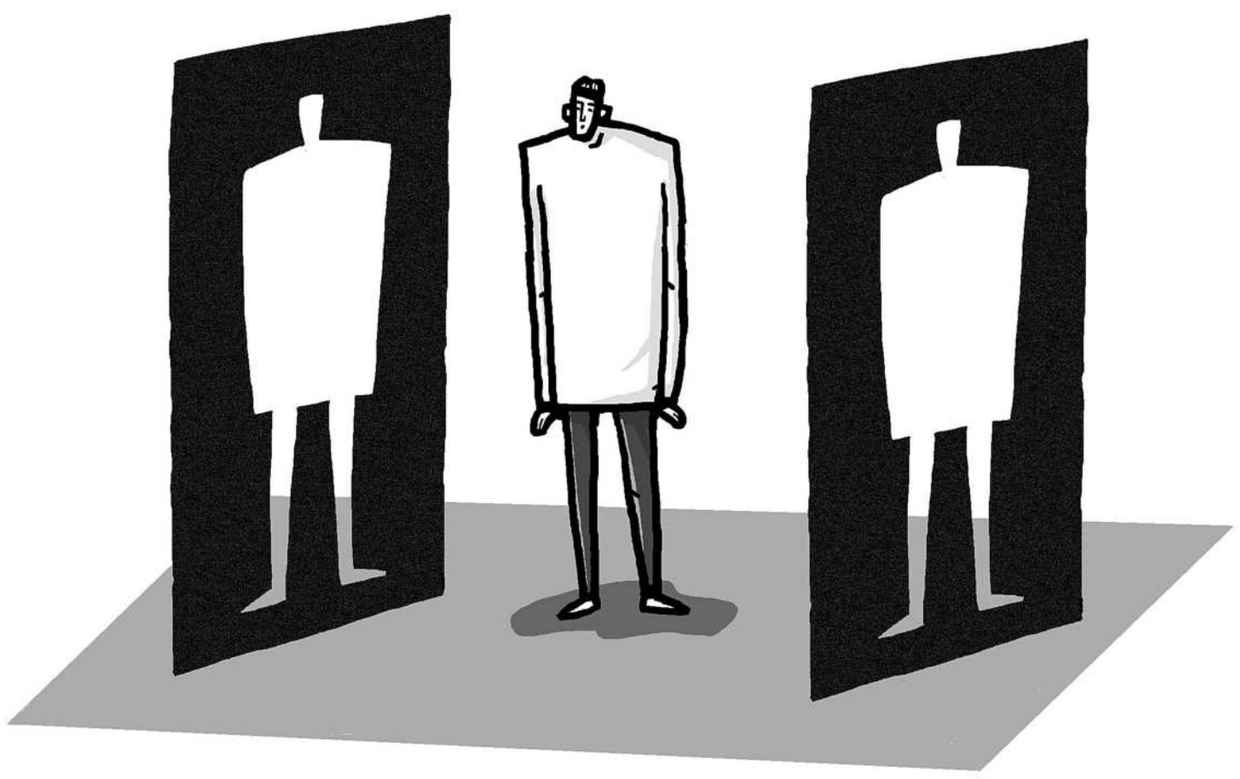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보다 우리 여러 불자님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생에 깨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공부 하다가 깨치지 못하고 옷을 벗게 될 경우에 지금의 이 공부가 어떤 공덕이 되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공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뜻을 아시죠? 이 내면의 세계에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먹어주는 것이고 그 모두가 다 먹기 때문에 공양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모든 거를 거기다가 감사하게 놓고 또 구정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 것도 거기 그 자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열반입니다. 그대로 공덕으로써 그대로 요다음 생에는 부처로서 법신으로서 응신이 되고 이 세상에 이 굴레바퀴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다, 어떤 건 갖고 어떤 건 안 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면으로도 공양 공덕이요, 바로 외부로서도 공양 공덕이요, 공체、공심 또는 공용、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그 도리를 하나로 묶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야 틀림없죠. 더디고 빠르고 이것뿐이지 틀림없습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의문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에는 큰스님을 뵙고 질문을 하려 했다가도 막상 큰스님 면전에 서면 아무것도 질문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정의 힘이 약한 탓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리가 있는 것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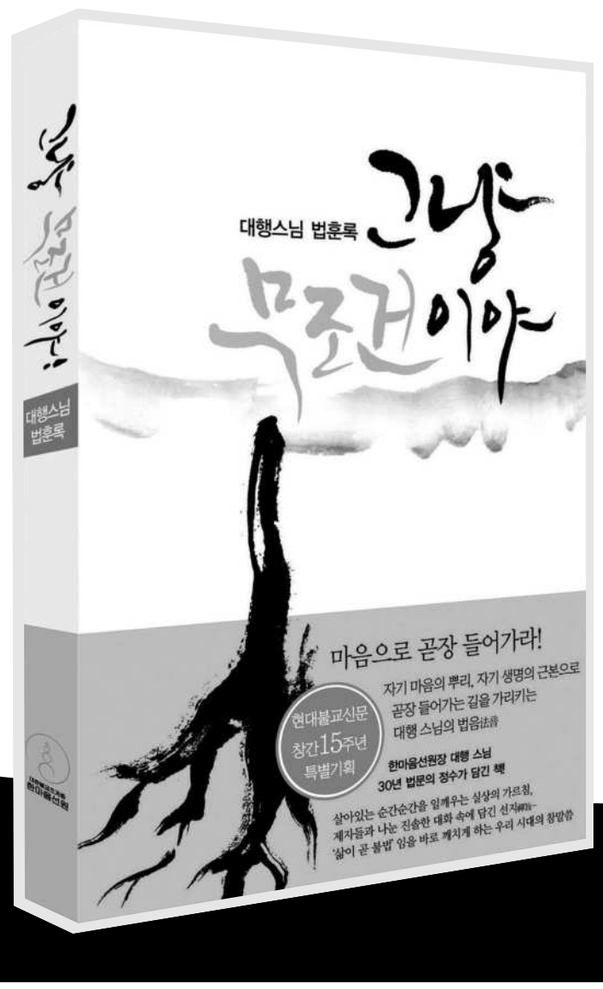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큰스님: 다른 도리가 있고 말고요. 이거는 자기한테서 의정이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서 풀어야지 누구한테서 풀려고 애를 씁니까. 하하하. 이거 보세요. 자기가 모든 것을,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렇고, 이런 게 닥쳐왔다 하더라도 그렇고, 어떠한 의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 땅을 짚지 않고 딴 사람이 일으켜줄 때를 바라고 있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게 있듯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거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상대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탓으로 다 돌려라 하는 건 바로 내가 있으니깐 부딪침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바로 '주인공, 너만이 이것을 타파할 수가 있어.' 하고 맡겨야 그 자리에서만이 이런 의정을 타파해줄 수도 있으니 '이건 뭐야?' 하고 묻는 것도 그 자리에다 물으세요. 그래야 빠릅니다. 그래야지, 제삼자한테 물어봤던들 '내가 배가 고프니 밥 좀 대신 잡숴주시오.'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먹어봐야 본인이 배가 부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어렵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응, 네가 이런 답답함을 내놓은 거니까, 네가 답답함의 그 의정을 해소할 수도 있고, 그 의정을 풀어줄 수도 있고 너만이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 속에서 나온 거 그 속에다가 푸세요. 그래야 공부가 빨리 되죠.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는 경계에 부딪쳐서 그 순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심반조(自心返照)' 와 또는 '회광반조(廻光返照)' 라는 말이 나오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밝은 마음으로서 모든 걸 깊숙한 내면세계에 놓고 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데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심반조'와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법(觀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밝은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놓고 감사하게 맡기고 구정물을 말갛게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 돌아가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도리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큰스님: 회광반조(廻光返照)가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심반조(自身返照)도 그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밝은 마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나에게다 놓고 그 모두를 그 깊숙한 내면세계에 놓고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그 도리입니다.

질문자1(남):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선사가 제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공부가 조용한 중에는 그만한 편이나 움직이는 중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시면서 북두칠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두를 보라.' 함이 무슨 뜻인지 가르침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발은 하늘을 보고 머리는 땅속을 본다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를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질이 다 허망한 것이니 그 허망한 물질이 움죽거림이 움죽거림이 아님을 알면 바로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방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북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음세계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이 움죽거리시는 겁니까? 네? 이 물질을 가지고 허망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것이 움죽거리는 것을, 움죽거림이 아님을 알라 한 것도 그것도 바로 마음으로부터 움죽거림이 나오지 마음이 아니라면 움죽거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마음의 주인이 하자는 대로 육신은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아, 칠성이 참 잘생겼다. 아! 고놈, 아주 칠성이 곧잘 생겼는데?" 이러기도 하죠. 그러니 이 밝은 마음, 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도리를 그 밝음에서 보라,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두를 봐라. 내 마음의 제일 높음을 말하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인간은 머리가 제일 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위가 아니라 정신이 위란 얘기죠. 북두, 이 모든 것을 남쪽으로 얼굴은 돌리되 그 내면의 북두를 봐라. 그걸 볼 줄 알아야 어느 일을 하더라도, 어느 걸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죽거려도 움죽거림이 아니니라. 그게 움죽거려도 움죽거림이 아니요 움죽거리지 않아도 움죽거림이요, 그 가운데 묘미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가진 여러 조사들도 부처님들도 다들 그렇게 앉아서 이 얼굴을 여기다 두고도 팔방미인이었지요.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땅속도 보고 위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안 보이는 게 없어서 면경알 같다. 면경에 자기가 비치는 게 자기가 아니고 그 팔방미인이 바로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두를, 한꺼번에 시공을 초월해서 걸림없이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를 바로 우리는 고개를 이리로 두고도 뒤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현실에, 미래에 이 삼세가 바로 일심(一心) 현실 지금 이 자리라는 겁니다.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죠. 바로 삼세가 있으니 네가 태어나기 이전을 찾아라 이러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찾느라고 바깥을 그냥 헤매고 도는데 그게 아니에요. 즉 과거도 자기요, 현실도 자기요, 미래도 자깁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작년 씨를 갖다가 올봄에 심었더니 싹으로 화했더라. 싹으로 화했는데 작년 씨를 어디서 찾는고? 그래서 싹으로 화해서 벌써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익어서 그냥 그 열매가, 씨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아니, 작년 씨를 작년에 가서 찾다니!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싹으로 화해서 태어난 것을 '작년 씨를 어디 가서 되찾노?'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잘 내서 새 물로 바꿔쓸 수만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이건 제 개인이 의심난 건데요. 방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흥부방생은 하고 놀부방생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저는 어떻게 이해가 잘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하하하. 묻는 분도 이상스럽게 묻네요. 허허허. 악한 방생, 선한 방생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소리죠? 사람이 악한 거를 지으면 악한 대로 악업이 되고 선한 일을 해서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 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까닭이죠. 예? 그래서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선업이 되고요. 선업이 됨으로써 착한 업을 받으니까. 남의 따귀를 물씬하게 때려보십시오. 뭐 당장 악업이 닥쳐서 자기한테 따귀가 들어오지요. 그러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가르치는 거는 아까 질문을 하심과 같이 악업은 굴려서, 좋은 생각으로 굴려서 그 자리에 놓고 선업은 감사하게 그 자리에 놓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도 선업도 다 벗어날 수가 있죠. 예?

질문자1(남): 예. 여러 가지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비구): 큰스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마 마음씀이 고를 때 몸은 자유롭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날 밝은 날 눈뜬 자가 눈먼 자의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고, 어두운 밤에는 눈먼 자가 도리어 눈뜬 자의 가는 길에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치를 생각해보라.' 는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에 있는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관계에 있어서, 비구 스님이 부족하고 또 비구니 스님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마음을 한자리 한마음 그 속에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안된다는 그런 차원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연중생(無緣衆生) 불연제도(不緣濟度)' 라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음 자리에 넣어가지고 그런 중생들마저 같이 이 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거는 물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안되겠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서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면 되겠죠. 허나 이 비구스님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러 많습디다. 비구니는 성불을 못한다느니,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느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비구 스님네들 자기 마음에 불과한 겁니다. 대의적인 문제로 본다면 천(天)、지(地)、인(人)이 없으면 같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산하대지가 만물을 다 길러내는 어머니나 같아요, 태양으로서 따뜻함을 주는 것은 아버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상봉이 됐을 때에 그 가운데서 불이 켜지느니라.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졌을 때 불이 켜질 뿐이니라, 이거와 같죠. 어머니 아버지가, 쉽게 말을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때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물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좁은 생각에서, 통 속에 들어 있으면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다못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거늘 어찌 비구니가 뭐를 아느냐고 이렇게 배척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느냐 이런 말이죠. 생명의 근본도 다르지 않을 것이요,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요, 생활도 다르지 않을 것이요, 모습만이 다르다 해서 어째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나,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 그 생각이 바로 자기의 그 직접적인 자기 부(父)와 자(子)의 만남을 막는 길이죠. 자(子)와 부(父)가 만남이 있어야만이 상부상조해서 마음을 냈을 땐 자가 되고, 마음을 가만히 쉬었을 땐 부가 되고, 자유자재해서 바로 천백억화신으로 응신이 돼서 자재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비구니는 성불 못해.' 이러니까 비구니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비구니로부터 매사 걸 다 버리는 게 되거든요. 구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되니까 자기 홀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죠,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좀더 넓게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게 일심(一心)으로 돌아가는 거고 일심으로 들이고 내는 거니까 일심에다 놔라. 놓고, 나도 없을 때에 비로소 모든 그 자유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질문자3(남): 저는 큰스님 법문을 듣고 참이 공부를 하게 된 것에 오늘 진실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스님한테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좀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기 위해서 스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불교대학이라고 일 년 만에 마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대학을 제가 원서를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교대학에 접수를 안 해도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니지 마시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문을 듣고 나서 원서를 내야 되는 건지, 안 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묻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경서를 듣고 교리를 듣고 이러는 것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발전시키려면 나를 시자로 끌고다니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놈이 어딨나? 나한테 있긴 있는데 어떤 놈인고? 그것을 공부하라는 거지 교리를 배우고 아무리 말을 배워도 몸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져요. 그러니 공덕이 하나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애고(哀苦) 속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유니까요. 자유니까 맘대로 하세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3년 3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흥! 코웃음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걸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공부재료로 알고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삼보양초



①원기등홈 / 원기둥 한 BOX 20개 · 가격 : 9만원 (금초홈시예정 11만원)
②돈 타 레 홈 초 40개 · 가격 : 9만원 돈타레홈금초 40개 · 가격 : 11만원
③등신불홈(대) 25개 등신불홈 40개 한 BOX · 가격 : 9만원
④밀대금초 한box · 50개 95,000원 밀대 한 BOX · 50개 75,000원

※ 2BOX이상 구입 시 그을음 없고 무향, 고급향 1SET 무료증정 합니다.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공급하여,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상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고 오래 탄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3) 신상품, 금초는 색상이 아름답고 금분으로 제작되어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다.

주문전화 : 010-9421-0772
사업부 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4번길 17 (거제동)
소원사 주지 도명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자 세상보기

불교 '복지 사각지대'에 더 큰 자비를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장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계층에 부(富)가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70-80% 정도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4년 2월 26일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한 사건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빈곤문제와 복지안전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난 1주일 사이에 모두 6가구 12명이 숨졌는데, 이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복지 확충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각종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및 부양 의무자'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래에 자살한 가족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복지대상자를 심층조사하기 보다는 수적인 조사를 하는데 그쳤는데, 복지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자살 수(2012년 기준)는 1만 4160명으로 집계되어,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 중에 노인의 자살율은 10만 명당 81.6명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자살이유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된 복지 사각지대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는 것은 사회전체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빈곤율이 6위로, 국민 가운데 1년에 1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 모녀 자살사건과 비슷한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소득원인 가족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최초 한 달간 생계지원을 해 주고, 사정이 있으면 한 달을 더 연장해 주는 '긴급생계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것 또한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전면 조사에 들어가서, 세 모녀 사건 이후 한 달 내에 조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2-3명이 지역주민 3만 명 정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기초생활제도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빈곤을 선별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기반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세밀하게 대인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복지대상자들을 보살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한국사회 양극화현상과 빈곤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갖고, 통합종단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거나 혹은 종단별로 복지재단이나 '아름다운 동행'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정부와 사회복지계와 연계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발언대

미주전법 50년 시점 논란

미주전법 시작을 선착순으로 결정하나



이종권
조계종 국제포교사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

미주한국불교계는 '미주전법 50주년'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로 설왕설래가 진행 중이다.

김형근 미주현대불교 사장은 1964년 서경보 스님의 도미를 미주한국불교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4년인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미동부해외특별교구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며 큰 규모의 지원을 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국 서부의 불교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목적으로 도미해 사찰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미주한국불교계에 족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경보 스님을 미주불교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다. 당당한 한국사찰이 미국땅에 개원된 시점을 미주불교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는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불교행사는 기념을 통해서 포교효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경보스님 기원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경보스님의 도미를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행사준비위측은 조계종으로부터 행사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주인공인 서경보 스님은 1988년 조계종을 탈종해 일붕선교종을 창종한 분이다.

50주년의 시작을 서경보스님으로 잡았다면 기념행사는 필히 서경보스님에 관한 조명과 찬탄으로 채워질 것이다. 50주년이 그렇게 되었다면 60주년도 70주년도 그리고 100주년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헌데 서경보 스님은 미주한국불교의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서 영원히 추앙받을 업적이 있는가? 현존하는 대다수의 미주한국불교 승가와 불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는가?

서경보 스님은 유학생 신분으로 도미해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간 학승으로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한국스님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서경보 스님을 미주 전법 1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다는 것이 중론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에 따르면 미주에서 활동하는 여러 스님들이 미주한국불교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희망하는 분은 숭산 스님이다.

숭산 스님은 서경보 스님보다 몇 년 늦게 도미하셨지만 학생신분이 아닌 스님으로서 초청받아 도미해 미국생활을 오롯이 포교에 바치셨다. 이 같은 행적은 미주불교의 후예들에게 향구적인 가르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숭산 스님은 LA 최초의 한국사찰인 달마사, 뉴욕 최초의 한국사찰인 원각사와 조계사 그리고 시카고 최초의 한국사찰인 불타사를 창건해 오늘날 미주한국불교의 틀을 완성했다.

영어권 한국불교의 측면에서 역시 숭산 스님의 업적은 독보적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원력보살로서 'Kwan Um School of Zen'이라는 선불교 종파를 창건해 수많은 미국인 불자들을 양성했고 미전역 그리고 전세계 수십 곳의 선원이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며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미주한국불교의 출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미국에 도착한 선착순인가 아니면 미주한국불교사에서의 업적인가? 선착순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서경보 스님은 최초가 아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스님이 미국에 실존했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는데 주최측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서경보 스님 기원설을 받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열반한 서경보 스님도 이런 상황을 원하고 계신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미주한국불교의 90퍼센트는 조계종이다. 미주불심의 저변에선 "도대체 조계종에서 왜 일붕종 스님을 기념하는 행사에 돈을 쓰나?" 라는 지적이 신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경보 스님을 생전부터 흠모했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스승을 추모하고 기리는 뜻으로 그들의 정성을 모아 치루는 작은 행사가 아니고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큰 행사이다. 미주불교의 역사와 미래를 가늠하는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며 그에 합당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은 아쉬운 점이며 부작용도 염려되는 대목이다.

社說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마땅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회의의 주요 사안인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 · 법규위원 참여를 담은 종헌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까지 나서서 관련 종헌 종법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 제19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종헌 개정을 통해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관철하려 했지만,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은 이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비구,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의 설전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비구니 스님들이 회기 기간을 보이콧하면서 종회가 파행 운영됐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이 초 · 재심 호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법 개정안은 확정된 상황이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초 · 재심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명이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했으며, 비구 스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고 단서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에 열리는 제197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구니 스님들은 호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된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은 종단의 이부중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단 개혁이 이뤄진지 20년이 지났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내 위치와 권한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여성이 국가의 수장으로 활약하는 시대이지만 불교계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진입과 참종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관련 종헌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창조론 학회 주장 학생에게 가르칠텐가

2012년 여름, 한국 사회는 때 아닌 '시조새 교과서 삭제'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진추)의 청원에 따라 과학교과서 출판사 7곳 가운데 6곳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으로서 시조새를 삭제하거나 그 의미를 바꿨다. 연일 언론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마저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조롱 섞인 보도를 했다. 창조론의 약진 뒤에는 30년 간 음지에서 활동해 온 창조과학회가 있었다.

이 같은 악몽이 다시 재현됐다. 이번에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사용 지도서가 문제가 됐다. 교과서 130, 131쪽의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 논거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이 발표됐다', '또한 창조과학회 등의 학회지에서 성적 지향이 유전되거나 선천적이지 않는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3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단체 주장을 검토없이 교사용 지도서에 싣는 것은 종교와 정교분리를 내세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적, 합리적 내용을 담아야 할 교과서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단체의 주장이 여과없이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는 처사다. 게다가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내용과도 상치된다. 반대 성명을 낸 종자연은 "창조과학회가 생물학 교과서에 창조론을 싣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준동하여 상식과 신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소란을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한 창조과학자가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 아이들에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비(非)과학적인 사실을 가르칠 것인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가로/지름)	판매가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750,000원
		(中) 41㎝×21㎝	700,000원
		(小) 35㎝×21㎝	650,000원
	거북이	(中) 41㎝×21㎝	550,000원
		(小) 35㎝×21㎝	500,000원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1,040,000원
		(中) Ⓐ 21.5㎝×29㎝	760,000원
		(中) Ⓑ 18.5㎝×23㎝	560,000원
		(小) 15.5㎝×18㎝	380,000원
다기	다기	(大) 26㎝×20㎝	370,000원
		(中) Ⓐ 22㎝×14㎝	260,000원
		(中) Ⓑ 20㎝×13㎝	240,000원
		(小) 17㎝×12㎝	220,000원
향통	원형	(大) 15.5㎝×7.5㎝	100,000원
		(小) 11.7㎝×5㎝	80,000원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